현대불교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2009년 4월 29일 수요일 제 729 호 A1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독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 가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4월 25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 전야제에 등장한 장엄물.

사진=박재완 기자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
- 법구경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30-0798~9 / 팩스 722-3205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 지 정호
신도회
사부대중일동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번지
전화 02)379-299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3동 75-3
전화 02)914-5447, 2828
팩스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부설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스님 外
사부대중 일동
서울 광진구 구의동 9번지
전화 02)444-4321, 7215

지혜와 광명의 성지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주 지 도완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번지
전화 033)374-9177~8
팩스 033)374-9176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승가대학 금강율원
학 장 율 주 묘 엄
대중일동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청년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전화 031)256-4127
팩스 031)254-3371

(사)조계종
만 불 교
종 주 아사달 회인
총무원장 도원
포교원장 도평
종회원장 도산
한국토속불교 정통종단
중앙 총림 041) 544 - 4441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신통리 245-4 맑은산
(종단가입) 증명사진. 이력서. 주민초본. 분담금무

한국불교태고종
봉 원 사
"불기 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시날을 봉축합니다"
주 지 마일운
사부대중일동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02)392-3007 팩스 393-9450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월간 안양불교신문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신도회장 심정구
고 문 이필상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24
전화 031) 444-5935 팩스 031)444-5655

대한불교 조계종
정 각 사 화엄불교대학
소원이 꼭 성취 되는 절
주 지 정 엄
신도회
거사회
연꽃 어린이 회
깨침 소리(사물단)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38-1 거성3차
전화 031)398-8001
핸드폰 010-9793-9280
E-mail : so000113@hanmail.net
http://www.junggaksa.com(정각사)

대한불교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TEL 041)855-3566~7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 지 박보산
신도일동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전화 032)763-1237

한국 주재 미얀마문화원
국제 붓다사리 박물관
세계 유일의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마정수기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환희심과 가슴벅찬 감동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전화 02)733-5670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일승종 약 천 사
주 지 자 운
신도일동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핸드폰 011-9002-8523

바른佛教徒總聯合會
總裁 崔俊燮
會長 梁威燦
(會員 一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전화 02)722-6669 팩스 02)722-3205
http//www.truebuddhist.org

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2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4월 29일(음력 4월 5일) 수요일(주간) A03

"지금 여기의 당신이 부처입니다"

초파일 맞아 각 종단 지도자 '지혜와 자비의 삶' 강조 … "나눔과 화합이 고통 극복의 열쇠"

"오늘은 뭇 생명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봉축법어의 첫 머리에서 부처님오신날이 역사 속의 부처님 즉, 고타마시타르타가 탄생한 날의 의미와 앞으로 성불하여 부처를 이룰 뭇 중생들의 자존을 밝히는 날임을 천명했다.

부처님의 탄생이 갖는 역사적 종교적 의미는 이미 부처님의 탄생게에서 드러나고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의 탄생게는 일체 생명은 하늘과 땅위에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선언했고 일체의 고통을 끊어 대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밝혔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은 '뭇 생명이 태어나는 날'이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날'인 것이다.

그렇다면 '삼계개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이 길이 바로 불교의 길일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봉축사가 그 길을 설명하고 있다.

"탐욕의 불꽃이 보시의 강물로 흐르는 어느 날, 분노의 불길이 자애의 구름으로 변화하는 어느 날, 사견의 칼날이 꽃잎으로 변하여 허공을 채우는 그 모든 계절에 부처님들은 출생 하신다"고 전제한 지관 스님은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할 수 없으며 고통의 바다 아닌 곳 또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통 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이 곧 '부처님들이 출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실천궁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혜와 자비의 구족,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다. 부처님 오신날은 바로 일체중생이 부처로 오시는 날이기에 '깨닫지 못한 부처'인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의 삶을 새롭게 서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오늘 바로 이 자리, 우리 곁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살아 있는 부처"임을 강조했다.

자신의 안살림을 끊임없는 기도와 정진으로 가꾸는 사람은 누구나 수행자다.

안살림을 잘 사는 사람은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자리에서 자애를 펼치고 나눔을 실천할 때 보살도를 실천하는 참불자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살필수록 부처님의 모습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라고 반문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부처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처일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쪽에서 말과 글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행동은 마구니를 좇고 있지나 않은지 살피고 살필 일이다.

'나눔'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정갈한 바깥살림이다. 부처님의 모습을 가장 닮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나눔'인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뒤 줄곧 법을 나누는 생활을 하셨다. 부처님이 나눠주신 법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생계는 더욱 혼란스럽고 어두울 것이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고 했듯이 어려울수록 더 큰 자비심으로 베풀고 공양하여 공덕의 숲을 가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의 "자비행의 실천과 희사의 참 정신을 전하는 초발심을 내고 불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어 상생과 화합으로 상호 공양하는 인류공존과 공영의 길을 서원하자"는 당부도 불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금언(金言)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환희와 찬탄 그리고 나눔과 화합

부처님오신날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되고자 서원하는 날입니다. 이모그래픽으로 작업한 불(佛)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 사람이 함께 손잡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탄생불의 모습을 친견하시나요? 아이와 어른이 손잡고 가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무엇이든 보이는 그대로가 부처님 세상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이모그래픽 "허희태(서예가)

봉축특집 64면 발행 지면안내

■성열 스님 특별기고 '신화 속 붓다역사 속 붓다' A4~5면
■도반의 향기 자연요리연구가/임지호 A11면
■각종단 지도자 봉축사 A12~13면
■선지식을 찾아서/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 A16~17면

봉축마당
–부처님오신날에 만난 비구니 스님/성경스님 B2면
–히말라야 풍경 B3면

정진마당
–불보살상 구별 어떻게? B4면
–팔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B5~10면

행복마당
–버스기사들의 신행이야기 B11면
–5월 '기념일'에 가볼 만한 절 B13면
–사찰순례 윷놀이 B15면
–지하철 사찰순례 20 B16~17면

건강마당
–연꽃 피면 건강도 핀다 B19면
–건강을 위한 이행가요가 12 B20면

나눔마당
–불교계 국제구호활동 현황 B25면
–국제구호활동을 이끄는 불자들 B27면
–불교계 기부보살들 B30면

법구경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튼튼하게 정비하라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www.buddhabook.co.kr
02_3672-7181~5
운주사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황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2553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중앙종회의장 보 선
호 계 원 장 법 등
총무원장 지 관
포 교 원 장 혜 총
교육원장대행 법 장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역사속의 '인간 붓다' 본받아 수행하고 전법 하자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고따마 붓다의 일생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따마 붓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경전들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흩어져 전해지는데다가 더욱이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가 뒤섞여 있고, 후대의 전적(典籍)일수록 역사적 존재로서 붓다의 모습보다는 신화적인 모습들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따마 붓다의 전기를 읽을 때, 저자에 따라 붓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떤 자료를 어떤 시각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우리 주변에는 고따마 붓다를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신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역사적 존재인 고따마 붓다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심을 정립하는 것이요, 바른 신행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은 역사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누구의 삶도 사회의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다. 고따마 붓다의 삶도 그가 태어난 역사와 사회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그의 삶을 반영하는 가르침 역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떠한 변동기에 있었으며, 고따마 붓다와 교우(交友)했던 이들과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재익 作 '붓다-불타는 것들'(왼쪽)과 '붓다-꽃이 피다'.

붓다는 신이 아닌 '길을 가리키는 사람'

고따마 붓다가 태어난 시대는 봉건적 세습 군주국가에 의해 공화정을 펼치던 부족국가가 정복되어가는 정치적 격변기였으며, 제2의 계급에 속했던 캇띠아들이 바라문들의 명목상의 권위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시기였다. 또한 강가강 중류 지역에서 점차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로 제3의 계급에 속했던 평민들 가운데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들이 사회적 실력자로 부상하는 시대였으며, 고대인도의 사상계가 관념론과 유물론으로 갈라져 극한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혼돈의 시대였다.

이처럼 고따마 붓다는 마치 혁명이라도 일어날듯한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조차 없는 격변과 혼란의 한 복판에 태어난 붓다는 이미 극한대립을 조절하고 화해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떠안고 온 셈이다. 붓다가 말한 중도(中道)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 땅의 대부분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신행은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 고따마 붓다가 가르친 삶의 방식을 체험을 통해 자기화(自己化)하기보다는 신격화(神格化)되고 초인화(超人化)된 붓다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마디로 불교학이라기보다 불교신학(佛敎神學)의 성향이 짙다. 고따마 붓다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은 신앙심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교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왔다. 불교의 신학화야말로 불교 타락의 극치라 하겠다.

고따마 붓다를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는 고따마가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각자(覺者)로서 위대한 스승이요, 출가한 이들의 단체인 상가의 창설자요, 상가의 후원자들인 우빠사까와 우빠시까를 조직한 지도자였다. 당시의 불교도에게는 우상숭배도 없었고, 출가자에게는 사제(司祭)의 역할도 없었다. 붓다는 선각자로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 신이 아니었다.

라자가하에서는 시자 우빠와나에게 '내가 지금 풍으로 척추가 아프니, 너는 지금 성으로 들어가 따뜻한 꿀물을 조금 구해오라' 고 했고, 아난다에게 '지금 나는 늙어빠진 노인이라 머지않아 갈 것이다. 나는 인생행로의 끝에 도착했고, 생의 한계를 맞고 있다. 내 나이 벌써 80을 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쉬고 싶을 뿐' 이라 했듯이, 붓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제자 왓깔리가 '나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었는데 몸에 병이 들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다' 고 말하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아서 무엇 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 이라 하여 오직 붓다가 깨달은 법을 터득하는 것이 붓다를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붓다를 신처럼 보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인도 대륙 남쪽 앗싸까국에서 멀리 마가다의 라자가하까지 찾아왔던 16명의 수행자들이 '저 분은 혹시 신이 아닐까' 라고 의심했었고, 꼬살라국의 웃깟타에서 세따비아로 가는 길에 만났던 바라문 도나도 '당신은 신이 되셨느냐' 고 물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붓다는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꼬살라의 빠세나디왕이 '붓다는 금강신(金剛身)이라 하던데 늙고 병드는 일이 있느냐' 고 물었을 때, '진리의 체현자인 나에게도 늙고 병들며 죽는 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나 역시 사람일 뿐이다. 아버지는 숫도다나요, 어머니는 마야시며, 캇띠아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일 뿐' 이라 했다.

붓다 그분을 신처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붓다 자신이 말했듯이 인간일 뿐이라고 볼 것인가. 붓다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더 이상 번민하지 않으면서 대자유의 삶을 누리는 지혜를 성취한 인간이기를 원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중생들의 마음은 지상의 인간이 아닌 신(神)으로 그리려고 했다. 붓다에 대한 존경심이 그려내는 아름다움이겠지만 붓다에 대한 실체적 접근에는 큰 장벽이 된다.

붓다의 인간적인 삶이 더 위대하다

붓다가 위대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위대함은 오히려 붓다에 대한 시기질투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붓다에 대한 시기질투는 붓다를 모함하고 살해하려는 사악한 행위까지 불러왔다. 반대세력의 모함은 붓다가 겪게 되는 아픈 시련이었는데, 사람들은 붓다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는데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붓다가 정말로 위대한 존재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을 지켜보면 붓다의 위대성에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업보(業報) 자체를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라 할지라도 인과(因果)의 이치를 초월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붓다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자신이 행한 업에 대한 대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인과의 필연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를 강조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하게 된다.

용수(龍樹)는 붓다가 인과의 굴레를 넘지 못하고 겪어야만했던 고통스러웠던 일 아홉 가지를 들고 있는데, 순다리의 변사사건, 찐짜마나위까의 거짓 임신사건, 데와닷따에 의해 발에 상처받은 사건, 걸식하다가 나뭇가지에 발을 찔린 사건, 위두다바의 샤까족 몰살사건, 웨란자에서 말먹이를 먹어야 했던 일, 찬바람으로 척추를 앓았던 일, 성도전(成道前)의 6년 고행, 빤짜살라 마을에서 걸식하지 못한 일, 웨살리의 고따마까 쩨띠야에서 동지 전후 8일 밤을 세벌의 가사로 추위를 견뎠던 일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역사속의 붓다는 설화속의 붓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불교의 위기는 교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고따마 붓다, 그는 진정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불교의 교주론(敎主論)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도와 자비실천의 일생 본받아야

고따마 붓다의 80평생을 간단히 말하면 깨달음을 얻기 전의 구도의 과정과 깨달음을 얻은 후의 자비실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붓다가 되기까지의 삶, 즉 구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숫도다나의 아들로 태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다가 29살에 출가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존재의 실상을 눈뜨기까지의 삶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도의 길에 나섰는가를 말해준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볼 때, '엄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기 위해 욕망을 떨쳐내는 과정' 이었으니,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었고, 지혜를 완성하는 길이었다. 한마디로 욕망에 가득 찬 기대감을 떨쳐버리는 비움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붓다가 깨달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없었던 것을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다' 는 뜻이다. 여실지견(如實知見)이 바로 붓다의 깨달음을 번역한 말이다. 그 '알고 보는' 깨달음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졌기에 등정각(等正覺)이라 하고, 정변지(正遍知)라 했다.

깨달음은 '있는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다' 는 뜻

붓다가 말하기를, '붓다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상주(常住)하는 현상계가 존속하는 이치(法住)이며, 현상계의 근원적인 원리(法界)로서 붓다인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보편타당한 깨달음(等正覺)을 이루었다' 고 했던 것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 그대로' 가 현상계요, 현상계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역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불교계. 새희망. 새미래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귀의삼보하옵고
한국 불교계 각 종단 대표 고승대덕스님 그리고 7천만 민족과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옵니다. 수 천년 유구한 불교역사는 한국불교인의 혼이며. 역사며. 미래입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불국정토를 위하여 구불정신으로 뜻을 같이하실 각종단 대표 총무원장님의 동참을 제방에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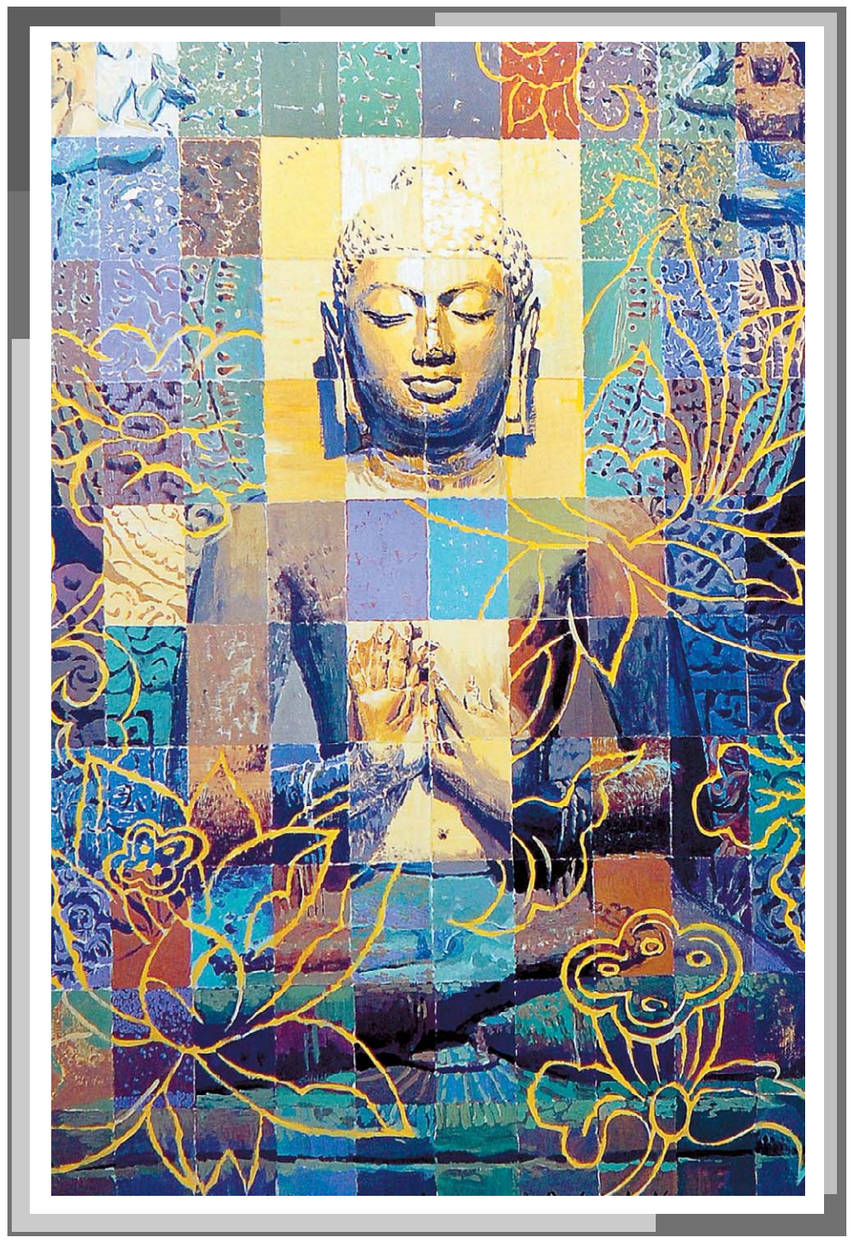
고 문 27개 종단 종정예하

명예 총재 (본회 총재 역임자)
자문 위원 **도산. 적관** (각계 대표위원)
총 재 **운 산** (태 고 종 총무원장)
부 총 재 **혜 정** (일 승 종 총무원장)
회 장 **지 암** (해동임제종 총무원장)
수석부회장 **위 산** (위 앙 종 총무원장)
상임부회장 **법 민** (한국원효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보 각** (약 불 종 총무원장)
행정위원장 **법 장** (삼 보 종 총무원장)
재정위원장 **법 광** (한국대승종 총무원장)
감사위원장 **대 광** (무 상 종 총무원장)

운영이사 **청 호** (연 화 종 총무원장) 외교위원장
운영이사 **학 성** (해동무량종 총무원장) 가람위원장
운영이사 **화 담** (불 교 종 총무원장) 의전위원장
운영이사 **덕 산** (소림선종 총무원장) 무공위원장
운영이사 **도 경** (선조계종 총무원장) 의료위원장
운영이사 **자 오** (원 각 종 총무원장) 기획위원장
운영이사 **원 광** (도 천 종 총무원장) 호계위원장
운영이사 **원 당** (한국천태종 총무원장) 정책위원장
운영이사 **구 천** (법 왕 종 총무원장) 정보위원장
운영이사 **대 명** (천 지 종 총무원장) 연수위원장
운영이사 **도 선** (생활조계종 총무원장) 사정위원장
운영이사 **도 오** (임제율종 총무원장) 홍보위원장
운영이사 **혜 일** (연 합 종 총무원장) 문사위원장
운영이사 **도 산** (임제선종 총무원장) 선원위원장

■ 사무소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삼보빌딩 3층)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 사무국장 정성무 011- 801- 8197 (행정실) 055-331-7902

삶 속에 생동하는 대자유인의 '행로'를 따르자



◀ 조재익 作 '붓다-꽃'.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

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如)'고 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을 때의 마음상태를 멸진정(滅盡定)이라 했는데, 그것은 몸뚱이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느끼는 감각적 느낌(受)이나 그 감각적 느낌을 가지고 지각하는 것(想)을 모두 떨쳐 없애 버린 무념무상(無念無想)의 상태를 말한다. 한 마디로 무심(無心)이다.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았다는 것은 무심으로 보고 무심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色)을 말하고, '안다'는 것은 사고가 만들어내는 이름과 문자의 세계(名)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따마 붓다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수행의 과정은 결국 5온에서 말하는 수(受)와 상(想)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고따마 붓다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어떤 선입견도 없이 내 목전에 펼쳐지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직관(直觀)했다는 뜻이다. 그것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통해 세상을 보거나 안다는 뜻이기도 하다. 붓다는 그 선입견을 '욕망에 가득 찬 기대감'이라 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다는 말이다.

붓다는 생사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붓다는 어떤 분인가? 이제 인도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붓다라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고따마 붓다의 입을 통해 알아보자.

한 바라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붓다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바라문아, 중생의 길고 긴 역사를 관찰해 보니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직면하는 고뇌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객관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내면적으로 망상에 매달리는 것에서 벗어나 독화살과 같은 번뇌를 없애버렸으니 생과 사의 문제에서 초래되는 갈등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나를 붓다라고 말한다."

붓다란 어떤 존재인가를 붓다 자신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붓다는 분명 역사내적 존재이지 초월적 존재가 아니었다. 고따마 붓다를 초월적 존재로 보려는 것은 신앙심의 발로이겠지만 그러한 마음만으로는 붓다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깨달음을 얻어 붓다가 된 다음의 삶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다. 구도의 길에 들어선 싯닷타의 삶이 천둥번개가 치고 폭포수가 내리쏟는듯한 치열한 투쟁의 삶이었다면 정각(正覺)한 후의 붓다의 삶은 잔잔하고 평온한 자애가 흘러넘치는 성자의 삶이었다. 전반부는 오직 지혜를 완성하는 길이었다면 후반부는 성자의 잔잔하면서도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의 실천과정이다.

정각 후의 삶은 사랑의 실천과정

성자로서 붓다의 삶은 자비심에 충만한 인간애(人間愛)의 분출이었다. 그의 인간애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깨달음을 얻은 이의 양심의 발로이자 새로운 시대적 사명에 눈뜬 것이다. 붓다로서의 그의 삶은 무지(無知)와 맹목(盲目)의 굴레에 갇혀 고통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동정심(同情心)의 발로였으며,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오직 지적 성숙뿐임을 알아 그칠 줄 모르는 가르침으로 나타났다.

여든이 넘은 노구(老軀)를 이끌고 임종의 날을 향해 천리 길을 걸으면서 자비에 가득 찬 말씀을 나누었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자신을 뵙고자 하는 이면 그가 누구이던 가리지 않고 가르침을 주었다. 29살에 출가하고, 6년간 수행해서 35살에 성불한 붓다는 만 80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45년간 오로지 전법의 길 위에 서 있었다. 80평생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전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전법을 통해서 불교는 새로운 인도사회의 사회운동, 정신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한 점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평생 노구를 이끌고 설법의 길에 나섰다는 점이다.

붓다는 와라나시에서 60명의 제자들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비구들아, 나는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도 역시 신들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다른 마을로 갈 때,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이치에 맞게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법을 전하라. 원만 무결하게 청정한 범행(梵行)을 설하라. 중생들 가운데는 번뇌가 적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하면 악에 떨어질 것이나 법을 들음으로 성숙해질 것이다. 비구들아, 나도 법을 전하기 위하여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서 설법하리라."

이 전도선언은 불교 역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붓다와 비구들은 동일한 자격으로 전도에 나선다는 것이요, 둘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과 번민에 빠져있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한 사람씩 흩어져 가라고 하였으니 불법을 전파하고자 하는 길에는 저항이나 박해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넷째는 감정에 호소하여 절규하는 예언자적 태도나 권위를 앞세워 맹목적으로 따르게 할 것이 아니라 조리와 표현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며, 다섯째는 출가 희망자가 있을 때는 현지에서 입문시키라는 것이며, 여섯째는 붓다 자신도 홀로 전도의 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붓다의 전도선언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당시 바라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스승과 제자 사이에 비법(秘法)으로 전수해 온데 비하여 붓다는 자신의 깨달음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붓다 이후 불교역사의 전개과정은 바로 이 전도선언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고따마 붓다가 이 세상에서 법음을 전하다가 최후를 마친 것은 서력 기원전 486년의 일이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일 뿐이고, 그 분의 역사적 존재의미는 기원전 486년의 사건과는 관계없다. 오늘의 불교도들의 마음에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 붓다는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이지만 불교도들이 붓다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분은 벌써 죽어버린 것이다.

출가정신 없다면 수행자 아닌 사제

불교도는 붓다의 부활(復活)을 희구하지 않는다. 붓다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구현하기를 바랄 뿐이다. 고따마 붓다가 중생의 현실에 살아 있느냐 죽어버렸느냐는 기원전 486년의 사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교도들의 마음자세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붓다가 오늘의 불교도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으려면 그 분의 삶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그 분의 삶이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우고 있는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만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붓다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고따마 붓다이다. 붓다는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일깨우고 개선하는데 앞장섰던 역사내적 존재였다. 교리적으로 말하는 붓다는 초역사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초역사적인 존재로서 붓다에게는 생로병사(生老病死)도 없고 깨달음의 극적인 순간도 없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초역사적 존재로서 붓다를 생각한다면 그의 불교는 이미 역사를 벗어나게 된다. 역사를 벗어난 불교는 신학화된 불교에 지나지 않는다. 신학화된 불교에서는 승려는 고따마 붓다의 뒤를 잇는 수행자가 아니라 사제(司祭)로 전락하고 만다. 사실 오늘 이 땅의 많은 출가자들이 사제의 역할에 매달려 있을 뿐 붓다의 정신으로 살려는 몸짓은 적어 보인다. 바로 이것이 한국불교의 위기이다.

사찰의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서 불교가 중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찰이 허름하고 작더라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출가자의 정신이 살아 있다면 불교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사찰의 규모는 거창하고 화려한데 그곳에 살고 있는 출가자들의 정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해 마지않는 고따마 붓다 역시 죽어버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불교를 중생의 역사에서 생동하는 삶의 가치로 되살려내려면 신학화된 불타관(佛陀觀)에서 벗어나 인간 고따마 붓다의 진면목을 읽어내야만 한다.

붓다와의 만남은 현재 진행형이어야

우리가 찾는 붓다는 우람한 불전에 안치된 불상도 아니요, 우상화되고 신격화된 붓다도 아니다.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았던 인간 고따마 붓다이다. 붓다의 삶은 붓다 자신의 존재의 표현일 뿐이었다. 그래서 붓다의 삶은 붓다가 살았던 구체적인 역사상황을 통해서 읽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따마 붓다와 오늘 우리의 만남은 항상 새롭고 신선미가 넘치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고, 글과 머리로 만나는 건조함이 아니라 삶과 가슴으로 만나는 온전함이어야 한다.

어느 누구의 삶도 그가 놓인 구체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활동일 뿐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나 모델이 있을 수 없다. 패턴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면 역동적인 생생한 삶이 아니라 관념화되고 박제화된 죽은 삶이 되고 만다. 고따마 붓다의 삶을 생생하게 읽어내고, 그를 본받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삶인가를 모색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열 스님(강남포교원 원장, <고따마 붓다> 저자)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 혜인
■중앙율원장 : 성민
■부 종 정 : 혜일
■원 로 원 장 : 혜산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해남, 혜경, 월산
■종 회 의 장 : 백공정봉
■중앙선원장 : 도일

▣총무원
총무부장 :
재무부장 : 도불
교무부장 : 정덕
사회부장 : 자명
문화부장 : 지우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대도
교무국장 : 해인
사회국장 : 법천
문화국장 : 지운
문화재관리국장 : 운하
기획실장 : 정금옥
총무과장 : 조 일
서무대리 : 염정재

교육원장 : 일봉
교육부장 : 동산
교육국장 : 지원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보운
포교국장 : 서산
국제포교국장 : 원광
감찰원장 : 상산
감찰부장 : 지오
감찰국장 : 지호
감찰2국장 : 운산
규정부장 : 월성
규정국장 : 영산
호법부장 : 태산
호법국장 : 다정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교구종무원장 : 상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도불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 수원
인천교구종무원장 : 혜정
강원교구종무원장 : 광덕
충남교구종무원장 : 무광
충북교구종무원장 : 백공
대구교구종무원장 : 원명
경북교구종무원장 : 도오
경남교구종무원장 : 도홍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 정오
전북교구종무원장 : 정산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 지각
제주교구종무원장 : 덕산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주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염정재
운영이사 : 운하, 성산, 원명, 본각,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청산,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 화 유학생처장 : 손 영 진
학생주임 : 예 성 호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총 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법인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사단법인 본국검도협회
-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 의료법인 효성
-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 사회복지법인 정향

▣삼화불교신문사
발 행 인 : 손영모
논설위원 : 동산
편집국장 : 신석조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관불, 해인, 중비, 정금옥

▣총무원 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전국신도회
고 문 : 김윤주
대표회장 : 허정석
상임회장 : 인권식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박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고 문 : 안창열
회 장 : 현성환
홍보처장 : 유창렬
사무차장 : 허승국
기획실장 : 현성진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총무국(02)511-2026-7/전송(02)511-2028/총무원장실(02)511-1080
종단사업부 : (02)549-1918/조계종삼화불교신문(02)3445-7375-6

인터넷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삼화불교학림 : www.njtucm.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삼화불교신문 : www.jogaejong.or.kr E-mai 주소 : samhwade@naver.com

729-A06면 2009.4.27 11:5 AM 페이지 1(1,1)

행정·재정부원장 지홍·수열 스님

태고종 총무원 부장급도 인사

태고종 총무원 행정 · 재정부원장 및 부장 인사가 전격 발표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행정부원장에 지홍 스님, 재정부원장에 수열 스님을 선출하고 4월 21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총무 · 교무 · 재무 · 문화부장에 능해 · 법담 · 지상 · 상진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부원장 선출은 4월 8일 진행된 종무원장회의에서 두 스님이 추천된 후 이를 종회의원들이 서면 동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4월 17일까지 전체종회의원 53명 중 42명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 제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신임 행정부원장 지홍 스님은 제8 · 9 · 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부장, 기획실장, (사)한중일 교육문화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재정부원장에 선출된 수열 스님은 제8 · 9대 중앙종회의원, 제주교구 종무원장, 한라불교신문 발행인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재정부원장 수열 스님을 제외한 모든 스님이 보우승가회 회원으로 구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산 스님이 임시중앙종회와 종무원장회의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문제 등 대외적인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일을 새롭게 선출될 부원장 및 집행부에게 맡기겠다"고 언급한 때, 그동안 총무원장 운산 스님 비리의혹 등을 제기하고 이를 조사해 온 보우승가회 회원들이 종단 행정의 핵심자리에 인사 발령됐기 때문이다. 김진성 기자

'경허집' 월정사로 '귀환'

경허 선사 생애 한암 스님이 엮은 자료

경허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법제자 한암 스님(1876~1951)의 손으로 엮은 자료가 오대산 월정사로 돌아왔다. 또 자료의 영인본이 출간(민족사 刊)돼 경허 선사와 한암 스님에 대한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암 스님 나이 56세인 1931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만든 자료는, 서지가 김민영 선생이 고서점에서 구입해 소장하던 것으로 한암 스님 탄신 134주기를 맞아 월정사에 무상 기증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22일 한암 스님 탄신 134주기 탄신 다례재에 있을 기증식에 앞선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암선사 육필본 <경허집>'의 월정사 기증과 영인본 간행 등을 발표했다.

정념 스님은 "한암 스님은 경허 선사의 법어와 기문(記文), 서간(書簡), 행장(行狀), 영찬(影讚) 등을 각각 분류해 직접 세필(細筆)로 썼다"며 "특히 한암 스님이 쓴 경허선사의 행장은 한문본으로는 유일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해지는 <경허집>은 1943년 중앙선원(선학원)에서 활자본으로 만공 스님의 청으로 만해 스님이 편집했다.



한암 스님 육필로 쓰여진 <경허집>

민족사 윤창화 대표는 "한암 스님의 <경허집>은 선학원 판보다 12년 앞섰다. 선학원 판에 한암 스님 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경허 화상의 법화(法化)를 배움은 옳으나 (무애행으로 유명했던 경허) 화상의 행화(行化)를 배우면 안된다'는 문구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했다.

하지만 한암 스님은 "법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무애행)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적어 경허의 진면목을 바로 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한암 스님은 역사 서술은 가감첨삭 없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했다. 스님의 육필본에 담긴 '선사경허화상행장'은 귀중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종하 스님 원로의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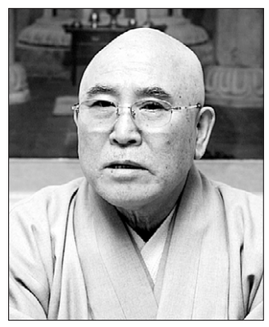
원로회의 '군승 독신 예외조항' 개정안 인준

조계종 새 원로의원에 종하 스님(서울 관음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3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종하 스님을 선출했다.

조계종 새 원로의원 종하 스님은 1938년 출생. 해인사에서 1958년 출가했다. 1959년과 1968년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7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하고 통도사 봉암사 범어사 선원 등에서 6안거를 성만했다. 조계종 제4~12대 중앙종회의원, 조계종 9 · 10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관음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지혜 · 밀운 스님 등 23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은 원로의원 선출건 외에도 종헌 개정안 인준건 등을 논의했다.


종하 스님.

스님들은 '군승의 독신 예외조항(종헌 제9조 2항) 삭제'에 대한 종헌 개정안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청취한 후 투표에 부쳐 찬성 19표(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종헌 개정안을 인준했다.

원로회의 사무처장 덕문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들의 조계종 정체성에 대한 의지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군승 수급문제 해결과 현역 기혼 군법사 예우와 관련해 종법으로 보완할 것을 전제로 인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군승에 관한 종헌 개정안이 인준됨에 따라 조계종은 '독신 비구승 종단'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됐다. 현재 현역 군승 137명 중 미혼자는 95명으로 이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경우 승려 자격을 잃게 됐다.

다만 현재 기혼 군법사들에 대한 예우 등은 종법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다. 또 현역 군인인 군종장교의 자격박탈은 조계종 규정이 아닌 국방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원로회의 의장 선출건은 現 의장 종산 스님의 임기가 2012년 12월 10일까지라는 법적 자문 결과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합법'

광주지검 순천지청 무혐의 처분

검찰이 관람객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리산 천은사 일대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합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월 20일 "'천은사 측이 사찰과 떨어진 861번 지방도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 등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돼 수사한 결과 사찰 측이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전남도가 2008년 12월 861번 지방도 좌우 측 1100만㎡를 문화재로 지정했다"며 "천은사 측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곳을 거치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천은사 측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은사 측은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를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에서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성인 1600원)를 징수해왔다.

국립공원시민연대는 "천은사를 관람하지 않는 통행객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200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천은사 측을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재차 삼차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08년 2월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이 2009년 1월 재수사를 명령한 것도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반발했던 국립공원시민연대 등이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들일지, 법원에 제정신청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원효 스님 1323주기

원효종 추모재 봉행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향운)은 4월 20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원효보살 성상 앞에서 '원효 보살 열반 1323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원효종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 향운 스님, 원로원장 대은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헌화 △봉행사 △발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번 법회에서 향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효종 종도로서 원효성상의 화쟁사상을 마음에 새겨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나가자"며 "이를 신도들에게 널리 알려 원효종풍을 선양하자"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식 개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4월 2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종훈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문화체육관광부 권경상 종무실장, 종로구청 김충용 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글= 이상언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윤원호 · 임충빈 · 김태균 불자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 5월 2일 시상




제6회 불자대상에 선정된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왼쪽), 임충빈 육군참모총장(가운데), 한화이글스 김태균 선수.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지관)는 '불기 2553년 불자대상'에 중앙신도회 윤원호 부회장,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야구선수 김태균(한화이글스) 불자를 선정했다고 4월 23일 발표했다

선정위원회는 "중앙신도회 부회장인 윤원호 불자는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10 · 27법난 명예회복 특별법 발의 및 제정 등 불교계 권익에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또 "임충빈 불자는 국군불교총신도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군불교 진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김태균 불자는 금번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세계만방에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등 불자선수로서 깊은 신행활동과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해왔다"고 선정취지를 밝혔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2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열린다. 조동섭 기자

"남북불자 한마음으로 통일 염원"

남북공동선언문 발표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4월 23일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했다.

남측과 북측은 공동발원문에서 "원력과 통일실천행의 부족으로 남북간 갈등과 긴장이 조성돼 있다"며 "'나라 일이 잘되려면 민족이 모여 앉아 의논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회를 열고 통일의 서원을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공동발원문은 2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회와 5월 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발표된다. 조동섭 기자

봉 法 대한불교 법성종 축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교육원장 설허 만원
포교원장 상허 재령

총무원부원장 도원
중앙종회부의장 설봉 성인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총무부장 백봉 성관

원로원장 춘광 법주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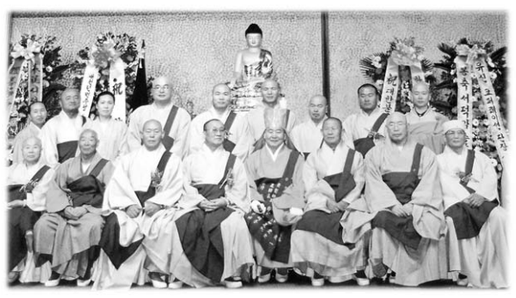
문화원장 락허 혜운
규정원장 조허 혜윤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교육부장 일초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낙산사에 "호국불교 교육관 지을 터"

10 · 27심의위, 자문위원 위촉식서 밝혀

"낙산사 1만평에 호국불교 교육관을 겸한 10 · 27사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원학 · 조계종 총무부장)는 4월 22일 자문위원 위촉식을 봉행했다.

이날 자문위원단은 2004년 불교문화사업단장을 맡아 템플스테이 정착화를 이끈 현고 스님을 비롯해,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주경 스님(조계종 환경위원장), 최병국, 강창일 국회의원, 허평환 前기무사령관, 안홍부 前공불련 사무총장, 이근우 前청담고교장,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회장, 안동일 조계종 자문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 다섯번째)과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왼쪽 세번째), 현고 스님(왼쪽 여섯번째)등 자문위원들.

심의위원장 원학 스님은 위촉식에서 "대부분의 피해 스님들이 개인적인 보상보다 종단 차원의 확실한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보상금 1500억 원을 지원받아 낙산사 인근에 사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료관 관리 부담과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관광사찰 및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을 중심으로 건립지를 물색했다. 낙산사가 1만평 부지 제공 의사를 밝혀 현재 가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관 스님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10 · 27법난 사료관으로는 교육 효과가 낮을 것"이라며 "법난 뿐만 아니라 신라 원광 법사와 임진왜란 당시 승병, 독립운동 등을 전개한 스님 등 호국불교를 알리는 자료를 전시한다면 최근 쇠퇴하는 애국정신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며,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활동도 당부했다.

한편, 심의위는 2010년 12월까지 활동기한인 현행 특별법을 개정해 2013년까지 명예회복과 사료관 건립 등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나 속의 나' 찾은 시간

공불련 충주 석종사서 성지순례 법회봉행

전국의 공무원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참선 정진을 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하복동 · 이하 공불련)는 4월 18~19일 충주 석종사에서 성지순례법회를 봉행했다.

18일 입재식에서는 하복동 공불련 회장(감사원 감사위원)의 인사말, 이중갑 충주 부시장의 환영사,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의 법문, 조계종 기획실장 장적 스님의 축원순으로 진행됐다.

하복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표적인 참선도량에서 그간 잊고 지냈던 내면의 참나를 다시 찾아가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혜국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말과 생각 이전의 마음부처를 깨닫기 위해 말 나오기 이전의 내면을 응시하며 '몸뚱이 굴리는 이 놈이 무엇인가'를 참구하라"고 당부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법회는 참선지도, 예불, 포행, 108참회, 참선실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간화선 수행에 대한 공무원 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18일 충주 석종사 대웅전에서 열린 공불련 성지순례법회 입재식에 참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가억스님, 석종사 선원장 혜국 스님, 하복동 공불련 회장(왼쪽부터).

김성우 기자

안동 봉정사 대웅전 국보 지정예고

봉정사 벽화 ·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상 보물 지정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이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4월 24일 안동 봉정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봉정사 대웅전은 2000년 해체조사 시 발견된 묵서명에서 '1435년(조선 세종17년)에 이르러 법당을 중창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연혁이 밝혀졌다. 가구형식(架構形式)과 세부기법이 단조로우면서 견실한 공법(工法)으로 제작됐으며, 전형적인 초기 다포양식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단청은 고려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창건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해 중요한 회화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22일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보물 제1614호)와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15호)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

김진성 기자

군종특별교구, 레바논 동명부대 봉축법회

18일 호국동명사 기념비 제막식도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과 송경호 동명부대장이 연등을 달며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를 맞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한 국방부 군종과장(대령 김상래), 1군사 군종법사(중령 손병철) 등 위문단은 4월 18~20일 레바논 동명부대(부대장 송경호)를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위문단은 동명부대장으로부터 평화정착 활동을 보고받고, 작전팀과 태권도 및 한글 교육 등 민사작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호국 동명사 기념비 제막식과 등달기 행사 실시 후 10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축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일면 스님은 기원법회에서 "레바논의 평화 유지를 위한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세계 평화와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자부심과 사명감, 신앙심을 바탕으로 무사귀환하는 그날까지 임무완수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월운 스님, 명예박사 학위

동방대학원대학서 수여전례

동방대학원대학(총장 정상옥)은 4월 18일 대강당에서 '월운 큰스님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전례'를 봉행했다.

학위 수여 후 월운 스님은 "사회의 언어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 불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세상에 나선 것 뿐"이라며 "읽기 쉽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장경을 버리기 위해 역경을 했다. 이것이 나의 역경철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상옥 총장은 인사말에서 "월운 스님은 중국의 구라마집이나 현장과 견줄 역경보살"이라며 "학교 건학이념인 동방문화 창달과 스님의 업적이 부합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부모님 · 선생님과 창작등 경연

동대부중, 초파일 맞아 '등공양' 의미 나눠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일상, 이하 동대부중)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23일 강당에서 '학생 · 학부모 · 선생님과 함께하는 창작등 제작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전학년 27개 반 학생 · 학부모 · 선생님 350여 명이 참가해 창작연등을 만들며 연등 공양의 의미를 되새겼다.

창작등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90분. 제한된 시간 내에 종교성 · 창작성 · 예술성 · 협동성을 겸비한 다양한 창작등을 만들기 위해 참가자들은 비지땀을 흘리면서도 담소를 나누며 신나는 축하 한마당을 연출했다. 김화실 교감은 "매년 진행되는 창작등 경연대회가 지난해에 비해 1학년 학부모의 참가율이 높고 더욱 활성화 돼 기쁘다"며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 계승과 창의력 신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주희 법사는 "제작된 연등은 1년간 법당에 전시될 것"이라며 "1개의 연등을 만들기 위해 12명이 합심해 만드는 과정이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연대회에 3년째 참가한 이재승(3학년)학생은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할 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연등을 만들면서 서로의 개성과 성격 · 취향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반 아이들과 협력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만들어진 창작등은 5월 1일 봉축법요식에서 수상결과를 발표 · 시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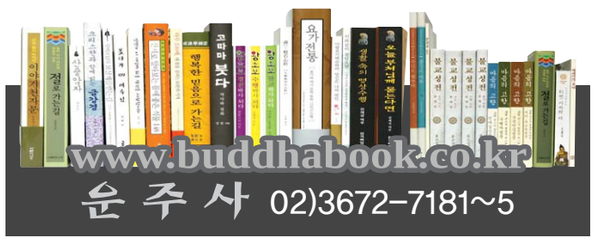
이상언 기자

108산사순례회,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 전달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도선사와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지난 4월 9일 청계천 등(燈)달기 및 자비나눔 행사, 용주사 108산사순례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다. 지관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자비 나눔에 동참해 줘 고맙다"며 108산사순례기도회의 활동을 치하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봉축행사 지원

조계종에 5000만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4월 2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봉축위원장)을 예방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민병천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국민들에게 올해 봉축 행사가 부처님 가르침처럼 모두가 어울리는 나눔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임 원 공 고

종 정 석정관
승정원장 벽 봉 원로원장 도 원
원 로 법 령. 지 관. 월 타. 일 장. 무 송. 혜 암. 원 해. 일 우

호법원장 대 원 의전원장 원 담 교유원장 남 산 포교원장 보 광 연수원장 도 명 총무원장 도 선
비구니회장 혜 담

경북서부종무원장 석 문 경북중앙종무원장 태 룡 경북예천종무원장 명 허
경남중앙종무원장 청 강 경북성주종무원장 홍 재 제주중앙종무원장 의 공
전남중앙종무원장 원 행 충북중앙종무원장 선 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체 법
광주중앙종무원장 아 도 강원강릉종무원장 원 응 경기서부종무원장 법 경 기획원부원장 일 두

총무부장 도 흥 교육부장 정 봉 사회부장 청 암 포교부장 지 공
문화국장 보 성 포교국장 도 명 수행국장 보 각 사서국장 성 덕 포교국장 원 각

종립 미래로봉사단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대도심(어월순)
총 무 무생심(예옥자) 감 사 진불심(이순임). 법화심(김막두)

경남포교국장 충 효 인천포교국장 지 현 서울포교국장 보 현 경기포교국장 효 성 전통예술국장 승 원

법사승단 종무원

경남법사승 종무원장 도혜 대법사 울산법사승 종무원장 법광 대법사
충남법사승 종무원장 명보 대법사 포항법사승 종무원장 명성 대법사
대전법사승 종무원장 정대 대법사

중앙재무부장 자 운
대구포교국장 금 강 중앙종무국장 원 명
경산포교국장 송 정 국제포교국장 지 원

경남종무원 국장 혜 명
1. 부산지부종무소 지국장 혜 성 부산지부 051)865-7975
2. 경기지부종무소 지국장 덕 산 경기지부 031)483-4995

· 마산사무실 : 경남 마산시 오동동 55-36(2층) / 전화 055)224-1769
· 울산사무실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457-1 / 전화 052)251-7748
· 충남사무실 : 충남 서산시 팔봉면 금학2리 1061 / 전화 031)244-3054
· 포항사무실 :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328 용성덩 동201호
전화 054)246-4452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532-4 / 전화 042)273-5137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 대표전화 054)682-5808 팩스 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26 2층 / 대표전화 02)3217-4611 팩스 391-8583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순수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하면 기쁨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
- 법구경

韓國佛教 太古宗

宗 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趙常虛

僧正院院長 柳南坡
副 院 長 李寶峰
副 院 長 金法藏

元老會議議長 金一宇
副 議 長 姜慧宗
副 議 長 權德化

總務院長 李雲山
副 院 長 劉智弘
副 院 長 文普經
副 院 長 玄守悅

■ 總務部長 金能解
■ 教務部長 金法潭
■ 財務部長 鄭智常
■ 文化部長 崔常眞

中央宗會議長 朴印空
副 議 長 鄭大隱
副 議 長 成圓峰

中央司正院長 金月雲
副 院 長 柳雲潭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佛之知見 示悟衆生

종정 김도용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학교법인 금강학원 부이사장 전운덕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최인규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참의원
참의원장 권무원 금강대학교 총장 성낙승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 043)423-7100 / FAX 043)420-7399 www.chentae.org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부 종 정 유념 법신. 천호 천호

원 로 원 선명 신수 평신 성인 정각

승정원원장 체운

중앙종의회
종의회 의장 체의
종의회 의원 송운 체각 보각 보운 체선 체명 해명 태상 혜철

규정원장 해주 교육원장 해안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인관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총무부장 진호 포교부장 보정

종무원장 혜민 각우 보정 혜명 도경 정안

■ 총무원 152-052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대한불교 무량종

원로원 지은 정해 혜운 법해 지산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기획실장 종성

총무원장 보경 감찰원장 오현 교육원장 보산 포교원장 다정

총무부장 보아 재무부장 보광 교무부장 무공 사회부장 원정
포교부장 명운

총무국장 정향 재무국장 보혜 포교국장 정운 교화국장 보정
조직국장 명진 교무국장 정심

중앙종회의장 보인 부 의 장 보광. 보월
고시위원장 현장 상벌위원장 보각 사 무 총 장 보성

■ 총본산 : 지리산 칠보정사 055)883-7771.7790 ■ 총무원 : 보경사 055)882-1599 / 팩스 883-7796

729-A9면 2009.4.27 11:4 AM 페이지 1 (1,1)

부산종교인평화포럼 공식 출범

상임회장 정여 스님 "'우리는 하나' 대승적 실천 지킬 것"

부산 7대 종교 지도자가 종교 간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부산종교인평화포럼(상임회장 정여, 이하 포럼)은 4월 16일 오후 6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여 스님을 상임회장으로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정여 스님 외 임원진 40명, 이사진 37명, 지도고문 25명, 자문위원 15명 등 80명의 종교지도자로 구성됐다.

부산지역 범종교인 교류모임으로 종교간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정신문화를 선도, 지역과 국가의 발전, 평화통일과 인류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립됐다.

창립대회는 안인석 교무(원불교, 동래교당 교무)의 경과보고, 박철 목사(좋은나무교회 목사)와 김춘성 교수(천도교, 부산예술대)의 창립선언문 낭독 및 채택, 정관 채택 및 임원진 인준, 임원진 소개, 상임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종교인평화포럼에서 80여 종교지도자들이 종교평화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초대 상임회장으로 취임한 정여 스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도처에는 아직도 종교 간 갈등과 충돌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며 "여러분이 추대해준 공덕으로 종교간 화합과 이웃종교를 배려하는 유기적 교류로 우리는 하나라는 대승적 실천을 지키자"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만한 평화로운 부산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종교인평화포럼의 창립을 계기로 종교 간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지고 사랑과 평화, 상생과 화합의 기운이 충만한 부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축하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정여 상임회장(범어사 주지,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영문(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윤종모 주교(성공회 관구장), 이영묵(천구교 총대리신부), 김일상(원불교 부산교구장), 박호권(천도교 부산교구장), 송윤복(유교 부산회장) 등 부산지역 7대 종교인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향후 종교간 이해와 협력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종교강좌 및 종교 교양지 발행, 종교별 성지순례와 시민을 위한 종교문화센터 운영, 범종교인 평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차례로 실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보살행 실천하는 경찰 되자"

부산 · 전북경찰불자 봉축법회 봉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경찰불자를 위한 봉축법회가 잇따라 열렸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중확)은 4월 21일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4월 21일 거행된 부산지방경찰청 봉축법회(왼쪽)와 19일 봉행된 전북경찰청 무진법회.

행사는 경승총무 성각 스님(원각선원 선원장) 집전으로 경승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의 발원문, 부산지방경찰청 김중확 청장의 축하인사, 경승실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의 법문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김중확 경찰청장은 "2553년 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타인에 보살행을 베풂이 진리의 길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듯,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경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승실장 정여 스님은 축하법문을 통해 "범죄로부터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산 시민의 불침번이 되고 민중의 지팡이가 돼 이끌어주는 경찰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길 기원 한다"며 부처님 오심의 의미에 관한 법문을 펼쳤다.

이날 법회에는 경승실장 정여 스님, 경승총무 성각 스님, 경승 화산 스님(삼광사 주지), 금종 스님(해광사 주지), 원범 스님(선암사 주지),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 및 김중확 경찰청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19일, 전북지방 경찰불자들은 전주시내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3회 전북지방경찰과 경찰가족을 위한 무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경승단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전북지방경찰청 경승실장 원혜 스님, 완산경찰서 경승실장 덕산 스님, 군산 송월 스님. 순창 장덕사 청암 스님 등 30여 경승단 스님과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나유인 전북지방경찰불자회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경찰이라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직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임무에 충실한 불자가족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원혜 스님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에 항상 봉사하는 경찰불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장애인 놀이한마당 '다채'

송광 정심원서

송광 정심원(이사장 도영, 완주 송광사주지)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신나고! 즐거운! 놀이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우용호 정심원장, 정병호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풍물패(단장 양풍)가 신명나는 우리가락을 선보였고, 짱희망예술단(단장 김상휘)이 축하공연 등을 펼쳤다. 특히 정심원 가족 노래자랑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도영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물이며, 서로 연결되고 의존된 것을 알면서 어떤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된 참된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며, "정신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송광 정심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광주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4월 17일 행정안전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유창종)에서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명Dream 헌혈 · 장기기증 행사'를 개최하고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16명의 장기기증 서약서가 광주생명나눔실천에 전달됐고, 72명이 헌혈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자비행이 펼쳐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화시장 불자회 창립

"상인들 마음의 의지처 되길…"

부산을 대표하는 평화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불자회가 결성됐다.



4월 18일 부산 평화시장불자회 창립법회에서 상인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평화시장은 4월 18일 오후 6시 3층 번영회 사무실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회원 모집에 들어갔다. 부산 3대 도매시장인 진시장과 자유시장, 그리고 평화시장 중 유일하게 불자회가 없었다. 이에 평화시장 번영회는 사무실 내에 불단을 조성하고, 시장 일대에 연등을 달아 거리를 환히 밝혔다.

시장 상인이자 포교사 출신인 양준동 거사는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오면서 불자회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번에 여러분과 뜻을 모아 불자회를 창립하게 됐다"며 "이미 진시장 불자회는 오랜 역사만큼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만큼, 우리 평화시장 불자회도 상인들의 마음 의지처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평화시장에는 950여 개 점포에서 총 520여 명의 상인이 일하고 있어, 앞으로 불자회 참여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향후 불자상인으로서 가져야할 서비스 소양교육과 수행, 복지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특전사 수계법회 호국정각사서

나라를 지키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을 위한 수계법회가 진행돼 화제다.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는 4월 19일 호국정각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제11공수특전단 황금박쥐부대원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백양사 주지 시몽스님을 계사로, 정광 정혜원 주지 혜종스님을 비롯해 부연대장 박환수 대령, 신도회장 이강석 중령 등 200여 군부대 장병들이 참석했다.

시몽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의 실상을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황금박쥐부대원은 국가를 지키는 가장 뛰어난 병사들로 가족은 물론 국가를 위해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법홍포 위해 노력하자"

동래구불교련 15대 회장 자관 스님 취임



지역 포교와 부산불교중흥의 일익을 담당해 온 동래구불교연합회의 15대 회장으로 자관 스님(대한불교 자비암 주지 · 사진)이 취임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는 4월 19일 오후 3시 30분 대한불교 자비암(주지 자관)에서 제15대 회장단 이 · 취임 기념법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위촉했다.

취임법회는 발원문, 경과보고, 이임회장 공로패전달 및 이임사, 신임회장 임명장 수여 및 취임사, 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석봉 스님은 이임사에서 "전 회원 스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한다면 우리 동래구불교연합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자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불법을 홍포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희망찬 동래구불교연합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일은 회장 한 사람의 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난 기간 우리를 지도해준 선지식과 사부대중의 공덕을 이어 열심히 정진해 동래구불교연합회가 불법홍포와 부산불교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이진복 한나라당 최찬기 동래구 국회의원, 동래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불기2553년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덕범

승정원장	청호만오		
종회의장	청호만오		
총무원장	화륜송봉	직할교구종무원장	대력
사무총장	남송	서울교구종무원장	홍각
선원장	법천청강	경기교구종무원장	일광
호법원장	도행	대전교구종무원장	보성
교육원장	지언	충북교구종무원장	법장
포교원장	대력	충남교구종무원장	일타
문화원장	법륜	부산남부교구종무원장	상천
국제문화원장	만공	부산남부교구종무원장	청련
감사원장	상천	구미교구종무원장	규봉
전국포교사회장	보하	대구교구종무원장	금강
전국포교사부회장	청정	창원교구종무원장	대비
전국신도회장	승만석	마산교구종무원장	대봉
전국신도부회장	권탁위	동마산교구종무원장	대행
전국신도회부장	김영규	거제교구종무원장	금봉

총본산 대무량사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번지 전화 055)672-4394, 4591, 4592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종단 등록자중 제2차 제적자 공고

* 아래 사찰 및 승니 / 포교사는 정관 제 6조 및 8조 종헌 제18조에 의거 총히에서 제적결의
* 제적일자 : 2009년 3월 1일부. 제적자는 본 종단명의로업무 일체금지, 사찰등록증, 승려 / 포교사 증 효력상실
* 본 종단 소속으로 각 세무서 등록 즉각 취소요망, 년말전산 영수증 발급금지요망

제2차 제적자 명단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사찰명	지역	성명	불명
동천사	대구동구	최덕모	혜암	백마암	부산주례	김옥자	수정	선왕정사	김해	이동식	무등	홍련사	울산화정동	홍화자	법화
홍련암	대구남구	이경자	묘행	대원사	부산대저	장점자	덕련	구룡정사	김해	류하곤	해봉	영축암	울주	김수남	대련
학장포교원	부산해운대	김난희	홍련	해선암	부산엄궁	정점덕	련수		김해	한오석	춘산	천룡사	울산	유무호	법성
대곡사	부산구포	김청길	영봉		부산남구	김영옥	반야	광명포교원	김해	정광열	명봉	영수사	울산남구	박인성	수인
	부산사상	한우조	춘봉	성불사	부산강서	유영순	해련	약수암	김해	김맹엽	고경	우리절 관음선원	거제연초	박성훈	일봉
	부산연재	허영호	벽봉	내원암	부산동래	박일숙	정혜	백련사	전남나주	이덕자	원명				
구포포교당	부산구포	정경옥	백련	자비정사	마산	신종수	연봉	대성사	진주나동	황정길	법정				
오봉정사	부산대저	이외득	호련		마산	변재	수봉	보석사	창원	김석복	신수	2次제적 37名 以上			
월정암	부산괴정	이영숙	정심	구원사	김해	김양웅	도성	천봉선원	산청생비량	최영수	천봉				

불기2553년 4월 8일

사단법인 한국미륵불교 이사장 신 용태 법련 · 총무원장 강 경우 송봉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미움은 오직 사랑으로써만 정복되나니
영원한 진리이다.
- 법구경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불입종

종 정 면철

원로원장 정 관
총무원장 경 암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271-3번지 송화사 전화 043)653-4800. 4848 / 팩스 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번지 전화 043)653-4848. 0999 / 팩스 642-666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운
이사 도기
이사 화엄
이사 일명
이사 경담
이사 담화
감사 혜천
감사 혜원

원로의장 금봉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위원 무찰
수암
청송
송은
원각
혜운
원경

종회의장 경원
사무처장 삼주
종회의원 덕봉
재성 정일
자명 무상
도정 만성
선행 자견
지연 지허
도허 조경담
승원 법안
법경 일운
진허 혜원
해월 지공
이경담

호계원장 용암
포교원장 도안
감사원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고시위원장 염원각

총무원부원장 법성
총무부장 용운
교무부장 지언
재무부장 석담
사회부장 혜성
규정부장 진송
홍보부장 고봉
교육부장 법해
교육국장 진율
홍보국장 자혜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용주
대구교구 진경
울산교구 지운
인천교구 용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광은
경기북부 도혜
경남교구 보광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제주교구 경운
충남교구 김원각

www.llbung.org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4층 TEL 02)998-8161,2 FAX 02)998-8384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공

사서실장 지 영

부종정 혜 승

승 정 향운. 은곡. 인봉

총무원장 진봉 부원장 지민

총무부장 보명 국 장 자원
교무부장 혜송 국 장 혜암
사회부장 지허 국 장 도일

재무부장 일선 국 장 성우
규정부장 혜산 국 장 혜관

종회의장 지경 부의장 지민
포교원장 명재 부원장 지화
수선원장 지심 부원장 성희

사정원장 지운 부원장 지법
교육원장 명산
문화원장 지향 부원장 도희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전화 0502)321-3333 / 팩스 02)937-0344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원장 **석봉 대종사**(청용사) 부 원 장 **백담 대종사**(백용사)
위 원 **법준**(월성사) **정화**(용광사) **법성**(화엄사) **승전**(상원사) **원심**(통일사)
종 정 **혜봉 대종사**(용정사)

총무원장 **송산**(대원사) 총무부장 **덕광**(봉덕사) 교무부장 **무연**(법령사)
부 원 장 **도현**(관음사) 재무부장 **도은**(연령사) 사회부장 **혜산**(성불사)

중앙종회의장 **보장**(장안사) 부 의 장 **수 운**(소원사)
중앙종회의원 **청 산**(청산선원) **지 선**(천수정사) **연 각**(수도암) **백 파**(동서양사)
혜 정(광음사) **이 타**(학산사) **수 진**(지장암) **송 연**(보원사)

중앙사정원원장 **대원**(극락사)
부 원 장 **옥용**(벽송사)

중앙포교원원장 **정화**(용광사)
부 원 장 **보담**(상주사)
교 포 부 장 **진아**(광명사)

중앙교육원원장 **공덕**(국제교화원)
부 원 장 **현법**(청학사)
부 장 **성암**(무우정사)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각원사)
부 원 장 **무봉**(무법정사)
부 장 **지연**(법화사)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삼자선원)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화엄정사)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혜봉**(지장선원)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약왕사)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승원사)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청림**(삼각사)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무기**(봉선사)

사단법인해동자비원 원장 **덕광**(봉덕사)
국제교화원 원장 **공덕**(국제교화원)
용인소년의집 원장 **무봉**(무법정사)

종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 031)262-1577 FAX 031)263-1353

사단법인 한국불교 정 토 종

이사장 **지산 (덕흥사)**
종 정 **월호 (팔봉사)**
부종정 **해심 (호국선원). 각호 (대천사)**

원로의장 **법보 (지암사)** 원로의원 **보덕 (광덕사). 만공 (용봉사)**

총무원장 **무각(무량정사)** 종회의장 **혜정(성원사)** 수석이사 **설정(덕수사)**
사서실장 **세목(자비원)** 교육원장 **초암(반야정사)** 포교원장 **봉운(용운사)**

경남교구원장 **설봉(청덕사)** 전남교구원장 **정조(용화사)**
감찰부장 **학조(원광사)** 재무부장 **법성(천영사)** 포교부장 **해조(덕성사)**
법사단장 **대원(대원사)** 법사부단장 **대암(세광암). 도암(신도암). 법해(지장정사)**
법사단포교부장 **혜월(수경암)** 법사단총무 **원영(천도암)**

■ 총무원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25-12 석목법조빌딩 701호 / 전화 032)543-2693 팩스 032)868-2694

대한불교 총 화 종

종 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백만우 **선 원 장 황혜광** **상벌위원장 이만오** **선거관리위원장 조고담**

총무부장 **김지산**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법부장 **박정덕**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이해오** 감찰부장 **김일봉** 조사부장 **이원일**
교육부장 **최일광**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문화관리부장 **문보현**
문화부장 **박보광** 호계부장 **박지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경기(성남)종무원장 정법연
충청종무원장 김법현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전북종무원장 이기종

서울(남)제3교구종무원장 김범능
대전종무원장 윤법전
울산교구종무원장 백만우
부산종무원장 최만재
광주, 전남종무원장 김현산

■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수진사 전화 031)592-8891 / 팩스 031)592-8892

임 지 호 (자연요리연구가)





자연의 모든것이 요리 재료

음식은 '도와예'가 어우러진 것

'나는 오늘 천수천안의 관세음보살님처럼
천개의 눈을 바쳐 재료를 모으고 천개의 손을 바쳐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당신을 위한 밥상을 차리려 합니다.'

산당 임지호씨의 가슴에 새겨진 글이다. 자연의 모든 것이 요리 재료가 되기에 임지호씨의 눈길이 머무는 것은 먹거리로 변해버리니 그는 천개의 눈을 가진 것과 다름없다. 또 장터에서 혹은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여 생명에너지를 주고 있으니 천개의 손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양평 산자락에 위치한 밥집 산당(山堂)을 찾았다. 산당 주인인 임지호씨는 자연 속에서 식재료를 구하여 요리하는 자연요리연구가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도 그의 명성은 높아 UN한국음식축제, 캘리포니아 사찰음식퍼포먼스, 독일 슈투트가르트 음식시연회, 아르헨티나 수교 40주년 기념한국 음식전, 베네수엘라 수교 40주년 한국 음식전 등에 참가하여 한국 전통음식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식재료가 생산자의 손을 떠나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거리를 푸드마일(Food Miles)이라 하는데, 식재료의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식재료의 이동거리를 줄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우리 땅에서 채취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라 한다.

황새냉이, 쑥, 석창포, 들국화, 산머루, 산다래, 측백나무, 망초, 지칭개, 나락나물, 코딱지풀, 쑥부쟁이, 엄나무, 냉이꽃, 달래꽃, 민들레, 제비꽃 등등 땅에 낮게 엎드린 들풀부터 해서 계절에 따라 피고지는 꽃까지 모든 것이 그의 요리재료가 된다. 우선 그의 요리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재료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무너뜨려야 한다.

한의사였던 아버지는 매우 엄했다. 아버지는 천자문을 외우지 못하거나 누나들과 다투기라도 한 날에는 산으로 올려보냈다. 아버지는 벌로서 내린 것인데 나무를 하고 약초 캐는 그 시간은 너무나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그때 자연과 교감을 나눈 것이 평생의 스승이 되어주었으며, 음식의 색감과 모양새 등 그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 한다.

그는 열두 살에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면서 음식을 배웠는데, 그때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의 스승이라 하니 임지호씨는 세상 모든 사람이 스승이요 세상만물이 스승인 것이다.

"음식을 만드는 일은 곧 수행이며, 음식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수행자와 같습니다. 풀 한포기, 작은 나무열매 등 모두 자연에서 뭘 얻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요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임지호씨의 감사 요리법'이다. 그의 요리는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음식을 할 때 전혀 맛을 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맛을 보지 않아도 음식의 맛이 일정한 것은 요리를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다.

> "조미료 안쓰고 만들때 맛 안보는게 '원칙'
> 선방스님·장터 노인 등 찾아다니며 음식공양"

임지호씨는 들판에 지천으로 나있는 풀들을 알고 싶어 온 몸으로 테스트 해보았고, 독초를 먹고 쓰러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풀마다 약간의 독소는 있지만 요리를 통해서 중화되는 것이며, 매실청 · 조선간장 · 들기름 · 참기름 등은 해독작용을 한단다.

임지호씨는 '나물예찬론자'다. 채소 하나하나에도 각각의 특징과 효험이 있지만 거기에 갖은 양념을 보태면 또 다른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나물이란다.

"샐러드하면 서양요리만 생각하지만, 우리도 옛날에 반찬이 없으면 밭에 나가 풀 뜯어다가 겉절이 해서 먹었는데, 그게 바로 샐러드이지. 자연과 가까우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져요. 현대인들은 자연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 잃는 게 많아요."

한국 음식의 특징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음식에 정신세계를 투영시키는 것이라 한다.

"우리 음식에는 정성과 손끝 에너지가 담겨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례(祭禮)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에게 올리는 음식은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제례문화와 음식은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제례 음식에는 음양오행이 있고, 사람이 사는 질서가 있고, 위아래 질서와 법도가 있어요."

그는 '도(道)와 예(禮)가 어우러진 것'이 음식이라 생각하기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도(道)로서 펼치고, 먹는 사람은 예(禮)로서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 한다.

"자기수행으로 삼아서 저의 음식 패턴을 지켜왔어요. 음식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요리사의 노동의 가치는 먹는 사람에게 생명에너지를 주고 또 그만큼의 기쁨이 돌아오는데, 몸을 아껴서는 안 되지요. 밥상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과 미래가 담겨있어요."

임지호씨는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면 여러 사찰을 돌면서 대중공양을 올렸다. 스님들이 좋아하는 짜장면 공양을 비롯하여 노인요양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공양, 양평 5일장에 갔다가 추위에 떨고 있는 장터 할머니들을 위한 묵밥 공양 등 그는 많은 밥 보시를 행하였다. 자신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 거두어두고 먹여 준 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갚는 그만의 회향법이다.

"맛이란 예리한 칼날 같아서 청정한 마음으로 다루지 않으면 몸을 다치게 해요. 단맛은 공격적이지만 쓰면서 단 맛은 몸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 제대로 모이기만 하면 밥상은 그대로 약상이 됩니다. 약선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떠돌면서 만난 사람들 때문이지요. 병을 이긴다는 것은 자연 본연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가 요리사의 기본 소양으로 꼽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의 능력을 운명으로 알아 즐거움을 잃지 않고 일하라. 그리고 사물을 볼 때 경박한 눈이 아니라 심미적 일체로 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가 만드는 요리에는 정해진 틀이 없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요리가 된다. '몽땅연필' '어머니의 고랑' '세상을 바라보는 동굴 속의 눈' '섬' '풀로 만든 해우소' '다음 날' '공(空)' '빨간 머리 앤' 등 얼핏 들으면 시(詩) 제목 같은데, 그가 만든 음식에 붙인 이름이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요리에 걸맞는 이름들이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요리를 즉석에서 만들어 주었다. 밀가루에 콩가루와 느릅나무껍질을 넣고 반죽하여 기름에 튀겨내었다. 활짝 핀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위에 흰색 제비꽃과 분홍 벚꽃과 초록 느릅나뭇잎을 올려 화엄세계를 만들었다. 그 요리에 붙여진 이름은 <우주, 자아 속의 부처>이다.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모양이 흐트러질까 아까워서 먹을 수 없다고 했더니 "이것도 다 허상이에요. 허상인데 아까울 것이 뭐 있느냐" 고 한다.

'자연을 깊이 관조하다보면 자연이 절로 스승이 되어준다'는 그의 말을 언제쯤 이해하게 될까?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봉 축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금강선원
산상차
야생수제 구증구포 뽕잎차

"첫서리 맞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당뇨 · 고혈압 · 혈액순환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 브랜드 수상

첫서리 맞은 뽕잎차는 합천댐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잠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맞은 뽕잎을 체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증구포의 전통제다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제로 쓰이는 실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맞은 뽕잎은 신선엽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맞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땅속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뽕잎차 만드는 과정



금강선원 뽕잎 / 뽕잎 채취 /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고혈압에 도움 2.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가 최고! – 부산 중구 안미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대구 북구 석현도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시게 할 정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경북 안동 김정일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맞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경기도 용인박영철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맞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 더데일리 뉴스 소개 /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초우스님의 뽕잎차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분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
초심(구증구포뽕잎차) ~~50,000원~~ → 35,000원
발심(첫서리맞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2통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5)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검색 을 검색하세요.

"업장 벗고 부처로 태어나는 날"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은 뭇 생명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혹도 깨달음도 다 버리고 부처와 범부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분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법신(法身)은 우주 속에 변재(偏在)하여 고금이 없고 생멸에 걸림이 없어 오고가는 자취가 없습니다.

비록 그 모습은 텅비고 고요하여 볼 수가 없지만 찾고 부르는 곳에 현응(玄應)함이 일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만물 속에 인연 따라 그 모습을 나투어 빛과 소리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버리고 비우면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탐하고 얽매이면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눈 앞에 여래의 묘용(妙用)이 나타나고 있으니 보고 듣는 빛과 소리가 부처님의 지혜광명이며,

지나가는 바람이 본지풍광(本地風光)을 밝히고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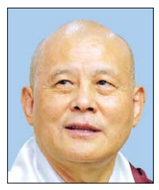
삼라만상과 일초일목이 여러분의 본래면목입니다.

무명 속에서 걸림 없는 지혜를 얻은 이는 곳곳에서 살아있는 부처를 만날 것이요,

타 오르는 분노 속에서 대비심을 잃은 이는 이르는 곳마다 삼악도(三惡道)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은 업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뭇 생명이 부처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이가 미래의 부처님"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축사

존경하는 2000만 불자 여러분!

세존의 탄신은 사월의 팔일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모든 시간이 봉축의 초파일입니다. 탐욕의 불꽃이 보시의 강물로 흐르는 어느 날, 분노의 불길이 자애의 구름으로 변화하는 그 순간, 사견의 칼날이 지혜의 꽃잎으로 변하여 허공을 채우는 그 모든 계절에 부처님들은 출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천만 불자 그리고 승가대중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연대의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천칠백 년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번뇌의 중생계가 다하는 날은 기약할 수 없으며, 고통의 바다 아닌 곳 또한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미래의 부처님이십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 켜서 세상 밝게 만들자"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봉축사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이 위대한 선언은 부처님께서 구세대비의 원력으로 일체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살필수록 부처님의 모습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여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중생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켜서 어두움을 깨치고 세상을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밝혀지는 연등 하나 하나가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돼 이 시대의 어려운 경제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이 행복해지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 실천하자"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참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만 중생의 미혹과 무명을 걷어내고 본래성품을 일깨워주시고자 법계의 진리에서 화신으로 이 땅에 몸을 나투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의 무명업장(無明業障)의 무진고뇌(無盡苦惱)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체대비의 크나 큰 자비심으로 사바세계와 일대사 인연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한 숙숙세(宿宿世)의 미혹 속에서 자신의 본래면목을 잃어버린 중생들이 본래 자리를 못보고 밖으로만 마음자리를 찾는 어리석음을 일깨워 일체중생이 다 본래 부처인 것을 알리기 위해 오셨고, 천칠백 조사(祖師)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본래성품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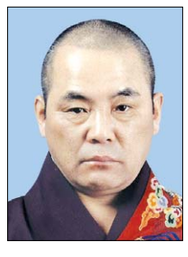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자리, 우리 곁에 있는 내 이웃과 가족, 사랑하는 이와 미워하는 이,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살아있는 부처님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자비의 대광명이 충만한 오늘,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나눔과 자비의 이타행을 실천하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이 귀한 날 지혜광명의 마음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모두가 부처님 되시는 희유한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三角山麓 萬古屛(삼각산록 만고병)/ 漢江流水 長廣舌(한강유수 장광설)
萬人雲集 野壇席(만인운집 야단석)/ 佛光普照 四部衆(불광보조 사부중)
以此功德 滅千災(이차공덕 멸천재)/ 一切靈魂 生極樂(일체영혼 생극락)
삼각산 푸른 나무 만년의 병풍이요/ 한강수 푸른 물은 말없는 법문이라
일체대중 모인 크고 넓은 이 법석에/ 부처님 자비광명 사부대중 비추이네
이 공덕으로 모든 재앙 사라지고/ 일체 영혼 극락세계에 나는 도다.

"자비심으로 베풀어 공덕의 숲 가꿔야"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 거룩한 부처님 오심을 큰 기쁨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가장 존엄한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씀을 자각하고 본래 빛나는 무량광 무량수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합니다.

밝은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며, 자비의 덕을 펼쳐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중생공양(衆生供養)이 제불공양(諸佛供養)'이라 했듯이, 어려울수록 더 큰 자비심으로 베풀고 공양하여 공덕의 숲을 가꿔야 합니다.

용기 있게 선택한 깨끗한 가난은 무엇보다 값지고 고귀한 것이며, 버리고 비우는 일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이는 진정 자신을 성장시켜 더욱 새롭고 훌륭한 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함과 간소함, 그 생활의 여백에 불심은 찾아듭니다.

마음자리 몰록 깨쳐 보배창고 열고 보니
숨어있던 모든 진리 낱낱이 드러나네.
언제나 우뚝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백억화신 그 얼만가 헤일 수가 없구나.
頓悟心源開寶藏(돈오심원개보장)/ 隱顯靈通現眞相 (은현영통현진상)
獨行獨坐常巍巍 (독생독좌상외외)/ 百億化身無數量 (백억화신무수량)

"일체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보는 것이 지견"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봉축사

아기 부처님께서 오시어 외치신 사자후, 그 한 말씀은 다름 아닌 중생을 위해 지견(知見)을 여시고, 중생을 위해 지견을 보이셨으며, 중생을 위해 지견을 깨닫게 하시고, 중생을 위해 지견에 들게 하신 일불승의 일대사인연이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지견이라 함은 너와 내가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체가 부처임을 알고 부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부처는 그대로의 모습인 제법실상(諸法實相)을 말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떤 분별도 없이 있는 그대로 살펴볼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남 또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곧 중생이요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곧 부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우리 모두 존귀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가 마땅히 평안케 합시다.

"계행과 정진으로 인류 어려움 극복할 것"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봉축사

석가모니부처님은 삼라만상이 모두 진리요, 자비이며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자 희망임을 깨침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검소함을 사귀어 인욕의 지혜를 키우고, 나눔을 사귀어 보시, 희사(喜捨)의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이타행의 주인이며, 웃음으로 자비로운 공동체 정신을 전하는 희망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검소함으로 세상과 함께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계행(戒行)과 정진으로 인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기의 참된 가르침을 분단의 현실 속에서 구현해 민족상생의 지혜로 다시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자비희사 초발심 내서 서원"



■ 도흔 정사

진각종 총인

우리 모든 불자와 유정(有情)들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큰 은혜와 광명을 받아 반야지혜로 불생불멸의 법과 윤회의 법을 깨닫고, 선악 인과응보의 진리를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능히 사악취선(捨惡取善)의 수행을 하게되니 법연 깊은 일체 유정들이 중생고를 여의고 열반락(涅槃樂)을 얻게 되며, 상근상지의 불자들은 즉신성불의 직로(直路)를 찾게 됩니다. 이러한 법문으로 곧 교법수행 증과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곧 정법시대 불교의 참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전하기 위해 무한법문을 설하신 불조의 은혜에 보은하는 길이 중생의 서원입니다. 그 서원 속에 상생과 화합으로 상호공양하는 부처의 참모습이 깃들어 있습니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모든 불자들이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자비행의 실천과 희사의 참 정신을 전하는 초발심을 내고, 불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추어 상생과 화합으로 상호공양하는 인류 공존과 공영의 실현을 위하여 서원합니다.

"불국정토 우리 힘으로 일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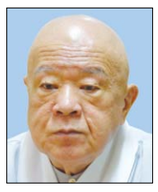


■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정사

사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경제가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욱 빛을 발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온갖 법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나의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잘 관찰해 탐진치 마군을 항복 받고 동체대비, 무연대자의 정신을 살려나갈 때 진정한 불국정토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리하여 우리 불자들이 황폐하고 삭막해져 가는 이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불국정토를 우리의 힘으로 일구어 나아갑시다.

"마음 속 자비의 연꽃 피우자"



■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불자 여러분은 이 땅은 물론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부처입니다. 부처는 행복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씨줄과 날줄로 함께 엮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는 자비의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송이 연꽃은 한 사람의 자비의 마음 곧, 부처의 마음속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자비의 연꽃을 피워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세상이 자비의 꽃비를 맞고 함께 웃으며 즐기고, 함께 춤출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갑시다.

"높은 덕 원만한 부처님 오셔"



■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塵墨劫前早成佛(진묵겁전조성불)/ 爲度衆生現世間(위도중생현세간)/ 巍巍德相月輪滿(외외덕상월륜만)/ 於三界中作道師(어삼계중작도사)/ 人天來合百億軀(인천래합백억구)/ 衆音微妙穿金鬱(중음미묘천금구)/曼陀天女散花雨(만다천녀산화우)/ 十二藥叉皆起舞(십이야차개기무)

한량없는 겁전에 일찍이 성불해 중생제도하기 위해 이 세간 오셨네. 높은 덕이 보름달같이 원만해/ 천상천하를 인도하는 부처님 되셨네. 인간천상 모두 백억의 몸이 되니/ 뭇소리 미묘해 황금거리 꿰뚫은듯하고, 만다라의 천상여인들 꽃비 흩뿌리니/ 열두 야차 모두 일어나 두둥실 춤을 추네.

"삼보 팔지 말고 자기 팔아라"



■ (재)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스님

유상보시는 윤회의 자본이요
무상보시는 무기에 떨어진다.
삼보를 팔지 않고 지혜롭게 살라
법희선열하면 순수 무잡하리라.

불법의 노예가 되어 겉모습만 치장하고
성자인척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오히려 속마음까지 치졸하게 만들기 때문에
밥을 얻는 사람은 부처님을 팔아도 안되고
대중을 팔아도 안되며 법을 팔아도 안된다.
당당한 자기를 팔아라.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믿어라"

■ (사)한국불교미륵종 종정대행 송정 스님

春有百花秋有月(춘유백화추유월)
夏有凉風冬有雪(하유량풍동유설)
若無閑事掛心頭(약무한사괘심두)
便是人間好時節(편시인간호시절)

봄에는 꽃피고 가을에는 달이 희영청
여름은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함박눈
만약 그대의 마음이 한가하게 된다면
이야말로 인간세상 좋은시절 아니랴
즉 자신의 본성이 부처인데 왜 믿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 좋은세월 다보내는가?

"참회하며 자비의 등불 밝히자"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眞僞分別盡歲月 虛華浮名離合散(진위분별진세월 허화부명이합산)/ 去年富貴牢籠懼 不見落花岩間葉(거년부귀뢰롱구 불견낙화암간엽)/ 若何下心佛誕日 懺悔慈悲燭心燈(약하하심불탄일 참회자비촉심등)

참이다 거짓이다 분별하며 줄서느라 밤을 지새웠던 우치한 범부

보지 못했나 지난날 찬란했던 모든 일들을 바위틈에 끼어 바람불면 떨고 있는 낙엽 될 줄을…

이제 헛된 망상 탐심 다 비우고 부처님오신날 참회 하면서 우리 모두 본연의 마음자리에서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모두에게 회향하는 참불자 되길…"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스님

부처님은 자비의 등불이시며, 지혜의 등불이시며, 또한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부처님의 불법이 지혜를 가르치듯 우리도 중생의 무명과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등을 밝혀 각자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우쳐 반성하고 정진하여 이 세상의 등불이 돼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헤아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발하여 부처님의 법을 이웃과 나누고, 복을 지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참 사랑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와 자비 구족해 실천하자"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정관 스님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마음을 밝히고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내 가정 내 이웃과 사회, 모든 힘든 분들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지혜와 자비심을 구족해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는 중생은 본래 없고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임을 천명하신 참으로 기쁜 찬탄의 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 하듯 미래를 향해 힘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래의 삶을 밝힐 공덕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불자님은 감로수가 돼 대승보살의 길로 함께 힘차게 살아갑시다.

종단 지도자 법어 〈요약〉

"삼독 버리고 수행하면 잘 풀릴 것"

■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我無汝無 一切無(아무여무 일체무)
虛空何處 我辱爲(허공하처 아진위)
生命尊貴 佛眞理(생명존귀 불진리)
我心何處 辱有覺(아심하처 욕유각)
貪嗔痴毒 皆棄捨(탐진치독 개기사)
身心修行 每事成(신심수행 매사성)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 어느 곳에서 나를 찾을 것인가. 생명을 가장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님의 진리인데 내 마음에서 깨달아라. 과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버리고 몸과 마음을 수행하면 모든 일이 풀려나갈 것이다.

"마음속에 극락 있다는 것 깨달아야"

■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월호 스님



무구무비무목물(無口無鼻無目物)이
시래끽반시수면(時來喫飯時睡眠)하며
면후기행임언어(眠後起行任言語)하니
일락서산갱하위(日落西山更何爲)하는가.

입도 없고, 콧구멍도 없고, 눈도 없는 그것이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잠자며, 자고나면 일어나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하니, 서산에 해가 떨어지니 다시 무엇을 하는가?

우리 종도들은 즉심시불(卽心是佛)이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실현해 우리 모두의 마음이 곧 부처요 우리 마음속에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참나 찾아 환희롭길"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부처님은 오랜 겁전에 성불했습니다. 무수억 중생들을 제도했습니다. 지금도 교화하고 계십니다. 본래 부처인 자신을 잊고 윤회의 파도에 빠져 아우성치는 중생들이 가여워서 이땅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와의 전쟁입니다. 경제의 주인공인 마음은 잊은 채 대상만 쫓고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오는 악업은 멈춰야 합니다. 부처님은 오심도 없고 가심도 없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계십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바로 이 영원한 부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누구나 영원한 생명인 참나를 찾아 다함께 축복하고 환희롭기를 바랍니다.

"대광명 찾을 수 있는 여래심법 실천"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如是之法 佛祖密府(여시지법 불조밀부)
如今得之 宣能保護(여금득지 선능보호)

이와 같이 대각(大覺) 성불하신 부처님 심법을 따라 우리 중생들은 무명에서 벗어나 대광명을 찾을 수 있는 여래심법(如來心法)을 실천합시다. 또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잘 보호하고 호지(護持)합시다.

지금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을 새로이 계획하며 인내와 절제와 노력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호로써 앞날의 희망과 용기와 행복이 이룩되도록 모두 다함께 다시한번 새로이 출발 합시다.

"종교 아닌 진리로서의 불교 알아라"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 회장 회암 스님



불교란 특정한 가르침이 아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아닌 진리 그 자체다.

참으로 불교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닌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만 오늘의 부처님 탄신을 알게 되느니라.

"내 안에서 진리 찾겠습니다"

■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2553년이 지났습니다. 너무나도 찬란한 5월에 두손 모아 발원하옵니다. 윤회의 고를 벗어나는 길은 부처님이 일러주신 대로 내 본성의 진면목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명의 고통에서 길을 버리고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아 내 안에서 진리를 찾겠습니다. 일부러 복을 지으려고도 하지 말고 스스로 화를 짓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단단한 금강석처럼 진실된 이치만을 염원하며 진아 불성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하겠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날입니다. 꽃이 웃고 새들이 노래하는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부처님 위신력으로 가호 충만하길"

■ 대한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날을 맞아 연등불 밝혀 봉축합시다.

자비하신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불자님 가정에 가호가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청천굉벽력"
"평지기파도"

임제종 가풍

"일체무상 깨달으면 부처님 보리라"

■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련 회장 송산 스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 <금강경> 사구게 中

존재하고 있는 정신적, 물질적인 것은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라
만일 이와같은 줄 알면 곧 부처님 세계를 보리라.

"생사 진로 벗어나면 모두 즐거워"

■ 대한불교위앙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위산 스님



진로형탈 사비상/ 긴파승두 주일장
약비일번 한천골/ 쟁득매화 향비향
백억건곤 장안리/ 임운등등 락만반

생사의 진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니
긴히 마음머리를 잡아서 한바탕 집을 지어라.
만약에 찬 것이 한번 골수에 사무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에 가득함을 얻으리요
백억이나 되는 건곤의 장안속에서
임운등등 해서 오만 가지가 다 즐겁도다.

"이기심 버리고 자아 회복하자"

■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에서 자기 정체성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극단적 이기심으로 인하여 나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이 세계를 시련의 길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하루 빨리 자아회복을 이루어 일체 중생의 웃음소리가 집집마다 새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청정한 것이 부처님 말씀"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인 스님



부처님오신날 자기 청정하자.

자기 청정하면 언제나 부처님오신날. 진리는 부처님 몸에 있지 않고 부처님께 설법을 하셨으나 진리는 말씀에 있지 않다.

부처님 오심은 진리를 행하는 선을 몸소 보이시고 우주 만법이 죄를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다.

내 조국은 세계요 내 종교는 선을 행하는 것이며 자기 청정하는 것이다.

"부처님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 찾자"

■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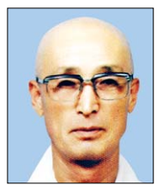
부처께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려 오셨습니다.

넘치는 욕망으로 번뇌가 쌓이고 쌓이면 불성은 사라지고 사악이 번성하여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이어져 넘치는 번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오신날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를 찾읍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나라와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원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자등명 법등명 하는 불자가 되자"

■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부처님은 누구신가?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이며 스스로 진리의 법신을 이루신 분이다. 또한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자성본불(自性本佛)이며 영원불멸하신 진리의 부처님이십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은 인간으로서 여래를 이루어 묘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법신으로의 부처님은 만물의 사생은 묘법의 본성에서 여래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진리에 귀의하며 스스로에 의지하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하는 불자가 됩시다.

"두두물물 경계 아님 깨달아라"

■ 대한불교삼계종 종정 법수 스님



黃花翠竹非他物 明月淸風不是塵(황화취죽비타물 명월청풍불시진)/ 頭頭盡是吾家物 信手拈來用得親(두두진시오가물 신수염래용득친) 국화꽃 대나무가 남의 것이 아니로되/ 달 밝음이랑 맑은 바람도 경계가 아닐세/ 그 모두가 우리집 재물이어니/ 마음대로 집어다 쓰면서 살 일.

孤山山下好養身 米賤柴多足四隣(고산산하호양신 미천시다족사린)/ 無心野老機關少 家火從他乞與人(무심야로기관소 가화종타걸여인) 고산 밑에는 살기에 알맞은 곳이고/ 쌀은 싸고 땔 나무 많고 이웃도 좋아/ 무심한 이 늙은이 주책이 없어서/ 불씨까지 달라며 남에까지 주네

"부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자"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짐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황폐화 되고,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각종 불미한 사건들로 서로간의 신뢰와 평화는 점점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고 미움과 원망으로 헛된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리이타 동체대비 서원으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삼라만상 모두가 참된 진리의 묘법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나라와 교단 위해 개벽승군하자"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富貴如將 智力求(부귀여장 지력구)/ 天才年少 合封侯(천재년소 합봉후)/ 世人不解 靑天意(세인불해 청천의)/ 空使身心 半後愁(공사신심 반후수)/ 天地公事 同力僧(천지공사 동력승)/ 護佛四明 僧軍部(호불사명 승군부)

부귀를 만일 지혜로 구할 것 같으면/ 옛 성인들은 소년 대 제후를 봉했으리/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만 고달프게 하는구나/ 이 땅에 유익한 일 도법을 같이할 승려여/ 나라와 교단위해 개벽승군 봉축하세!

"보리행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아"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대행 신풍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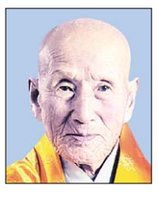


벌이 꽃에서 꿀을 모으듯 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여 어리석은 마음 탐내는 마음, 이것저것 얽혀 집착하고 고통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마음을 일으켜 나태함을 보인다면 그것이야 말로 부처님이 가장 슬퍼할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보리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되게 사는 길은 나눔과 기도"

■ 대한불교선각종 종정 영담 스님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온전한 공양을 올립니다.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염원하는 대자대비의 원력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남을 위해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의 원리이며 가장 아름다운 덕이며,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자성을 찾는 길입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단 없는 정진으로 본래 청정 찾자"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향운 스님



중생들 마음속의 자등명과 법등명을 밝혀 주시기 위해 석가모니께서 화현하신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물질은 유한하여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만 진정한 진리를 얻는 것이며, 곧 부처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보여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탐진치에 물든 나를 바로 보고 본래의 청정성을 찾으려 수행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진으로 평화롭게 서로의 신뢰를 확인하고 평화와 안정을 발원합시다.

부처께서 주신 혜안의 등불로 찬란한 오월을 봉축합시다.

"지혜의 공함으로 참사람 되니…"

■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空忍空忍(공인공인)
眞空妙藥(진공묘약)
虛明自照(허명자조)
無爲眞人(무위진인)

참고 이겨내며 비워서 공함으로 돌아가니
참 지혜의 공함으로 삶의 묘약을 얻도다.
허허로이 밝아 스스로 비추나니
하여도 함이 없는 참사람이어라.

"수행 통해 처처 부처 만나자"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덕정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만 중생의 광명과 가르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범부의 어리석음과 고해에서 벗어나도록 하셨고, 그 모든 거룩함을 받들어 오늘 허공과 같은 마음속에는 항시 부처님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항시 무명을 밝힌 생활과 수행을 가져서 곳곳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날 것입니다.

"번뇌 건너고 망상 마르도록 공부하자"

■ (사)한국미륵불교 종정 법련 스님



'변하지 않는 세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긴 세월 그 몇 겁인가? 하늘도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산도 푸른데 숲이 자라서 변하였네, 세존은 말씀 하셨다. 제행이 무상이라고.

우리는 찾고 있네. 구원겁 전의 나는 어디 있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처님은 이것을 일러주러 오셨네. 이 푸른 불꽃을 보았느냐? 이 힘이 얼마나 큰지 차고 뜨겁고, 아주 작고 아주 크고, 아주 빠르고

똑 딱! 천만겁 먼거리를 도솔천도, 극락세계도 찰라 사이에 오가니 이 무서운 힘 번뇌의 강을 건너고 망상의 세계가 말라버린 이 고요한 적막! 다 같이 공부하여 성불합시다.

"이타 위한 등불 밝혀 자성불 깨닫자"

■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스님



부처께서 오신 거룩한 날.

부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부처이며,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포 나아가 세계인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내 안의 부처를 잊어버리고 저 밖에서 찾다 보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자성에는 부처님의 생명이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알고 밝고 청정한 마음으로 이타를 위한 등불을 밝혀 탐욕과 증오를 거두고 나누고 어루만집시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부처께서는 탄생한 그 순간부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 '칠자' 행하면 부처와 다를 바 없어"

■ 대한불교선종 종정 효담 스님



戒持僧前人七字(계지승전인칠자)
人字七行僧七字(인자칠생승칠자)
生前死後福樂期(생전사후불락기)
心身在善慈佛陀(신심재선자불타)

계를 가져 승이 되려면 사람인자 칠자부터 행하라.

인칠자 행 후에 승칠자를 행하여서 생전사후에 복과락을 바라려니

마음과 몸이 선한 가운데 부처와 다를 바 없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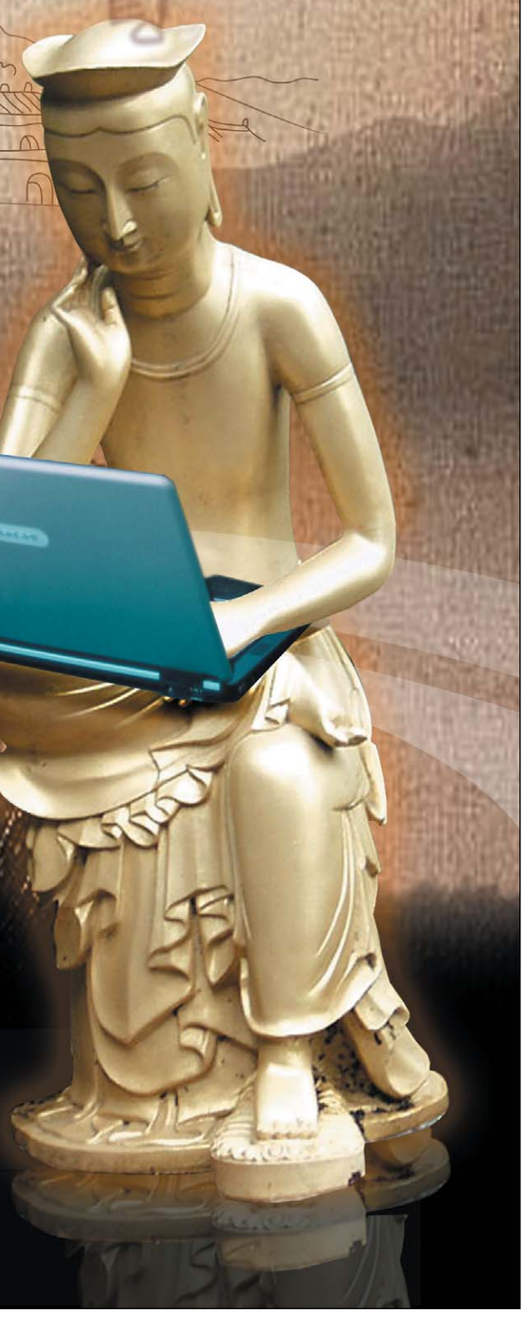
2009년 5월 2일 2553년
석가탄신일을 봉축드립니다.

WINI WORKS
주 식 회 사 위 니 웍 스

부처님께서 인터넷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새로운 깨달음! 번뇌의 끝...

웹사이트 / 웹프로그램 개발
인터넷 관리 / 인터넷 컨설팅

WINIWORKS
(주) 위니웍스
웹사이트 개발 / 인터넷 불교방송
불교전문 쇼핑몰 / 신도관리 시스템
온라인 교육지원 시스템
인터넷 컨설팅 / CI · 로고디자인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2-4 천우빌딩 5F / 전화번호 : 02-515-4464
FAX : 02-549-4464 / E-MAIL : webmaster@winiworks.com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악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슬퍼한다.
- 법구경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범왕
원로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지성 부원장 도언
감찰원장 보각 부원장 수안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경덕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법승
중앙종회의장 법정 부의장 혜도 법경
불교예술원원장 박종도 위 원 도영 소현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사무처장 대광 종정사서실장 소원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교육부장 연아 포교부장 혜정 기획실장 대각
홍보부장 법경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법정
혜도 각오 범왕 법주 수안 보각 법경 능혜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납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서울교구종무원장 능혜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종무원장 보각 부산교구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종무원장 혜도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김해교구종무원장 대광 통영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기교구종무원장 일연
부산법사단장 수안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번지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31번지 오세암 055)521-1878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 총무원 055)346-2909 무료전화 080-3030-5959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총무실 010-8548-8608 평생전화 1577-0408 / 한글홈페이지 네이버 대원종 또는
http://cbc108.tv:9004 / E메일 asp8990@hanmail.net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종정 사서실장 혜관

원로원장 석지륜 원로위원 법성 법공 제공
종회의장 지언

총무부장 무오 호법부장 혜인 사정부장 제도 사회부장 혜주
교무부장 지웅 포교부장 혜정 조직부장 묘화 외교부장 정행
총무국장 지관 호법국장 정관 사정국장 도영 사회국장 후관
교무국장 묘순 포교국장 법관 조직국장 묘환 외교국장 혜관

서울북부종무원장 혜광 부산중부종무원장 법연 경남종무원장 자범
서울중부종무원장 제현 부산동부종무원장 혜일 충남종무원장 혜용
경기북부종무원장 지공 대구종무원장 혜인 충북종무원장 지명
경기중부종무원장 보우 강원종무원장 금화 전남종무원장 보경
경기남부종무원장 지우 경북종무원장 지명 전북종무원장 법원

■ 해동불교 임제종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팩스 061)644-7274 휴대폰 010-3807-8428

韓國佛教 如來宗

宗 正 釋仁旺
副宗正 석의천 (충주 칠곡사 주지)

사서실장 석해륜

원로원장 석법수 (함양 도선암 주지)

총무원장 석명안 (총본산 대약사사 주지)
사무총장 석혜안 (성남 약사사 주지)

총무부장 송 화 (제천 보현암 주지) 재무부장 보 혜 (부산 화엄사 주지)
문화부장 묘 수 (원주 문선암 주지) 교육부장 도 혜 (원주 여래사 주지)
호법부장 보 성 (산청 약사사 주지) 포교부장 반 야 (원주 약사암 주지)
사회부장 정 암 (철원 정암사 주지)

종문도회장 해륜 (청주 황용사 주지) 비구니회장 해광 (제천 불정사 주지)

■ 주소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70-7796~7-6453, 043)731-2261 / 팩스 043)731-6453

대한불교 대승종

종 정 약왕사 법청천광
부종정 홍은정사 법일지신
원로원장 미타암 법호서호
총무원장 불암산 상원사 법진도일

종회의장 안정사 법암혜심 종회부의장 천연암 법인운남
감찰원장 백마사 법성정산 교육원장 천룡사 도관지법
포교원장 향용사 법현법전 연수원장 원융원 법신노정

서울종무원장 약사암 지공 경기종무원장 대성사 무상
충청종무원장 일천지원 혜능 전북종무원장 향용사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춘사 덕일 전남종무원장 화심사 진덕
경남동부종무원장 법청사 진각 경남서부종무원장 천지암 일봉 경북종무원장 용문사 원도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140 불암산 상원사
전화 02-952-1074 / 팩스 952-1079 / H.P 010-7273-1074

〔등록번호 206-82-65359〕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표회장 회 암 (재단법인미타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현 산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 수 (대한불교사암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성 일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이사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융 호 (대한불교인왕종 총무원장)
운 공 (대한불교홍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동 선 (대한불교법왕종 총무원장)
혜 일 (대한불교미륵선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법 열 (세계불교대각총연합)
법 달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법 우 (조계종정토불교 총무원장) 탄 공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회 범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원 (대한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성 우 (세계불교법왕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상 일 (불교임제종 총무원장)
혜 공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무 도 (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화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감사 가 산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성 수 (한국종교예술방송) 종단고문변호사 김진태

■ 사무실 :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산 2-13 인왕사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1163

사단법인 대승불교 본원종

종 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지연
부종정 김동광 유법용

원로의원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김대심
이관곤 이대봉 박대월

총무원장 이대화 사서실장 강정오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정지명
감찰원장 김대원 교육원장 김대천
연수원장 김현담 의전원장 이두산
문화원장 김송담 포교원장 정대련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염불원장 최대황
경북종무원장 윤자광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손혜원
교화부장 정대능 포교부장 한법성
규정부장 강만공 재무부장 정법성
사회부장 허지광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진짜 나’ 만나 ‘진짜 대화’ 하라

선지식을 찾아서 성수



성수 스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성수 스님은 1944년 양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1967년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역임. 1978년 세계불교지도자 대회 일본주최 한국 대표로 참가.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표충사 등 주지역임. 1981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조계종 전계대화상 역임. 지금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며, 법수선원 · 황대선원 · 해동선원의 조실이다. 저서로는 〈선문촬요〉 〈불문보감〉 〈선행문〉 〈정행문〉 등 다수 있다.

“부처님은 확실히 모르고 크게 몰랐기에 성불한 것 우리는 ‘가섭의 미소’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참 불자”

산벚꽃이 한줄기 바람에 눈처럼 하얗게 하늘을 수놓던 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던 날 법수선원에서 성수 스님을 뵈었다. 서울 세곡동에 위치한 법수선원은 시민선방이 있는 보림도량으로 성수 스님이 1973년에 개원한 인연 깊은 곳이다. 성수 스님은 십 여년동안 법수선원에 주석하여 도심의 사람들에게 스님 특유의 방식으로 법과 선을 널리 폈으며, 이곳에서 발심하여 출가한 이가 여러 명이라 한다.

올해로 세수 팔십일곱이신 성수 스님께 건강을 여쭈었더니 “한 계절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차고 더운 기운이 서로 치성을 부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 계절에 따라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라고 하신다. 어제 미지근한 물에 목욕했더니 몸에 탈이 났는데 병원 갈 일은 아니란다. 구십 평생을 살면서 아직 병원 들고나는 일은 없으니 ‘시주밥 축내지 않고 도 닦은 것 아니냐’면서 웃으신다.

건강 비결을 물었더니 “불자들도 아침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등을 땅에 안 붙이고 노력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몸은 빛이 나니 병원 갈일이 없을 거라.”고 한다. 몇십년동안 한결같이 한 끼에 다섯 숟가락의 찰밥과 맵고 짜지 않은 찬을 드신다고 하니 소식(小食)이 그 비결인 것 같다.

“많이 먹고 많이 자면 병 안들 사람이 없어. 천성산에서 공부할 때 일 년 동안 뽕잎 · 감잎 · 솔잎 · 칡잎 · 닥나무잎을 뜯어먹고 살았어. 그러고 나서 원효대사 토굴터에서 십년을 살았는데 쇠비름을 베어서 덮고 깔고 잤으며, 그때도 삼 년 동안은 풀잎만 먹었는데 건강에 아무 이상 없었어. 마을에서는 마음의 병이 들면 절로 수양하러 오는데, 스님이 병원에 간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여기고 부끄러워서 못가야 해. 부끄러워서 안 가다보면 싱글벙글 쨍쨍하게 살게 되고 그것이 활불(活佛)이지.”

성수 스님은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보살을 잘 쓰고 자성 삼보를 잘 관리하면 보살이 된다면서 먼데 가서 찾지 말라고 일러준다.

“ ‘부처님오신날’이라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다 좋은 일이지. 형식적 축하보다는 진심으로 봉축해야지. 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함인데 미한 중생이 밝은 지혜는 외면한 채 어두운 물질에만 묶여 있으니 답답해. 이 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노력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부처님 앞에서 기원하면 좋은 일이지.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본을 받아 실천 수행하여 오늘이 바로 자신에게 ‘제 2의 탄생일’이 되도록 해야지.”

1975년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데 성수 스님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장인 김현욱씨와 불자국회의원들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수차례 건의 하여 이루어진 일이었으며, 시민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용지가 트럭 3대에 실어야 할 정도였단다. 그때가 성수 스님 마흔 한 살 때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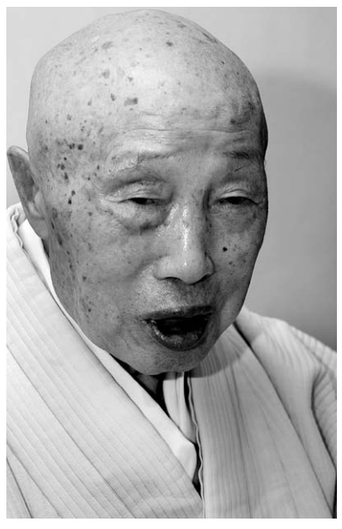
“공휴일로 지정된 그해 부처님생일잔치를 크게 벌였지. 서울시장이 행사비로 쓰라고 이십만 원을 내놓았는데 논 100마지기 값이었어. 삼립식품공장에 보름달인가 뭔가 하는 빵 3만 개를 주문하여, 만개는 조계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나누어주고 서울 시내 111개 양로원에 나누어주었지. 그날 하루 종일 서울역에서 빵을 나누어주었는데 서울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큰 잔치였어.”

성수 스님은 조계사 주지 할 때 ‘종교의 장벽을 트자’고 제안해서 종교협의회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종교협의회를 갖기 전에 신부, 목사, 수녀 오십여 명을 조계사로 초대를 했어. 내가 초대를 했으니 턱 나가서 ‘내가 열아홉 살에 중이 됐는데 내 부모보다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중이 됐다.’고 했더니 그들 표정이 ‘저거 봐라. 부처 자랑부터 늘어놓는다’고 쓰여져 있어. 45년 동안을 그렇게 좋아하며 믿고 살아왔는데, 오늘에 와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 부처한테 몽땅 속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부처님은 속세에서 네 가지 큰 죄를 지은 분이라고 하니 내 말을 백프로 믿는 눈치데.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善惡果)를 따 먹어서 천당과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선악과 먹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땅에 탁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나처럼 속는 놈이 된다면서 내 속았던 것까지 보태가지고 그들한테 폭 덮어 씌워 버린거야.”

부처님이 왜 속세에서 네 가지 큰 죄를 지은 분인지 궁금했다.

“부처님 욕을 하면 부처님이 한 방 치시겠지만, 부처님 인격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야단치시지는 않으실 것이라. 네 가지 죄란 첫째는 국사를 돌보지 않고 출가했으니 부왕의 명을 거부한 역적죄요, 둘째는 부모의 뜻을 거역했으니 천추만대의 불효죄요, 셋째는 결혼한 젊은 부인을 버린 배신죄, 넷째 라후라를 낳고도 기르지 않고 자식 버린 죄이지. 보통사람으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네 가지 죄를 짓고 성을 넘어 야반도주를 했으나 삼천 년이 지나도록 부처님을 성인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잖아. 네 가지 죄를 지었어도 삼천 년 동안이나 존경받는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부처님은 사문유관(四門遊觀)을 통해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나 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어. 안 죽는 법을 알기 위해서 육년이나 찾아다녔으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가 연구했지. 그렇게 하여 좌부동하고 앉았는데 삼시간에 육년의 세월이 또 지나간 것이지. 부처님은 확실히 모르고 크게 몰랐기 때문에 아주 크게 깨달을 수 있었어. 그러니 법당에서 절 한 자락을 하더라도 부처님 뜻을 알고 해야지. 물어보고, 알고 살아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넙죽넙죽 절만 하는 것을 보면 장관이야. 모르면 묻기라도 해야 하는데 묻지도 않아.”



모르면서 묻지도 않는다는 말미 끝에 “영산회상에서 부처님이 꽃 한송이를 들고 있으니 가섭존자만이 미소 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미소인지 생각해 보았느냐?”고 한다.

“선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염화시중(拈花示衆)때 가섭의 웃음이 미소(微笑)인지 비소(非笑, 비난하는 웃음)인지 흑백을 가릴 줄 알아야만 해. 그래야 선객이라 할 수 있지.”

자신의 고유한 생각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남이 뱉어놓은 말만 무작정 따라가니 어느 세월에 자신과 상면(相面)하겠느냐면서 걱정의 눈초리로 바라보신다.

“싯다르타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떼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 했는데, 무슨 뜻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 연이어지는 스님의 기습질문이다. 성수 스님 앞에서는 뻔한 답을 하기보다는 묵묵부답이 차라리 나은 일이다.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제일 귀하다는 뜻이야. 자아발견을 좀 하고 살자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모르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여. 밥 잘하는 사람은 밥솥과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회 주 송원 설정
주 지 수경
국제선원 정진대중
신도회장 호법행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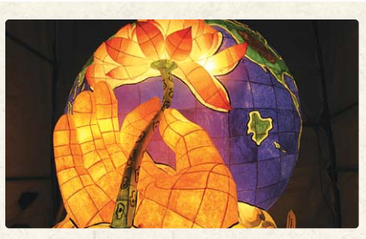
사시예불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거사회 108 참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선원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4시 (내.외국인)
수선회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어린이/학생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11시
청년회 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선우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3시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4시
합 창 단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1불자 1자비 실천” 운동 자비보시기금회 지원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독거노인 지원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국립재활원 / 의료원
라오스 화계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지원
군 법당 법회 지원	국제선원 / 도제양성

신도교육 / 불교대학 사무처 ☎ 02-997-6469

기본교육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5시
불교대학	주간 1,2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4시 주말 1,2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7시
불교대학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3시
교 양 과 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4시





三角山華溪寺

※ 자비보시기금회 : 국민은행 353-25-0004-961 (예금주: 화계사) /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 wwww.hwagyesa.org ☎ 02)902-2663 전송 02)990-1885

www.dosunsa.or.kr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Lotus Lantern Festival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더없이 좋은 날, 기쁨의 날, 생명의 날에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지혜와 자비의 연등을 밝힙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관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 / 전화 : (02)993-3161~3

나를 망치는 건 나일뿐

대화하고 나무 가꾸는 이는 나무와 대화하는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신과는 대화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담수명월난지난 심중활불난봉난 (潭水明月難持難 心中活佛難逢難)
산상기암고불시 광야현풍전묘법(山上奇岩古佛示 廣野玄風傳妙法)
물에 뜬 저 달은 가져보기 어렵고
마음속에 산 부처 만나기 어렵네.
산위에 기암은 부처 같고
넓은 들판에 부는 사람은 묘한 이치 전해주네.

성수 스님은 열아홉 살에 원효대사 같은 도인이 되겠다고 집을 나와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일 년 동안 도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기에 범어사에 가서 "큰 중 나오라"라고 소리 질렀다.

"그 넓은 절이 떠나가도록 소리소리 지르니 범어사 중들이 다 나왔지만 '새끼 중 말고 어른 중 나오라' 고 하니 나중에 주지 스님이 나오데. 왜 그러느냐고 하길래 '도인을 찾아 일 년 동안 다녀보니 고대광실 같은 집에 살면서 공부안하는 중들 밖에 없더라. 결혼 안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 놀고 먹으니 국가에 손실만 주니 다 때려죽이려고 그런다' 했더니 그 주지 스님이 땅에 엎드려서 일어나지도 않고 한 나절을 눈물 흘리는 거라.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데. 그때 주지 스님이 동산 스님이신데 5년 후에 범어사에 도닦으러 갔더니 상좌들도 다 있는데 나한테 살림을 맡기데. 백 명이 넘는 대중들이 살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장을 봐다 날랐어. 공부해야 하는데 장에 자주 가면 쓰나. 한 번 가면 트럭 한 대 그득하게 실어왔어. 그걸 보고 동산 스님이 놀라시데."

성수 스님의 서슬 푸른 기상과 삼강처럼 큰 뱃장과 포부를 당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싶다. 성수 스님은 조계사, 범어사, 해인사, 고운사, 표충사 등 6개 본사급 주지 소임을 맡았는데 그 소임도 딱 일 년씩만 했다. 그동안 지은 절만 해도 70여 채가 넘지만 모연문 한 번 돌려본 적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기도나 축원을 하지도 않았단다. 스님은 참으로 탁월한 재주를 지녔다고 하니 그것은 재주가 아니란다.

"돈을 깨끗하게 잘 써주면 돈이 인사하고 따라다녀.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천해. 돈이 사람을 따라 다녀야지."

성수 스님은 불살생(不殺生)의 뜻을 아느냐고 물으신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왜 물으실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 스님께서 말씀을 이어갔다.

"전부 소나 개, 벌레 등 타(他)를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서 각자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인 줄 모르고 남의 목숨만 죽이지 않는 줄 알고 있어. 부처님이 중생을 턱 보니 '나고 죽음의 꿈을 깨지 못하므로 너무 애처로워서 중생은 나고 죽음의 고해바다에서 벗어나라' 고 불살생을 말씀하신 것이지. 파리 한 마리는 죽이기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은 하루에도 수없이 죽고 사는 것을 모르니 참으로 안타까워.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죽지 말라' 고 간곡히 설한 말씀이야.

불살생이 참으로 나의 일인 줄 알아야만 조금이라도 생사에 겁을 낼 터인데 눈이 밝지 못하여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거라. 타(他)를 죽이지 않겠다는 생각 이전에 내가 안 죽을 연구부터 해야지. 정말 죽기 싫다면서 부처님께 안 죽는 도리를 알려달라고 간이 타도록 애원해봐야지. 그래도 안 알려주면 알고 싶은 마음에 한이 맺히고, 알고 싶은 욕심이 펄펄 끓어올라야지. 안 가르쳐 주면 왜 안 가르쳐 주냐면서 주먹으로 부처 콧등을 한 대 쥐어박을 정도는 돼야 생사해탈의 맛을 볼 수 있지. 생사해탈의 맛을 보는 자가 바로 부처님의 뜻을 아는 산 제자라 할 수 있지. 생사 밖의 도리가 다 여기 있어."



불살생 이 석자가 선법(禪法)인데, 이 선법만 확실히 알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 이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간절한 법이란다.

"쇠가 쇠를 먹고 물이 물을 먹으며, 바람이 바람을 먹으며, 이웃이 이웃을 괴롭히며, 불법(佛法)은 불자가 해치고, 내가 나를 망치는 것이지. 나를 망치고 짓밟는 이는 오직 나 일뿐 다른 이가 더럽힐 수는 없음을 명심해야 돼."

중생이 부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내 속에 있고, 부처가 중생놀음하는 것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내 탓임을 좀 알아야 한다면서 이젠 남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한다.

"부처님은 도 닦을 때 새가 와서 머리에 똥을 싸도 원망 안 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항상 생활했어. 우리가 현재 비 안 맞고, 옷 안 벗고 사는 그것이 바로 복 아닌가? 행복하게 사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욕심이 끝없기 때문이야. 부처님께서 '만족심이 제일 큰 복' 이라 했어. 마음속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면 낼수록 쌓아 놓은 물질에 휘말려 정신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야.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회를 꼬박꼬박해서 불평 없는 인간, 원망 없는 인간이 되도록 원을 세워서 노력해야지. 인도의 가난한 안타라 여인은 여덟 달 동안 일한 품삯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등을 올렸지만, 정성을 다했기에 돌풍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이참에 좀 새겨들어놔."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이 담긴 좋은 등보다는 혜를 밝히겠다는 원이 담긴 등을 켜야 한다' 는 성수 스님의 말씀은 시름에 젖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등불이 되어 줄 것 같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1. 효성 조명기 박사

조명기(1905-1988) 박사님은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분이다. 통도사 출신으로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여 정토진종에서 수학을 하고, 얼굴빛이 노르스름하여 부처님과 비슷했다. 키는 조금 작아도 몸이 부대(富大)하여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이 근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수 없이 부르는데, 처음에는 각기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니 30분, 40분, 1시간, 2시간이 되니 모두가 아미타불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총장님 얼굴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빛나게 되었습니까?' 에 대한 답변이다. 어려서는 호박같이 생겨 '물수통' 이란 별명을 가졌고, 절에 와서는 행동이 워낙 느려 '굼벵이' 라는 별명을 가졌다 한다.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하는 것을 보니 빨리 빨리 하면서도 천천히 그 일을 정확히 하여 이론과 실제가 꼭 맞게 하기에 집 한 채를 지어놓으면 백년도 가고 천년도 가게 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바로 보고 강의를 하는 법이 없었다. 학생들이 쳐다 보는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부처와 부처가 서로 마주보면 두 눈 사이에서 불이 날까 두려워서 그러신다 하였다.

"고려 태조가 전장에 갔다 오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만 하다가는 나라 꼴이 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임금님을 죽여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을까' 하고 있는데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마음을 훤히 다 안다' 하니, '나는 꼭 죽었구나' 하고 집에 돌아와 누워 있으니 한씨 부인이 '이왕에 죽을 바에야 궁중에 들어가서 죽지 왜 집에서 죽으려 합니까?' 하며 불끈 들어 마당에 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왕건 태조는 크게 아팠을 꺼야."

하고 칠판을 바라보고 5분, 10분 그 아픈 시늉을 하여 박장대소를 한 일도 있다.

일생을 실천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려사 · 사찰 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열반 후에 <한국불교사학 대사전>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불교는 불타(佛陀)의 완전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종교이므로 여러분도 자기 체험을 통해 교주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장이 세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첨부된 진정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욱 총장님은 누구에게나 반말이다. 기산 임석진 스님을 빼놓고는 나이가 많든지 작든지 논하지 않는다. 그런데 효성 조명기 박사님은 누구에게나 존대말을 쓴다. 집에 가서도 사모님께,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한 번도 하대 말을 쓰는 것을 보지 못했다. 타당성을 초월한 타당성을 체험하게 하는데, 가능한 한 말을 아끼시고, 행으로 보이셨다. 진실로 실천적인 불교학자였다.

지금도 <불교문화>와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 <한국불교사학 대사전>을 보면 얼마나 말을 아끼고 행을 소중히 여겼던가를 알 수 있다. 박사님께서 일생을 두고 소중히 모셔왔던 불교문화재 '방형대좌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이나 설총의 '관경변상도' 등을 보면 선생님을 친히 뵈온 듯 반갑다.

누구에게나 존대… '한국불교사학대사전' 후학에 좋은 자료

지금도 <불교문화>와 <고려대각국사와 천태사상> <한국불교사학 대사전>을 보면 얼마나 말을 아끼고 행을 소중히 여겼던가를 알 수 있다. 박사님께서 일생을 두고 소중히 모셔왔던 불교문화재 '방형대좌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이나 설총의 '관경변상도' 등을 보면 선생님을 친히 뵈온 듯 반갑다.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천연백수정108 염주

화제의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선을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축복의 꽃밭길을 간다.
- 법구경

대한불교 위앙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위산 청해**

사서실장 **진산**

원로의원 **태산 해우 재옥 대산 범해 몽산 반야**

종회의장 **진여**

교육원장 **청산** 포교원장 **법해** 감찰원장 **경산**
문화원장 **원행** 복지원장 **혜광** 호계원장 **해관**
법사원장 **혜안** 대체의학원장 **고산**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38-12 (학생회관 : 1길-29호)
전화 041)551-5537 팩스 041)621-5537 / 핸드폰 010-6409-6025. 010-5452-3895

中國臨濟宗 七塔法派 韓國佛教 臨濟禪學院

宗務總理 **釋慧照** 理事長 **釋解釋**
副總理 **釋大虛**

中華民國 臺北 臨濟宗 光德寺 方丈 釋淨心
中國佛教 臨濟宗 本山 七塔寺 方丈 釋可祥

臨濟宗 七塔法派 國際 法子聯誼會 會長 **釋心茂**
臨濟宗 七塔法派 韓國 法子聯誼會 會長 **釋解愚**
臨濟宗 七塔法派 싱가폴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寂**
臨濟宗 七塔法派 인도네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行**
臨濟宗 七塔法派 홍콩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因**
臨濟宗 七塔法派 말레이시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湧**
臨濟宗 七塔法派 인디아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生**
臨濟宗 七塔法派 자카르타 法子聯誼會 會長 **釋慧願**

※ 사찰 등록 받습니다.

■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망우3동 120-7 TEL 02)496-3951~3 FAX 496-3950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 **향운**
원로원장 **대운**
원로위원 **벽송, 무진, 법산, 창해**
종도회장 **금봉**
규정원장 **도천**
종회의장 **인담**
종회의원 **성은, 지호, 진산, 명관, 도봉, 옥운, 도명, 운영, 상경, 혜봉, 운학, 원봉, 원각, 성원, 혜인, 운오, 영산, 지상, 천수, 진혁, 지원, 정안, 선인**

서울종무원장 **진산**
부산종무원장 **심상**
서부산종무원장 **정안**
충남대전종무원장 **일륜**
울산종무원장 **운오**
대구종무원장 **법웅**
인천경기종무원장 **인담**
강원종무원장 **청암**
충북종무원장 **석암**
전북종무원장 **운학**
전남종무원장 **마명**
광주종무원장 **원각**
경북종무원장 **명석**
경북남종무원장 **태일**
경남종무원장 **도암**
서부경남종무원장 **성원**
제주종무원장 **강설**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전국비구니부회장 **자성**

상벌위원장 **태운**
교육원장 **수혜**
포교원장 **불인**
종학원장 **영운**
문화원장 **효산**
의전실장 **대련**
충무부장 **우석**
사회부장 **보원**
포교부장 **시현**
교육부장 **성은**
문화부장 **법경**
복지부장 **범일**
감찰국장 **대각**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총무원장 대현

명예종정 **상봉**
승정부원장 **성암**
부종정 **송봉**
승정원 **운경**
승정원장 **영암**
종회의장 **본자**

교육원장 **승법**
문화원장 **무공**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포교원장 **정도**
의전원장 **동선**
감사원장 **법안**
비구니원장 **효상**

행정기획실장 **법신**
호법부원장 **광월**
서울교구원장 **운산**
충북교구원장 **지호**
비구니원고문 **도하**
문화부원장 **설운**
강원교구원장 **도현**
울산교구원장 **갑태**
포교부원장 **원주**
비구니회장 **관욱**
감사부원장 **현공**
경북교구원장 **제법**

총무부장 **불현**
호법부장 **무성**
교무부장 **석담**
사회부장 **혜명**
규정부장 **도영**
봉사부장 **흥운**
재무부장 **혜진**
사업부장 **혜명**

• 입종안내 • 가족 같은 종단에 오셔서 같이 포교해 나가실 스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 소정양식 2부, 등본1통, 사진4장 ■ 2009년 6월까지는 입종비가 없습니다.

■ 총무원 (화남정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4-7 전화 031)222-2265. 217-2633

〔법인등록번호 134671-0002921호〕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부총재 **무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총무원장)
혜안 (사단법인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우담 (중앙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회 장 **송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회장 **마정** (임제선학원 종무총리) **정림** (사단법인 수미산문 조동정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이 사 **법인**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이 사 **법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이 사 **대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이 사 **정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이 사 **해운**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인호** (대한불교미타여래종 총무원장)
이사(감사) **향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이 사 **덕진** (호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일초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무각 (사단법인 대한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구화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대현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고 (세계불교법사종 종회의장)

■ 사무실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전화 031)676-3960 / 사무총장 011-9330-6210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허석법수

총무원장 **박일초** 대본산 연화사주지 **석문수**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http:www.samgyeoijong.org 한글인터넷: 삼계종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11-10호 인해빌딩 4층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3-8066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729-17-3단2009.4.2711:3AM페이지1(1,1)

"상원사 김치처럼 제 몸을 화두로 절이고 싶습니다"



생식하며 이부자리도 없이 수행하는 북대스님 닮으리라 발원하며 신심 충전

김치독에 소금붓던 한암 스님 "수행자는 맛을 몰라야해 험식하며 맛 잊어야 수행자"

혜암은 봄이 다 지나갈 무렵에 해인사로 돌아가려고 했다. 무작정 상원사에서 머물 수는 없었다. 신도가 없는 상원사는 절 살림이 아주 궁했다. 상원사 조실인 한암이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신참 수좌들이 눈치를 보며 하나 둘 떠났다. 결국 구참 수좌들만 상원사 선방과 산내암자에 남았다.

혜암도 걸망을 챙겼다. 골짜기로 나가 맑은 개울물에 가사 장삼도 빨고 몸도 씻었다. 차가운 개울물이었지만 한낮에는 손을 담글 만했다. 초여름 햇살이 목덜미에 느껴졌다. 신참 수좌가 혜암 옆으로 와 말했다.

"혜암 수좌, 하안거는 어디로 갈 생각이오."

"서대나 북대에 살고 싶지만 이미 구참 수좌 몫이니 할 수 없지요. 효봉 조실스님 회상을 생각하고 있소."

서대는 상원사에서 왼편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염불암을 말했고, 북대는 오른편 산길 끝에 있는 미륵암을 말했다. 모두 상원사 산내암자였다. 그곳에는 이미 구참 수좌들이 방부를 들인 상태였다. 언젠가 꼭 한 번 살고 싶은 암자들이었다.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적한 곳이므로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수행처였다. 혜암은 한 달 전 북대 미륵암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그곳의 구참 수좌가 잊히지 않았다.

"나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북대 같은 암자에서 살지 못할 것 같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소. 두려운 마음을 내지 않으면 두려움도 없는 것이오."

"혜암 수좌는 암자에서 혼자 정진하는 체질인 것 같소."

"북대스님을 보니 나도 저렇게 수행해야지 하고 신심이 납디다."

당시 북대는 말이 암자이지 비바람을 겨우 면하는 움막이나 다름없었다. 방바닥은 장판이 닳아 거의 흙바닥이었다. 방안 살림살이는 죽비 한 개와 목탁 한 개가 전부였다. 이부자리는 없었고 좌복이 하나 덜렁 있을 뿐이었다. 참선을 하다가 졸리면 좌복으로 배만 덮고 잤다. 북대를 찾아간 손님은 하루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상원사로 내려왔다. 더구나 스님이 생식을 하니 손님은 생쌀을 먹는 시늉만 하다가 도망치듯 했다.

그러나 혜암은 북대스님을 만나고서는 신심을 냈다. 비록 그 스님과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자신도 어느 날 암자에서 수행하게 된다면 그 스님처럼 제대로 정진하고 싶었다. 의식주를 잊어버린 채 오직 참선만 하고 사는 그 스님이야말로 오대산의 수행자인 것 같았다.

"서대에 사는 스님도 신심 나게 합디다. 언젠가 나도 서대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소."

서대는 남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우통수라는 샘 옆에 있었다. 우통수 물맛이야말로 찻물로서 으뜸으로 치는 감로수였다. 습한 곳이어서 암자 주변에 뱀들이 많은 게 흠이라면 흠이었다. 뱀들이 부엌이나 방 안으로 들어와 몸을 말리느라고 똬리를 틀곤 했다. 그러나 그곳의 스님은 뱀을 '긴 것'이라 부르며 물리치지 않고 오직 화두만 들고 동거하듯 살았는데, 혜암은 그 모습도 잊을 수 없었다.

"혜암 수좌, 난 이번에 서울로 갈 계획이오."

"스님, 어디를 가든 바보 같이 공부만 하면 되는 거지 산중이든 저잣거리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오."

"강원도 마치고 선방도 여러 철 경험했으니 이제는 서울로 나가 대중포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나는 저잣거리에서 대중을 포교하는 것이 근기에 맞는 것 같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스님들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부처님 마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소."

"완전한 실력을 갖춘 의사가 된 후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지요. 하지만 중병을 치료하기 전에 응급치료라는 것도 있지 않소. 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소."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소만 난 그럴 자신이 없소. 내 실력 없이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나서겠소. 난 생사해탈을 이루고 난 후에 저잣거리로 나가겠소. 돌팔이 의사가 환자의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돌팔이 의사란 말이오."

"환자 병을 더 키우면 돌팔이 의사지요. 하하하."

혜암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빨래를 하려는 스님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열반경>에 나온 한 대목을 예로 들며 말했다.

"자비심이 여래라는 구절을 <열반경>에서 보았소. 나는 부처님의 그 말씀에 무릎을 쳤소. 진리를 구하는 정진도 부처가 되는 길이요, 중생을 제도하는 정진도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이 같은 말이라는 거요."


그림 · 최문정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상구보리를 한 이후에 하화중생을 하라는 뜻이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소."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알았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상구보리나 하화중생이 같은 뜻인 거요. 어느 길로 가든 성불하는 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소만 나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소. 그럴 자신도 없소."

혜암은 서둘러 얘기를 끝마치려 했지만 스님은 혜암을 놓아주지 않았다.

"서울에 가면 우리 절이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태고종 스님이거든요. 아버지 스님이 연세가 많아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서 누군가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힘드신 것 같아요. 대중포교도 포교지만 자식된 도리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 아름다운 일이겠소. 아버지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손이 된다면 그게 바로 천 개의 손을 가진 천수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니까."

"혜암 수좌가 좋게 봐주니 기분 좋소."

"어디를 가든 청정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정진하는 도량이고 법당이 아니겠소."

"그런데 왜 혜암 수좌는 굳이 상원사 선방을 떠나려고 하는 거요. 조실스님이 스님을 좋아하지 않소."

"스님까지 어떻게 알았소."

"다 알고 있어요. 한암 조실스님이 붙잡으려 해도 다들 혜암 수좌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스님 말대로 상원사 대중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절 살림이 궁핍하니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하안거를 나려고 하는데 결국 구참 수좌들만 남게 되리라는 것을 서로가 양해하고 있었다.

일부 대중들은 혜암이 한암의 칭찬을 받은 일도 있고 하여 상원사에서 하안거 방부를 들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혜암은 해인사로 돌아가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 하나라도 덜겠다는 생각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

혜암이 떠나려고 결심한 것은 며칠 전 한밤중이었다. 혜암은 장좌불와를 하는 중에 졸리면 한밤중이라도 바로 밖으로 나가 포행을 했다. 상원사에서 가장 가까운 중대 사자암을 오르거나 그 위에 있는 적멸보궁까지 오르내렸다. 며칠 전에도 혜암은 포행을 하러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공양간 장독대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혜암은 너무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종각 뒤로 숨어 상대를 살폈다. 초승달이 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동작이 어렴풋이 보였다. 도둑은 아니었다. 도둑이 궁한 절까지 올 리는 없었다. 장독대에 서 있는 사람은 스님이었다.

스님은 독에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 그러나 달빛이 밝지 않았으므로 무엇을 넣는지는 알 수 없었다. 혜암은 스님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가까이 다가갔다. 몇 걸음 걸은 뒤 상대가 놀라지 않게 헛기침을 했다. 그러나 그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던 일을 마저 했다.

좀 더 다가서 보니 그 스님은 한암이었다. 한암은 바가지에서 무언가를 한줌씩 꺼내 독 속에 뿌리고 있었다.

"조실스님, 혜암입니다."

"대중들이 김치를 헤프게 먹어 탈이야."

한암은 김칫독에 무언가를 흘뿌리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중들이 김치를 너무 많이 먹는다니까."

한암은 대중 모르게 김칫독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상원사 김치는 짜기로 소문이 나 김치 한 가닥이면 수수밥 한 사발을 비울 수 있는데, 한암은 그 짠 김치에 다시 소금을 더 붓고 있었다.

"이래야 이 김칫독의 김치가 하안거를 넘길 수 있을 것이야."

"소금에 절이고 계시는군요."

"짜다 못해서 아예 쓸 거야. 수행자는 맛을 몰라야 돼. 거친 음식으로 험식(險食)을 하면서 맛을 잊어버려야 돼. 수행자는 김치가 짜건 쓰건 상관하지 말아야 돼."

한암은 궁한 살림을 염려한 나머지 벌써 하안거 대중들의 반찬거리를 걱정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혜암은 상원사 대중들이 짠 김치 한 가닥의 힘으로 동안거와 봄 안거를 무사히 보낸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 절이 어렵고 가난하기에 더욱 오롯이 정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혜암 수좌, 화두는 잘 들리는가."

"저는 화두 드는 것보다 장좌불와가 쉽습니다."

"화두가 머리에서만 노는구먼. 그 화두가 가슴으로 내려가고, 온몸으로 내려가 자기와 일체가 될 때가 있을 것이네.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정진하게."

"그것을 독로(獨路)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은 중요하지 않지. 목숨을 바쳐도 되겠구나 하고 확신이 들 때가 있어. 그게 득력(得力)이네."

다음날 혜암은 점심공양 중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주앉아서 수수밥에 김치를 먹고 있던 구참 수좌가 고개를 저었다.

"이 김치는 짜다 못해 소태 같구먼."

"그래도 저는 상원사 김치가 부럽습니다."

"부럽다고 했는가."

"상원사 김치처럼 제 몸을 화두로 절이고 싶습니다."

구참 수좌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내가 혜암 수좌에게 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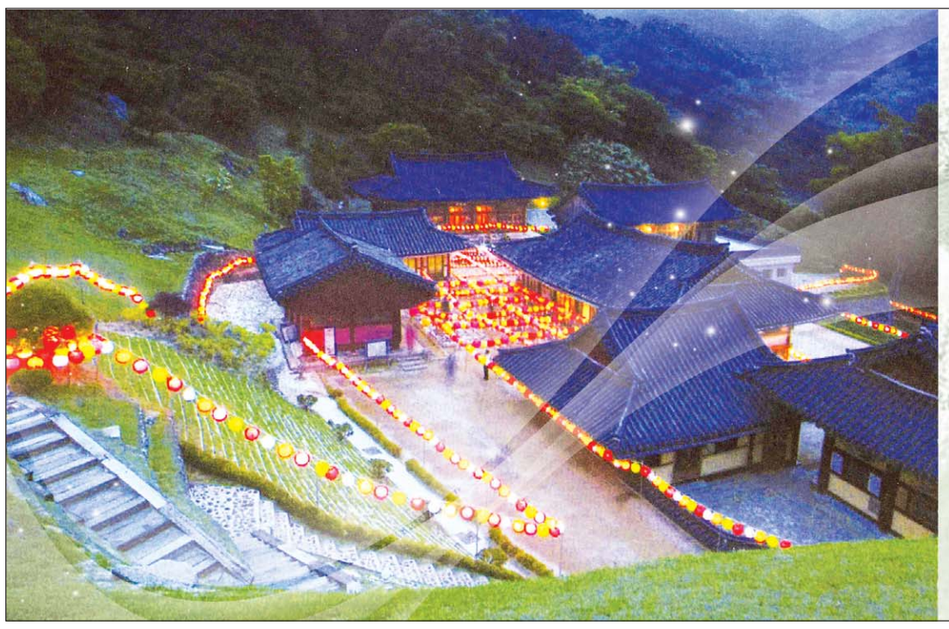
"스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국의 동산 스님이 '나는 항상 불도에 전력투구한다'고 말씀하셨네."

구참 수좌가 조용하게 말했다. 선가에 전해지는 '참외는 꼭지까지 사무치게 달고 쓴 박은 뿌리까지 쓰다'라는 법어를 가지고 얘기했다. 참외가 단맛을 내고, 박이 쓴맛을 내기 위해 악착같이 덩굴을 뻗고 사는 것처럼 사무치게 정진하라는 당부했다. 구참 수좌는 혜암 수좌가 상원사 김치처럼 정진하겠다는 말도 그런 뜻으로 이해했다.

"내가 혜암 수좌의 말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으니 졌다는 말이네."

혜암은 무심코 말했으나 구참 수좌는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한암이 한밤중에 소금을 한 바가지씩 뿌린, 짜다 못해 쓰디쓴 김치 때문이었다.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3시 ~ 29일(음 6.8) 3시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이어 배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수지를 말지어다.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혜암 대종사 법어 –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농업인의 꿈을 소중히 키우는
서서울농협

농촌에 희망을
고객에게 행복을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으로
NH 서서울농협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미래를 향한 더 큰 생각 NH NongHyup

서서울농업협동조합

본 점 | 주소 :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전화 : 02)302-4321~3

연수원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544-4
전화 : 031)582-9912

하나로 | 본점 302-1125 신사 388-8925
마 트 서강 3144-5253 사직 725-4021

NH 서서울농협

망 원 지 점 | 338-6711
신 사 지 점 | 388-8921
홍 은 지 점 | 394-0133
상 암 지 점 | 375-2762
연 서 지 점 | 383-3045
갈 현 지 점 | 383-4471
수 색 지 점 | 376-0315
홍 제 지 점 | 732-2892
홍대역지점 | 337-6896
광흥창지점 | 324-2031
연 희 지 점 | 326-3961
사 직 지 점 | 725-4571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미륵종

宗正(代行) 滿岩 松亭 大宗師

總務院長	尹松亭	총무부장	李道沇	서울경기원장	金慧能
中央宗會議長	元慧月	문화부장	蔣永敏	충청교구원장	金慧草
선원장	朴德運	사회부장	姜永雲	경북교구원장	金一海
敎育院長	金景寶	교육부장	金法正	경남교구원장	田法日
布敎院長	權摩訶	호법부장	李永成	부산교구원장	趙慧珉
比丘尼院長	鄭東星	규정국장	黃慧權	호남교구원장	李慧潭
중앙법우회회장	金慧草	조사국장	全永仁		
중앙비구니회장	嚴慧蓮	사회국장	金一松		

사회복지법인 미륵원

◆ 미륵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11-11
◆ 종단법인사무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 (관음정사)
☎ 02)351-3679 / FAX 02)359-3605 / 홈페이지 www.mireuk.org ☎ 대표전화 055)345-4741 / FAX 055)345-4743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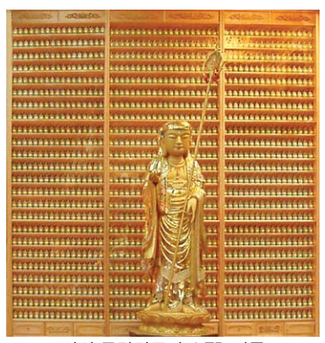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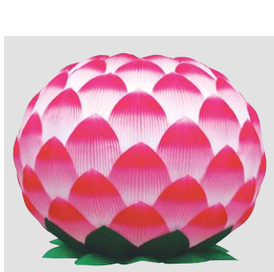
천안 동심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단등


영가등

종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3

평등과 중도를 실천해야

[원문]
수선운산천만사(雖宣雲山千萬事)
해천명월본무언(海天明月本無言)
황앵상수일지화(黃鶯上樹一枝花)
백로하전천점설(白鷺下田千點雪)
–쌍계사 삼성각

[번역]
산의 구름처럼 천만가지 법문들을 비록 설하였으나
저 바다와 하늘, 해와 달은 본래부터 말이 없네.
나무에 앉은 노란 꾀꼬리 한 송이 꽃이요
밭에 내려앉은 백로는 천 송이 눈꽃 같네.

[선해(禪解)]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단군 이래 배달민족, 단일민족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요즘, 이런 말이 무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 있다.

종교적 측면도 마찬가지이다. 불교가 1,700여 년 전 고구려 소수림왕 때에 들어온 이래,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 한국에 들어온 종교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다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의 우월성을 논하거나 서로의 종교를 폄하하는 발언은 잘못된 시각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모든 종교의 이념은 사랑과 평화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서로가 가진 종교에 대해 각자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다. 우린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에 내가 살다가 죽는 날도 오늘이요, 내가 다시 태어난 날도 바로 오늘이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일찍이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하셨으며 악명 높은 인도의 사성계급제도를 타파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 또한 모든 이들을 품속으로 안으시며 평등과 중도(中道)를 실천하고자 했다.

중도란 과하지도 않고 또한 모자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중도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념에 대해 한 발 물러나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믿는 종교가 좋다. 네가 믿는 종교가 좋다'는 그릇된 믿음보다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서로의 종교를 존경하고 이해 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종교적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다문화, 다민족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처님이 계시던 인도 당시, 어느 외도의 모임에 가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외도들은 갖은 욕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부처님은 그들의 욕설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문을 하시고 난 뒤 외도들이 차려 둔 음식을 들지 않았다. 이때 외도들은 부처님께 "왜 차려 놓은 음식을 들지 않는가?" 하고 물었다.

그 때 부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대로 두면 누구의 것이 되는가?"하고 외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외도들은 "당연히 음식은 차린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럼, 남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의 그 욕설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순간 외도들은 큰 뉘우침을 받아 욕설을 거두고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도 남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이념에 대해 한 발 물러나 생각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항상 가져야

이 세상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정신은 바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삶이다.

주련 여행을 하기 전에 산승(山僧)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찰 속에 담긴 주련의 내용들이 모두 부처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 속에는 종교의 편향도 종교의 이념적 가치관도 없으며 오직 종교적 삶만이 담겨져 있다.

쌍계사 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벚꽃 십리'이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하늘 물빛 머금은 하얀 잎사귀들이 날리기 시작한다. 하동 입구부터 화개장터까지 이어지는 십리 길은 그야말로 장관으로 4월 초순이 그 절정이다.

쌍계사는 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이다. 신라 문성왕 때 진감선사(眞鑒禪師) 최혜소(崔慧昭)가 세웠다. 처음에 옥천사(玉泉寺)라고 부르다가 헌강왕(憲康王) 때 한 고을에 같은 이름의 절이 두 개가 있어 혼동을 일으켰으므로, 문전에 흐르는 쌍계에 연유하여 쌍계라는 호를 하사(下賜)하고 학사(學士) 최치원(崔致遠)으로 하여금 '쌍계석문(雙磎石門)'의 4자를 쓰게 하여 바위에 각자(刻字)하였다. 그 후 두 차례나 화재로 절이 소실되었으나 조선인조 때 벽암(碧岩)을 비롯한 여러 승려들에 의하여 복구 · 중수되었다.

경내에는 국보 제47호인 진감선사대공탑비(眞鑑禪師大空塔碑)를 비롯하여 보물 380호의 쌍계사 부도(浮屠), 보물 제500호의 대웅전 등의 지정문화재가 있고, 이 밖에 5층 석탑 · 석등 · 일주문(一柱門) · 팔상전(八相殿) · 명부전(冥府殿) · 천왕문(天王門) 등이 있으며 중국의 승려 혜능(慧能)의 두상(頭像)을 봉안했다는 금당(金堂)에 있는 육조정상탑(六祖頂相塔)과 나한전(羅漢殿) · 금강전 · 칠불아자방(七佛亞字房) · 마애여래좌상(磨崖如來坐像)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지리산 쌍계사 삼성각에 새겨진 주련은 부처님의 무한법문의 위대함을 설하고 있다. 이 법문들은 부처님의 무한공덕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산의 구름처럼 천만가지 법문들을 비록 설하였으나 바다와 하늘, 해와 달은 본래부터 말이 없네.'

산과 구름은 무한하다. 이처럼 부처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문들을 설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바다와 하늘, 해와 달이 말없듯이 묵묵하게 우리의 몸속에 젖어 들어있다. 하지만 그 무한 법문의 공덕을 우리는 한없이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무에 앉은 노란 꾀꼬리 한 송이 꽃이요/ 밭에 내려앉은 백로는 천 송이 눈꽃 같네.'

이쯤에서 보면 부처님의 법문들은 마치 나무 위에 앉은 노란 꾀꼬리가 우는 소리와 같고 한 송이 벚꽃 같다. 나아가 밭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백로의 하얀 눈송이 같은 모습 또한 부처님의 법문이나 다름 아니다.

참으로 이보다도 더한 진리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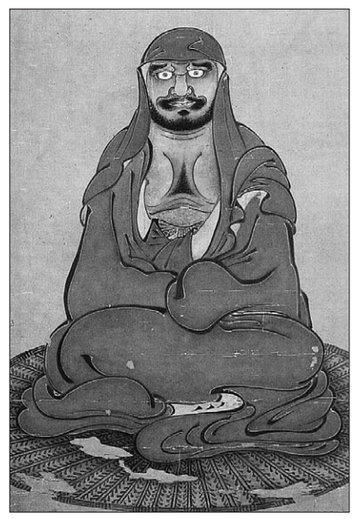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3

눈을 떠야 꿈에서 깬다

[원문]
自誑無益 縱有珍寶如山 眷屬如恒河沙 開眼卽見 合眼還見麼 故知有爲之法 如夢幻等 若不急尋師 空過一生然卽 佛性自有 若不因師 終不明了 不因師悟者 萬中希有.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이 없다. 진기한 보물이 산 같고 권속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눈을 떠야 보이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위법(有爲法)은 꿈이나 허깨비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그러므로 불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드물다.


日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달마도.

[해설]
수행을 통해서나 이론을 통해서 깨치지 못했는데 깨쳤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도 '깨치지 못했는데 깨쳤다고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건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일입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을 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주의 실상 그 자리를 모르고 법을 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 모두가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우주의 실상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다 부처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화신불(化身佛)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보물이 보이겠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보이겠냐' 하는 법문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눈을 뜨면 우주가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견성성불(見性成佛) 했다' 이렇게 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철스님께서도 마음의 눈을 뜨고 본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모두 관세음보살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겁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중생놀음은 유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위법(無爲法)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위법은 작용도 아니요 형상도 아닌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의 실상자리, 마음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자리는 모양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모양이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마음에서 보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육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착각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자리에 한 생각을 두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꿈 속에서 본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숨이 끊어지면 꿈을 꾸다 깬 것과 똑 같은 경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되돌아보면 꿈을 꾸고 깬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자리에 두고 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꿈속에서 깬 것이고, 한 생각을 놓치면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 놀음이다 이런 얘깁니다. 꿈속에서 본 것이 사실이 아니듯 지금 현실을 마음자리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모두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한 평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부처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간화선은 의심하라고 말하지만 조사선에서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우리가 십분 정진하면 십분 정진 한만큼 반드시 우리들 마음도 맑아지는 겁니다. 업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성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인데도 스승이 없으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본래 부처이지만 가르치는 분이 없으면 깨닫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처님도 금생에 온갖 고행을 통해 성불하셨습니다.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서 수없는 수행을 통해 견성을 했던 분이십니다. 견성을 했던 분이시지만 최종적으로 사바세계에 오셔서 완벽한 성불을 하신 겁니다. 견성은 삼십 겁 전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견성성불 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육신통(六神通)을 써서 걸림 없이 마음을 썼던 경우를 우리가 '성불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도(正道)와 외도(外道)의 수행으로 본분사(本分事)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듯이 부처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달마 스님 말씀은 조금도 헛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고 인격적으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리는 바로 본래 여러분들 마음자리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체(體)에서 보면 우주가 곧 하나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찾는 그 놈이 곧 우주와 하나라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십분 이십분 한 시간씩 행한다면 우리가 분명 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 하십시오.

■ 청주 혜은사 주지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종교법인 대한불교 三寶조계종
大僧(皇) 멸공 大宗師(초대종정)
僧正 태화 大宗師(2대종정) 宗正직대 비담 大宗師(3대종정)
元老院長 금산 大禪師 副宗正 총무원장 대행 고시원장 현각 宗師 호법원장 법천 禪師
법조고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 (전직 판, 검사) 법조위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 (전직 법원주사)
호법위원 법영. 영운. 법현. 지훈 고시위원 화륜. 마우. 광진. 법웅
총무원장 법장 사무총장 법경
종무위원 청조. 진묵. 보현. 보창. 청파. 평산. 석연. 무해. 지명. 법고. 건록. 이산. 도담. 법운. 성운. 청봉. 혜찬. 도묵. 도선. 도우. 도문. 성수. 성효. 성무
종회의장 청법 부의장 지우 종회의원 일동
감찰원장 법도 부원장 성안 교육원장 홍인 부원장 진묵 문화원장 정수 부원장 자혜
포교원장 우암 부원장 지공 무술원장 청도 부원장 보원 염불원장 원명 부원장 청산
중선원장 석장 부원장 화륜 복지원장 원각 부원장 경보 국제원장 남산 부원장 보성
건설원장 성담 부원장 보각
교구현황
서울교구원장 석원현 경기교구원장 석마조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법호
대구교구원장 석자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교구원장 석서암 울산교구원장 석도연 충남교구원장 석태륜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북교구원장 석일도 인천교구원장 석법영 중국교구원장 석정복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전 종도 일동
■ 종단총림 : 천년고찰(천명대중 수행처) 유학산 위봉사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삼보사 / 전화 055)338-0089
■ 승가대학 : 제2기 학인모집 (전문교수진-핵심교육, 단기교육, 실전교육) ■ 교학부 인가 전문교육기관

제2기 승가대학 학인모집
1) 기초강원 특수반 (초심, 발심, 자경, 치문, 의식학)
(불교학, 포교학, 경영학, 종교학, 복지학, 심리학)
– 강의요일 : 매주 목요일, 금요일
– 개강일자 : 6월 中 (대학 신입생 모집)
– 강의시간 : 120 – 240분
– 접수기간 : 2009년 5월 1일 ~ 31일
(전화 055-338-0089. 338-0050. 011-801-8197)
– 수료기준 : 80% 이상 출석 (특전 : 자격증 수여. 어산 범패과 진학)
2) 강의 일시 및 내용
대한불교 범종단 교육원 승려교육 기초강원 (한국불교승가대학)
· 제1강 : 기본승학 - 초심, 발심, 자경, 치문
· 제2강 : 기본의식 -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 제3강 : 기본의식 - 축원편, 장의편, 영반편
· 평가시험 - 봉사활동 - 특강
· 제4강 : 기본의식 - 천도편, 수계편, 법회편
· 제5강 : 본학 - 불교학, 포교학, 복지학
· 제6강 : 본학 - 종교학, 심리학, 경영학
· 평가시험-봉사활동-특강
· 총정리
· 졸업시험
· 수료식
교학부 인가 전문교육기관 한국불교승가대학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지혜로운 수행자는 장애물을 태우는
불처럼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 법구경

和諍平和中央教院
現代佛教曹溪宗

宗 正 碧雲 海光
副宗正 回天 性柱

總務院長 東華 漆桶

元老議長 慧正 石成　宗會議長 靑松 法性
糾正院長 東雲 慧圓　練修院長 法泉 海一

外 종도일동

화엄신도회, 포교사단, 만해불교대학. 만해학교

■ 총무원 : 보광사 (대전역광역시 동구 가오동 293-1 / 전화 042-283-5896)

(재)한국불교중흥교원
한 국 불 교 조 계 종



우리 모두 수행합시다.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우리 모두 화합합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불국정토로 만들어갑시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보 현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 보현선원 / 전화 : 032)518-1588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자운 청봉대종사

종정 사서실장 혜오

원로원장 덕신 운암　원 로 위 원 남곡 구담. 혜원
비구니원로위원 지성

중앙종회의장 도균 대현
총 무 원 장 월산 혜봉

중앙연수원장	김산 법전	중 앙 선 원 장	현덕	교 육 원 장	지오
교 육 부 원 장	월오	비 구 니 원 장	아산	비구니부원장	정혜
법 사 위 원 장	성혜	법 사 위 원	보광. 염상. 이광해. 이경희		
감 찰 부 장	운오	재 무 부 장	법련	문 화 부 장	운산
기 획 부 장	일봉	기 획 국 장	도경		
경남종무원장	석봉	경북종무원장	호상 묘원	울산종무원장	능현
마산종무원장	덕도	전북종무원장	도암	경기종무원장	호산
통영종무원장	짐은	경남포교국장	원공	경남양산포교부장	지웅
경기포교국장	도현	대전포교국장	법해		

현오. 운산. 성현. 혜오. 병옥. 해명심. 연화심. 해공법사. 정태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연봉사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 정 홍인 법정 예하

총무원장 혜상　호법원장 청담　포교원장 금담　비구니원장 해광
총무부장 금오　재무부장 대원　사회부장 벽암　포교부장 도법
대구교구원장 종범　경남서부교구원장 경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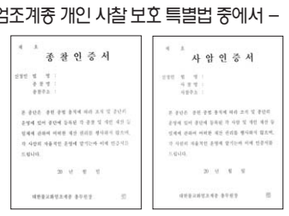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권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종주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창종주 011-228-7813

불기 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月出山 道岬寺

주지 월우
신 도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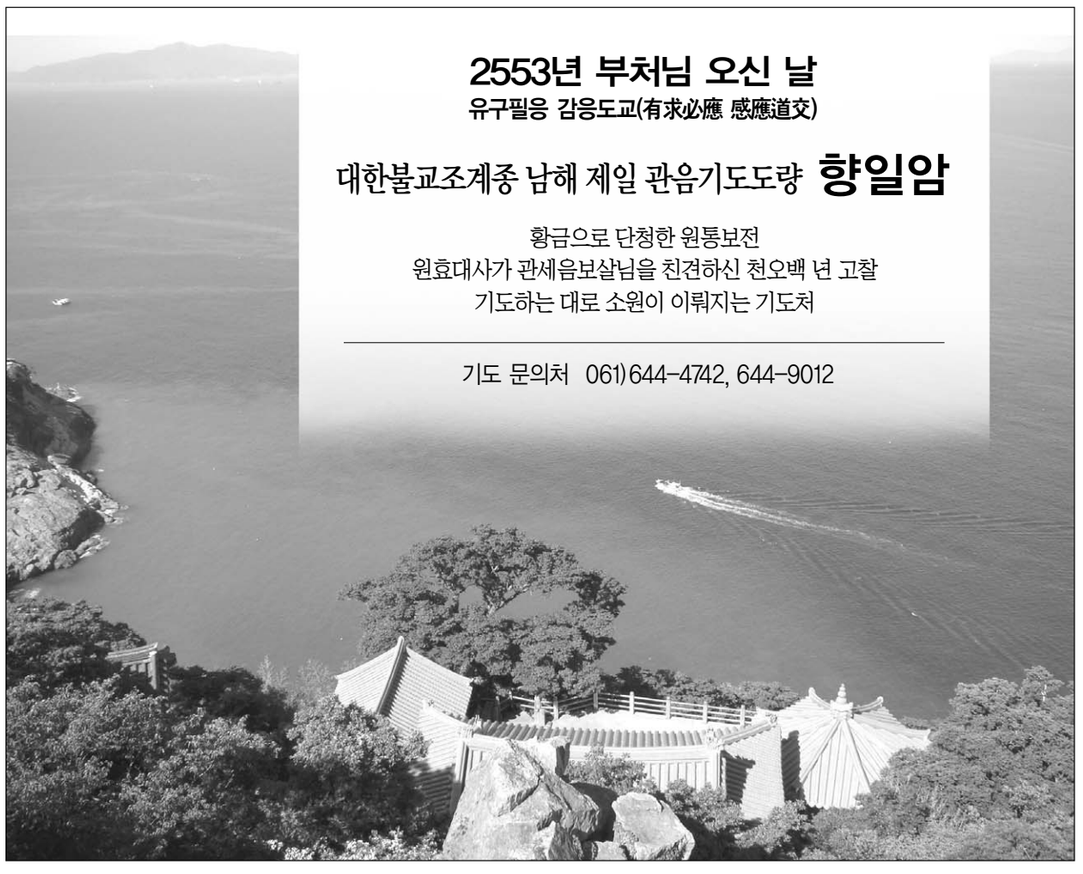
- 도갑사 템플스테이

일반 - 매월 2,4주 토,일요일
낙도(섬)어린이 초청 템플스테이
여름 방학을 이용해 낙도 어린이를 초청해 불교문화와 좌선, 명상, 수영, 한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민족의 긍지를 심어줍니다.

- 참가비

가족형 (4인기준) : 10만원
청소년 : 3만원(낙도 어린이 템플스테이는 무료)
일반(성인) : 4만원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전화 061)473-5122 www.dogapsa.org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유구필응 감응도교(有求必應 感應道交)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도량 **향일암**

황금으로 단청한 원통보전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신 천오백 년 고찰
기도하는 대로 소원이 이뤄지는 기도처

기도 문의처 061)644-4742, 644-9012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3>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⑨

여래행은 법신 반야 해탈덕 동시에 갖춰

行如來行 入如來室 著如來衣 坐如來座 則以如來莊嚴而自莊嚴 獲得六根淸淨 入佛境界 於一切法無所染著 一切佛法皆現在前 成就念佛三昧

여래행을 행하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고,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는다면 여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여 육근이 청정함을 얻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 일체법에서 번뇌의 오염과 집착이 없게 된다. 이때 일체 불법이 모두 목전에 나타나 염불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이 문장도 역시 경전에서 인용하여 그 공덕을 찬탄하고 있다. 앞에서 원돈지관을 닦아 대승에 안주하면 생각 생각이 살바야해로 흘러들어간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여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여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여래의 하나의 행은 여래행 아닌 것이 없어 하나의 행이 일체행이며 일체행이 하나의 행인 것이다. 수행자가 이 경지에 도달하면 그 행이 여래와 같기 때문에 여래행을 행한다고 말한다.

여래의 옷은 인욕과 유화이며, 여래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적함이며, 여래의 집은 대자비이다. 이를 다시 분별하면 동일하지 않다. 대자비의 집은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측면에선 법신에 해당되고, 중생을 교화하는 편에선 해탈에 해당되고, 중생을 동체대비로 귀결시키는 것은 반야라고 한다.

인욕의 옷이란 가리고 덮는다는 의미이다. 가령 인욕의 주체의 편에서 말한다면 반야이고, 덮는 대상은 법신이며, 중생수준에 맞추어 제도하는 것은 해탈이 된다.

모든 법의 공한 자리에 앉는 것도 앉는 주체와 앉는 대상이 있다. 앉는 주체는 반야이고, 앉는 대상은 법신이며, 몸과 좌석이 그윽이 하나로 합하면 해탈이 된다.

경전에서는 "여래는 옷으로서 덮는다"라고 하였고 또 "어깨에 짐을 걸머진다"라고 하였으며 다시 "여래와 함께 잠을 잔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총체적으로 성인들이 자리이타를 실천하는 편에서 여래의 집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화문구(法華文句)에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자비가 으뜸이고, 현실세계를 살아가는 데는 인욕이 기초가 되며, 설법의 근본은 아집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일체 선법은 자비가 근본이고 인욕이 제일이며 도는 분별상이 없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하였다. 이 모두는 여래의 집에 갖추고 있는 활동능력에 대해 밝힌 것이다.

지금 수행자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집으로 들어가 여래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생각 생각이 성인의 부류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범부나 소승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여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는 것이다.

여래의 장엄은 복과 지혜의 두 가지 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육바라밀은 장엄하는 주체이고, 법신은 장엄의 대상이며, 주체와 대상이 두 모습이 아닌 것은 오묘한 장엄이다.

이를 지관의 편에서 본다면 일심삼관(一心三觀)은 장엄하는 주체이고, 일경삼제(一境三諦)는 장엄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부처님은 대승에 안주하여 그가 얻은 법에 걸맞게 정혜력으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의미에 해당된다.

말세중생은 일심삼관을 수행하여 여래의 행을 행함으로써 여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려 하지만 근기가 천박하여 이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염불수행을 한다면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 있다. 염불할 때에 일심삼관으로 염불하는 마음이 공적하면 공관에 해당되고, 염불대상의 부처님이 분명히 떠오르는 것은 가관이고,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닌 것은 중도관이며, 염불이 일심으로 혼란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일심삼관이 자연스럽게 목전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에 생각이 말과 같고 말이 생각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여래행을 행하는 것이다.

염불할 때에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외부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욕행을 행하는 것이 되며, 염불할 때에 자리이타를 발원하면 이것이 대자비의 집이 되며, 염불할 때에 생각 생각이 부처님과 서로 호응하여 일체가 공이라고 관찰하고 티끌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여래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

아미타는 무량광과 무량수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무량광은 지혜의 덕으로 장엄한 것이며, 무량수는 복덕으로 장엄한 것이며, 무량광과 무량수가 두 모습이 아닌 것은 오묘한 장엄이다.

한 구절의 아미타로 여래의 행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여래를 장엄한 것이며, 한 구절의 아미타는 마니보배와 같아서 면면이 모두 원만하며, 한 구절의 아미타는 감로수와 같아서 방울방울 단맛이 난다. 명철한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시험해보기 바란다.

육근청정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우리 중생들의 안근은 물질경계에 오염되고 이근은 소리경계에 오염되고 의근은 법진경계에 오염된다. 따라서 보는 것은 색을 초월하지 못하고 듣는 것은 소리를 초월하지 못하여 육근 모두가 청정하지 못하다.

가령 수행인이 원교의 십신(十信)가운데 최초의 신심위에서 삼계내의 견혹을 단절하면 진리가 드러나고, 두 번째 신심위로 부터 칠곱 번째 신심위까지 이르면 사혹을 끝까지 다 끊고 삼계육진에 오염되지 않는다. 이때에 육근이 상호간에 걸림 없이 작용하여 안근은 색경만 볼 뿐만 아니라 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설근은 맛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법진까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근이 청정하여 부처의 경계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부처님의 경계는 공가중 삼관으로 삼제의 이치가 원만한 대적멸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 싶다면 의식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또 "세간을 관찰하기를 꿈속의 일처럼 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일체법에 오염되거나 집착이 없는 것이다.

일체의 좋은 경계에 탐애심을 일으키지 않고 일체 악한 경계에 증오심을 일으키지 않아 호오가 평등하고 증오심과 애착이 한결같다는 것을 명료하게 통달해야 된다. 이때에 일체 불법 모두가 목전에 나타나게 되어 염불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일심삼관으로 생각 생각 부처님과 상응하여 크게 자유자재한 경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일체 경계에 탐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호오가 평등하고 증오·애착심 한결같아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수행위차(修行位次)

(4) 수습위(修習位)

⑦ 원행지(遠行地)

앞에서 제법은 인연으로 생기한 무상(無常, 연기즉공)의 이치를 심오하게 관찰하였으므로 일체의 외부경계는 마음을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이 같은 무상의 이치에 안주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인위적인 수행력을 의지해야만 이 선정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행위는 진여의 이치를 깨우친 측면에선 이미 구경의 무위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 수행이 유위로 유지될 뿐입니다.

⑧ 부동지(不動智)

무분별지가 인위적인 수행력 없이도 임의로 상속하면서 안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과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양에도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부동지라고 합니다. '무성론(無性論)'에서는 이 경지를 두고 "일체의 유상(有相)과 일체의 가행(加行)이 이 경지의 마음을 요동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⑨ 선혜지(善彗地)

이 수행지에선 네 가지 걸림없는 완전한 지혜, 사무애해(四無碍解)를 성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애란 첫 번째는 일체법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법구(法句)를 명료하게 아는 법무애해(法無碍解), 두 번째는 일체법의 의미를 장애없이 알기 때문에 의미[義相]를 통달하는 의무애해(義無碍解), 세 번째는 표현하는 언어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일체의 언사를 분별하는 사무애해(辭無碍解), 네 번째는 변재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변설하는 변무애해(辨無碍解) 입니다. 이 지혜는 오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선혜지라고 합니다.

⑩ 법운지(法雲地)

이 수행지는 항구하게 진여법성에 안주하는 대법신(大法身)을 증득하여 자유자재함을 빠짐없이 갖춘 경지입니다. 따라서 이 경지는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자유자재한 이익의 작용을 온 대지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운지라고 합니다. 이 같은 십지는 유위와 무위의 공덕을 빠짐없이 포섭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 성질을 삼습니다. (참고 <성유식론> 제9권)

제십지 가운데서 최종의 마음인 출심(出心)은 마치 일체의 사물을 끊고 파괴할 수 있는 금강(金剛)과도 같으므로 이를 비유해서 금강심(金剛心)이라고 합니다. 이 출심은 선정력이 특수하기 때문에 금강유심(金剛喩定)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등각위(等覺位)를 말합니다. 이 금강심의 무간도(無間道)에서 아직 미처 끊지 못했던 모든 유루번뇌의 종자를 찰나에 단박 끊고 이로부터 극과(極果)인 불과를 증득하여 수행위차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구경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張如舟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참회의 마음으로 종도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정대행 지도

원로의장 범아
원로의원 청산 무량 비담 무안 월우 호당
법계고시위원장 보각
총무원장 능인
중앙종회의장 만봉
호계원장 해천
교육원장 법승
포교원장 법륜
사정원장 정진
문화원장 호암
중앙선원장 지공
연수원장 장원

총무부장 보문
재무부장 도안
교육부장 도율
기획부장 동법
사회부장 지명
포교부장 혜천
감찰부장 무변
문화부장 도명
규정부장 대웅
호법부장 자은
비구니부장 해덕

사서실장 혜각
예경실장 진여
감찰국장 혜오
문화국장 호산
조사국장 원당
법사위원장 인황
서울종무원장 혜운
경기종무원장 용산
강원도종무원장 정광
경남종무원장 도문

- 중앙종회의원 -

도천. 정도. 호암. 묘법. 도법. 지도. 진만. 지우. 보타. 홍일. 석강. 주현. 혜성. 성월. 혜명. 정인. 수공. 법천. 보명. 정산. 남호. 무안. 법성. 일봉. 덕운. 여래. 지호. 법공. 권해. 상호. 혜원. 원각. 정호. 도신. 만공. 혜공. 해광. 도각. 법운.

* 저희 종단은 대한불교연합조계종과는 무관한 종단임을 밝힙니다.

■ 총무원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 대승사
■ 행정실 : 053)325-5288 / 종무실 : 010-2013-0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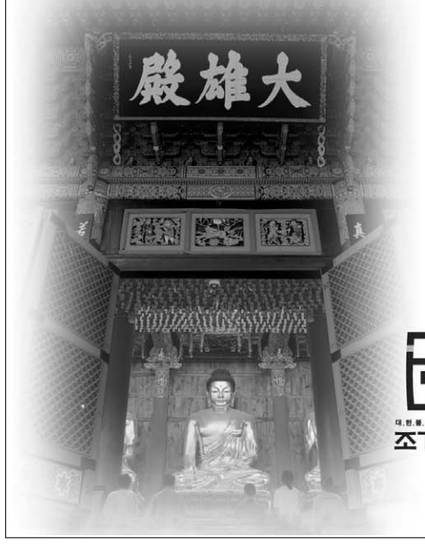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현명한 이는 마음을 잘 다스린다.
잘 다스린 마음은 행복의 근원이다.
- 법구경

2553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제8차 철야 100일 기도 입재
5월 12일(음 4.18) 화요일, 저녁 8시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계사주지 수 봉 세 민
상임고문 덕 암 구자선
신도회장 대각심 이연숙
조 계 사 사부대중 일동
합장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15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인터넷 검색엔진 조계사 검색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남 전 기획국장 성 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덕 조 포교국장 덕 본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데이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興寺



회 주 설악무산
운영위원장 도 후
부 주 지 우 송

총무 동선 기획 홍구 교무 현담 재무 홍현
포교 지상 사회 일도 호법 일해

- 신흥사 향선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회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원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연꽃어린이집
· 춘천실비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시노인복지회관
· 금강장애인보호소

www.sinhungsa.or.kr

신흥사 대중일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033)636-7044, 7393 / FAX 033)636-7556

(봉)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2553 부처님 오신날 Buddha'sBirthday (축)

대한불교 조계종
제 5 교구 본사 법 주 사



불기255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개인과 가정, 사회 그리고 지구촌 형제 모두에게 거룩한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여 환희와 복된 삶 얻으시길 일심축원 합니다.
호서제일가람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사부대중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주제로 성스러운 봉축행사를 갖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봉축관등종류 : 일년등, 영가등, 연등, 만월등, 팔모등

봉축행사 안내
· 일 시 : 2009년 5월 2일 (음력 4월 8일)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앞

◇ 봉축 행사 일정표 (봉축당일) ◇

◀ 제 1 부 ▶
10:00 - 10:20 음성공양(예술인 불자회)
10:20 - 10:50 악대연주
10:50 - 11:00 명종(28타)
11:00 - 12:00 봉축 법요식 / 탑돌이 (식순 참조)
12:00 - 13:00 오공

◀ 제 2 부 ▶
14:00 - 15:00 악대연주
15:00 - 16:00 음성공양
16:00 - 17:00 풍물놀이(속리산농협풍물단)
17:30 - 18:30 석 공

◀ 제 3 부 ▶
18:30 - 19:30 법고 · 명종 · 예불
19:30 - 20:00 민족화합 · 세계평화기원 점등식 (식순참조)
20:00 - 폐식

■ 접 수 처 : 원주실, 경내각전각 및 전화접수 가능. 계좌번호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안내문의 : (043)543-4755 (원주실), 543-3615 (종무소)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대한불교 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 화 사

조실 진제 법원
주지 남명 허운

대 중 일 동

신도회장 김석순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
Fax (053)985-4405
www.donghwasa.net

노인전문요양원 동화사 자비원
치매, 중풍, 전문노인요양
☎ 053)985-2115 Fax 053)986-2115
http://cafe.daum.net/jabihappy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 지 돈관
특 보 장적
부주지 선광
기획국장 성산
교무국장 원조
재무국장 혜안
포교국장 선주
호법국장 보림
사회국장 혜담
연수국장 대웅
사서실장 덕림
불교대학 교학처장 동인

문도대표 혜인
관 장 돈명
도 감 혜휴
원 주 석담

은해사승가대학원
원장 요산지안
교무처장 정인

사 부 대 중

♣ 노인장기요양 지정기관 은해사 포근한집 054)335-3314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 림 장 054)335-3318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 FAX 054)335-0293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길
모른다면 지혜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
- 법구경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지 성타
관장 종상
학장 덕민
선원장 종우
부주지 장주
총무 종천
기획 정문
교무 정수
재무 종천
사회 각천
포교 성요
호법 종민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 (불국사부설 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사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봉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축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송암 혜승
주지 남전 호성

총무 등운 기획 지현
교무 성공 재무 도륜
사회 등목 호법 정우
포교 용담
템플스테이 연수국장 지견

고운사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성민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탄하

※ 둘째주 넷째주 토,일 (1박 2일)

사부대중일동

홈페이지 www.gounsa.net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116번지 전화 054)833-2324 / 팩스 054)834-6935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미륵근본도량 **모악산 금 산 사**



회주 태공 월주
주지 벽산 원행
부주지 원광
총무 원혜
기획 덕산
교무 대명
재무 보순
사회 석문
호법 원성
포교 덕림
신도회장 김백호

신 도 일 동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전화 : 063)548-4440~2 / 팩스 : 063)548-1390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 엄 사

조실 도천 도천
문장 혜광 종산
선원장 장월 현산
주지 포월 종삼

부주지 영관
기획국장 덕문
총무국장 일문
재무국장 우석
사회국장 성문
교무국장 우화
포교국장 대요
호법국장 대진

■ 주소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번지 전화 061)783-760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지 법만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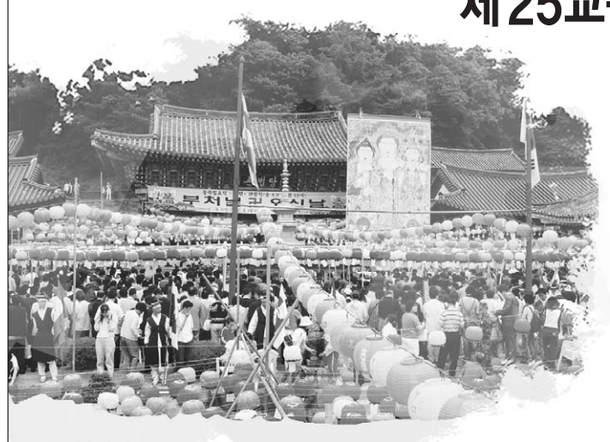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봉축행사안내
- □ 봉축법요식 10시 30분
- □ 보은염(1,500년을 이어온 은혜깊은 소금) 공양 및 마당극 공연 오후 1시
- □ 어울림마당 오후 2시(노래자랑, 전통놀이 및 마술공연)
- □ 탑돌이 저녁 7시
- ◆ 고창군민과 함께하는 일일장터(은행나무 주차장 터)

■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전화 063)561-1422 홈페이지 http://www.seonunsa.org

---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제25교구 본사 奉 先 寺



조실 월운 해룡
회주 밀운 부림

주지 인묵 부주지 해송

총무국장 보인
교무국장 지환
재무국장 보관
사회국장 법원
포교국장 지견
호법국장 환적
종책실장 혜림
문화원장 왕산
문화국장 지학

부설기관
- 연꽃유치원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희망케어
- 남양주시 시니어클럽
- 남양주시 청소년 일시쉼터
- 남양주시 지역아동보호센터
- 구리시 장자어린이집
-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 구리시 실버인력뱅크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전화 031)527-1956 / 팩스 031)527-1958
http://www.bongsunsa.net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야

매달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해 왔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전에 법회가 있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지나 않나 하고요. 그러나 한편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백일기도도 하고, 또 삼천 배도 하고, 백팔 배도 하고, 이렇게 며칠 지내는 거는 그렇게 분잡하게 생각 안 하고 모두들 하는데 하루 동안이야 어떠랴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어려운 게 없지만 하기 싫은 거를 하려면 단 일분일초도 힘이 들죠.

그리고 또 이 달은 어린이 달도 되고 어버이 달도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 놓은 날이 5월달이니만큼 옛날에…,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아님이 없노라고. 그것은 왜냐하면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거듭거듭 진화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거쳐 왔기 때문입니다. 수억겁 광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 오면서 거듭거듭 돌아 나왔으니 지금 현생의 어머니 아버지만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부모를 남의 부모로 생각지 말고, 내 부모 아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모두가 모자랐을 때의 내 모습과 같고 내 생명 같죠. 더 자세히 말한다면, 여러분 몸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생명과 의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그 생명들의 집합소며 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할 수 없으니만큼 될 수 있으면 내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하면서 내려온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 몸속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 자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는 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남의 집을 아무렇게나 굴려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죠.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서 이렇게 형성된 몸뚱이를 자기 몸뚱인 줄 알고 착각하고 아무렇게나 굴린다면, 그것은 일체 만물에게도 미안한 점이지만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됐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되고, 그 모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부모한테 정자, 난자를 받은 은혜, 그것에도 보답이 아니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상시 생활 속에서 '부모는 항상 자식들한테 단점을 보이지 말라. 자식의 탓을 하지 말라. 부부지간에 서로서로가 내 탓으로 돌려야 한다. 내 탓으로만 돌린다면 언제나, 싸우는 일이 없고 화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은연중에 자식들이 배운다. 효도를 강요하거나 잘살라, 올바르게 말하라, 올바른 행동을 하라 하고 강제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 위에서 스스로 함으로써 은연중에 자신들도 그렇게 물이 들어가고, 그렇게 배워 나가고, 그렇게 다지고, 그렇게 지니고 행동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형성시킬 때엔 바로 자기 종자를 자기가 형성을 시키고 자긴 껍데기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깻조자리가 깨를 내놓고, 깻조자리는 없어지고 깨가 심어져서 다시 깨싹이 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자식이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말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그걸로써 자기의 재산이든 마음이든 몽땅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참 기특하고, 말 안 해도 그렇게 해 나가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 부모한테 들면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또 부모가 생각을 해 주는 그 은혜는, 항상 생각을 내면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대로, 가고 옴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 되고 통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빚진 게 없이 서로가 갚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못된 짓만 하고, 엉뚱한 데다 돈을 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해서 빚을 지게 되니까 집을 팔아서 갚게 되고, 이렇게 해서 끝끝내…. 한두 번은 그래도 자식이니까 감싸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내버린 자식과 같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난 자식이 있죠. 자식이라고는 하지만 마음에서 이미 떠난 자식이요. 부모 마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하면 그건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럭더럭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을 시켜 드리는 것이 빚을 갚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그냥 '그저 저만하면 우리 자식은 됐어.' 이 정도로만 마음을 갖게 해 드리면 그게 효도입니다. 효자고 효녀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는 그 가정의 부모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효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도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는 종자에 따라서, 배기무우냐 장다리무우냐에 따라서 싹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안 그럴까요? 공을 들여서 1년을 묵혀서 배기무우로 만들어서 열무를 심으면 장다리가 앉지 않습니다. 무우만 덩그마니 생기죠. 그러나 그냥 잡종 무우씨를 심어 놓으면 열무가 나는데도 장다리가 삐죽하게 나와서 꽃부터 먼저 피죠. 그러면 그건 열무도 못 먹고 무우도 안 생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기 신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자식을 기르면서 너무 많은 단점을 보이고, 화가 난다고 애들한테 포악하게 하고, 그냥 귀찮아하고, 또 막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일이 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은연중에 속에 지니게 되고, 유전이 되고, 그대로 말로 나오고, 행동이 되고,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속담도 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이나 자식지간이나 이렇게 사시라고 항상 말씀해 드리죠. 부부지간도 자식지간도 모두 내 탓으로 돌려라. 못났든 잘났든 내가 생겨났으니까 바로 상대가 있고 자식도 있고 부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무슨 부부가 있으며 자식이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모두 있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지 어째 남의 탓으로 돌리십니까? 남의 탓으론 절대 돌리지 마십시오. 그대로 내 탓으로 돌려서 그대로 거기다 놓는다면 그냥 입력이 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 입력이 된다면 앞서 그 그릇에 입력이 된 것은 전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심성의학이며 심성과학이며 심성천체물리학이며, 모두가 마음이 아니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사대 성인들이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믿어라.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안다면 삼천 년 전도 알고 삼천 년 후도 알 수 있다.' 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삼천 년이라 하면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알 뿐만 아니라 미래도 알고 현재도 그냥 합해서 모두가 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정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정됨이 없이 그대로 여여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살림살이에 고(苦)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고가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없다고 생각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죠. 고정되게 움죽거리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고정되게 듣는 것도 없다. 그러니 어느 것 볼 때 내가 봤다고 하며, 어느 것 들었을 때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으랴. 어느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만났다고 하며, 어느 거를 할 때 내 몸뚱이가 했다고 하랴, 이런 소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제자를 뒀는데 그 제자가 "여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산에다 토굴을 짓고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가서 공부를 하되 남의 생명을 베지 말고…." 나무를 베지 마라 이 소리죠. "남의 생명이 있는 땅을 딛지 말고, 남이 짠 옷을 입지 말고, 남이 농사지은 음식을 먹지 말고, 일체를 먹지 말고 공부할 수 있으면 해라." 하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것이 더불어 같이, 안도 더불어 같이 살고 바깥도 더불어 같이 사는 공생(共生)이로구나!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체(共體) · 공용(共用) · 공식(共食)으로 사는 이 세상이로구나!' 하고 단념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주 감개무량해서 그때서부터는 남을 의식을 안 하고 내 마음과 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더불어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현재의 진리대로…,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내가 무엇이 돼서 한 철을 살았고, 무엇이 돼서 한 철을 살았고, 무엇이 돼서 한 철을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바로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다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찌 어떤 생명을 얕볼 것이며, 어떤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을 아니 하시겠습니까? 생각하면 천차만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천차만별로 모습이 다르고, 천차만별로 마음이 다르겠지만, 그 천차만별의 모습과 천차만별의 마음은 바로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이 나쁘니 좋으니, 잘못하느니 잘하느니,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느니,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느니 이러한 생각을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내 주인공에다 다 놓고 같이 한마음으로 하신다면,

☞A28면으로 계속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大 韓 佛 敎 曹 洞 宗

宗 正 智明 德瓚　僧正院長 怛帝. 德周
總務院長 大隱 德牛　中央監察院長 德性 行性　中央宗會議長 海倫 行峰

中央教育院長 光 慧
中央護法院長 慧 泉
中央布教院長 優 潭
禪院長 眞 一
中央律院長 雲 潭
中央宗會副議長 雲 性
中央宗會副議長 知 遠

서울宗務院長
京畿宗務院長 法 空
江原宗務院長 慧 覺
忠北宗務院長 日 長
忠南宗務院長 法 空
嶺東宗務院長 慧 空
慶南西宗務院長 法 光
慶南中宗務院長
嶺南宗務院長 慧 玉
慶北宗務院長 雲 鶴
南海宗務院長 淸 雲
釜山宗務院長 道 一

僧正副院長 心 月
僧正委員 圓 峰
僧正委員 法 空
僧正委員 慧 公
僧正委員 淸 潭
副院長 眞 法
總務部長 古 牛
財務部長 法 蓮
教務部長 海 權
糾正部長

社會部長 慧 山
監察部長 慧 明
布敎部長 素 圓
文化部長 月 峰
敎務局長 月 光
財務局長 淸 淨
社會局長 法 文
糾正局長 松 潭
文化局長 平 潭
監察局長 道 賢

■ 총무원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전화 02)2091-0408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광대한 정수 안에 들어 있어요

☞A27면에서 계속

한 종자니까 어머니는 살아생전처럼 지켜 주실 거고 아버지는 채찍질을 해서 나를 길러 주실 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거를 먹을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이상, 각자 내가 있는 이상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에 부모님과 같이 먹는 것이지 어떻게 따로 떨어져서 먹습니까? 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가 자기 종자를 뿌려 놓고서 성장이 되면 바로 자기 껍데기는 껍데기로 변해서 가지만, 그건 바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된 겁니다. 그게 둘이 아닙니다. 사시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조상의 탓이나 하고, 잘못되면 원망이나 하고 이럴 분들의 소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인은 지혜롭고, 소인은 소견이 아주 좁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이름을 갖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진리에 응(應)해서 나왔으니까 내가 사는 게 그대로 종교예요. 이 종교를 어떻게 굴리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느냐, 궁색하게 사느냐, 아주 어렵고 복잡하게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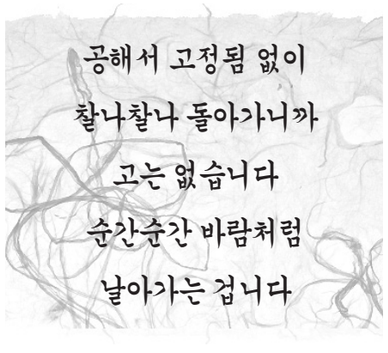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어렵게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생일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일이 돌아오면 저는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왜냐? 내가 거듭거듭 태어날 땐 부모가 돼 주고, 또 내가 어른이 됐을 때는 자식이 돼 주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바뀌어 가지고 자꾸자꾸 돌아가니까 부모를 헤아릴 수도 없고 자식을 헤아릴 수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부모의 배를 아프게 했으니, 하하하…. 그런데 내가 자식이 됐다가, 또 그 부모가 자식이 되고 내가 부모가 됐다면 역시 또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에서 제자리를 딛고 가는 거죠.

항상 갚고 넘어가고 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마음의 정수에 입력된 대로죠. 보통 컴퓨터는 입력을 해 넣어야만이 나오는 거지마는, 인간의 정수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 마음이 화(化)하고 나투어서 그 첨단에 이르고 있죠. 인간의 두뇌의 정수는 첨단을 넘어선 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정수라고도 할 수 있죠. 제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정신을 빼 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다면 정수를 빼 가는 거지, 정신을 빼 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수를 빼 가는 것은 빼 가는 사이가 없이 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죠, 지혜가 없을 뿐이지. 그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빼 가는 줄도 모르게 뺏기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우스꽝스러운 소리 한다 이러시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병에 대해서도, 어디서 온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치를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고, 생활 속에서 그대로니까 항상 열심히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타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자의를 믿어서, 반드시 그 정수에서 천차만별의 광대한 문제를 다 타개하라 이런 소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잘살게 해 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나 하면서 여기에 다니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등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계에서 광대한 정수를 가진 생명은 사람들밖엔 없죠. 상세계 차원으로 오르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중세계에서 맴도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절에나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나 하고, 절이나 하고 그러는 게 절에 다니는 신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도 없고, 불자라고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할



수도 없죠.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외계에서 우리 정수를 빼 간다거나 정자를 빼 간다거나, 그래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착잡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계를 따져 본대도 소국은 항상 강대국에게 끌려가면서 같이 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하든지 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마음을 과학자들한테 투입을 해서 그 과학자들이 잘 연구해서 그것을 대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진짜 보시고 보살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보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당이나 저기 요사채, 그런 것이 지은 지가 오래 돼서 갈라지고 썩어 내려가면 그건 헐고 다시 지어야죠. 그렇죠? 지구라고 해서 수명이 아주 영원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마음 안에서 나가야 할 문제인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광대한 정수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름 에너지니 무슨 에너지니 무슨 에너지니 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우리 차원이 높아야 보이지 않는 그 광대한 허공의 에너지를 꺼내 쓸 수가 있는 그런 도리가 생기지, 차원이 낮은 사람들끼리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꺼내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내다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억겁을 살아 내려오면서 눈물겹도록 아팠고, 눈물겹도록 먹혔고, 눈물겹도록 짓밟혔는데 어떻게 더 겪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내가 입으로만 그런다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일체 만물 만생의 마음도 다 알겠죠. 저런 나무들도요, 들판의 돌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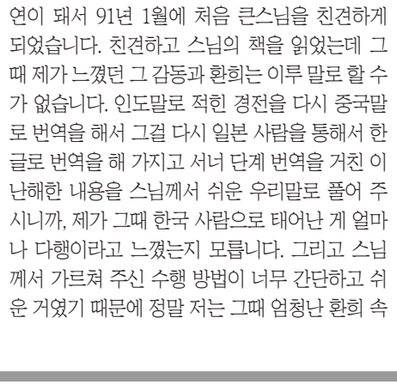
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구더기가 돼도 상관이 없고 고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그냥 애를 쓰고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떤 땐 하늘을 쳐다보곤 합니다. 누가 "스님, 어디 바람 좀 쐬러 가십시다." 해도 "어휴, 내가 바람 쐴 여유가 있나." 합니다. 그것도 못나서 그렇겠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바람 쐬고 웃고 지낼 수 있겠지만, 난 못나서 그런지 그렇게 좋아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가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고는 생각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왜냐? 공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 거니까 고는 없다, 이겁니다. 순간순간 바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괜히 마음으로 집착하고 붙들고 계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더기가 돼도 나는 고가 아니 되니까.' 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무슨 고가 됩니까, 그게. 껄껄 웃고서, '아하!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지는구나! 그렇게 져도 겨울 내내 가지가 앙상한 채 내년 봄에 잎이 피고 꽃이 필 때를 기다리면서, 저렇게 참을성 있게 떨고 섰구나!' 하면서 씁쓰레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것도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인생살이에 있어서 너무도 깊은 즐거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좀 받을까요?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데 알고 모르고가 없이 하세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열 사람이 배울 수도 있고, 모두가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시니까요.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심종회 소속으로 수원에서 조그마한 산부인과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하고 이렇게 인연돼서 이 공부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고 해서, 제가 공부라고 할 것도 없지만 말씀도 좀 드리고 평소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큰스님을 만나기 한 2~3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불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10년 전부터 당뇨병이 생겼고, 또 집안에 분란도 많았었고, 또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데도 수술을 하기만 하면 환자들이 아주 상태가 나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칼을 대기가 겁날 정도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



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삶에 대한 회의가 무척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술도 마시고 아주 분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지가 한 7~8년이 되는데 그때 저 혼자 경전을 구해서 읽고 여러 가지 불교 해설서를 읽고 나름대로 한 2년 동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아주 엄청난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라도 불법을 펴는 스님이나 법사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처님 세계나 불법이 다 참 좋고 가슴에 와 닿는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제 가슴에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승 삼보 경전,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봤지만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 건가를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도 없었고, 또 그때까지 통념적으로 나와 있던 게 참선이라든지 염불이라든지 간경(看經)인데 이런 거는 제 생각에 항상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쩐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에 사는 저의 작은 누님하고 인연이 돼서 91년 1월에 처음 큰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견하고 스님의 책을 읽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감동과 환희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말로 적힌 경전을 다시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걸 다시 일본 사람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을 해 가지고 서너 단계 번역을 거친 이 난해한 내용을 스님께서 쉬운 우리말로 풀어 주시니까, 제가 그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라고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행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였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엄청난 환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스님 말씀하신 거를 이해를 못할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행 방법 자체도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병도 이제 다 나은 거지.' 하고는 아무런 수행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 가을에 우연히 발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대개 이 무좀이라는 거는 습기가 많은 여름에 생겼다가 가을 겨울이 되면 좋아지는 건데, 11월경에 무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 무좀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무좀이 낫게 되면 주사를 끊으리라고 작정을 하고 무좀과 투쟁을 몇 개월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1월에 제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차를 저희 집 근처에 뒀는데, 운전을 한 3m도 못하고 경찰에 걸려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저는 직업이 산부인과 의사니까 밤낮으로 차를 써야 되는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서 저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래, 참 재수가 더럽다고 투덜대고 있었는데, 2월이 되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서로 막 싸워서 다나가고 잘못하면 병원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하고 있는데 3월이 돼서는, 제가 제왕절개 수술을 했었는데 아기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사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큰스님의 법력으로 그 아기가 다 완쾌가 돼서 지금껏 잘 살고 있습니다. 4월에는 자동차를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돼 있는데 검사장에서 합격을 받고 나온 차가 나오다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조금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주인공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주인공 자리에서 철퇴를 내려치나 보다.' 그래서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인슐린 주사 끊는 거를 5월에 그냥 단행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사 끊는 걸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뭔가 잘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사 끊고 얼마 안 돼서 소파수술을 했는데, 제가 소파수술을 수천 명을 했습니다만 처음으로 제 실수로 환자 자궁을 뚫고 창자를 다치게 됐습니다. 그때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큰스님 법력에 기대서 그 환자도 잘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靑昊堂 兩翼 大禪師 제3주기 추모법회

귀의 삼보하옵니다.
대승불교의 심오한 수행법인 불교금강영관을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무상이념을 실현하신 靑昊堂 兩翼大禪師께서 입적하신지 3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인연 따라 오고 감은 空華일 뿐이지만 남기고 가신 그 향기가 생생하여 문도들의 마음은 큰스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합니다.
이에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추모법회를 봉행코자 하오니 동참하셔서 법석에 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일 시 2009년 5월 3일(음 4월 9일) 오전 11시
장 소 범어사 청련암
문 의 청련암 종무소 (051)508-5164

■ 상 좌 : 정경, 고봉, 의정, 정산, 대일, 무구, 철암, 법찬, 목종, 서현, 강하, 월도, 안도, 응현, 탄욱, 광원, 송음, 구도, 가영, 행언, 훈암, 의신, 도관, 유신, 영우, 혜현,
■ 법 상 좌 : 인걸, 무착, 법성, 원우, 원욱, 지문, 성혜, 명궁, 광탄, 보일, 대암, 석호, 적운, 원명, 적연, 각현, 각명, 임하, 관일, 추암(이경재)

범어사 청련암 청호당 양익 문도회 일동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마음을 잘 다스려 선과 악을
모두 초월했다면 깨달은 이다.
- 법구경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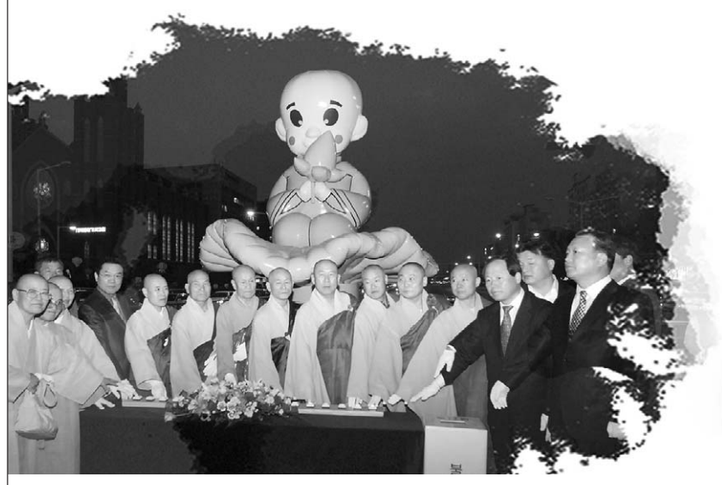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 전화 (02)734-9654~6 | 전송 (02)734-3410

대전 백제불교회관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



이사장 장곡

사부대중 일동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30번지 / 전화 042)471-5547 042)471-8214 팩스 042)487-3510

불법승 참된삶 실천운동(자비원)

석 문 사



주지 혜전

사부대중 일동

■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좌리 103-2 / 전화 043)264-3008. 011-9607-2199



한국불교 재단법인 선학원
충북교구본사

풍주선원

주지 덕일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http://www.pungjusa.or.kr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 / 전화 043)256-5586. 258-3199 팩스 221-4760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서울 관문사

주지 김영제

총무 김진철
재무 유대영
노전 윤덕준



신도회장 이금복
고문 권영철 권무원 배두출 백영기 송대현
지도위원 정유성 정기수 신선숙 최선화 방경자
부회장 김옥동 강숙일 총무위원 최재구
교무위원 윤을식 재무위원 이상원 김연옥 최현
조직위원 서양원 기획위원 오덕근
홍보위원 신연관 섭외위원 김진흡
부녀위원 이상임 사업위원 김광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전화(02)3460-5300 팩스(02)3460-5200 www.gwanmunsa.co.kr

봉)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축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보건복지가족부지정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임직원 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1동 305호 www.lisa.or.kr 전화 02)734-8050 / 전송 02)734-8052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이 몸은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쉽나니
이 마음을 튼튼하게 정비하라.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박종하
신도일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
TEL 063)433-0012
www.maisantapsa.co.kr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봉축행사기간 : 4월 14일 ~ 5월 2일
대중일동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216-2
TEL 031)755-0329, 721-0329
FAX 031)722-3761

불교교양대학
대 각 정 사
주지 해각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835-3
TEL 02)2699-6384

염불선 수행 정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성 원 사
행수 여강 주경
주지 정공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TEL 033)661-5736
http//www.sungwonsa.org
■ 성정사(포교당)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4-5 033)642-0142
■ 성원유치원 TEL 033)642-0142
sungwonkid.cafe24.com

대한불교조계종
탑골승방 미 타 사
주지 원호
사부대중일동
■ 서울 성북구 보문동3가 51
TEL 02)923-0492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현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진관
주지 계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 진관무위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백 화 사
주지 일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8-2
TEL 02)381-9103~4 / FAX 02)381-9105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이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회장 이상숙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북한산 노 적 사
주지 종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청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TEL 063)222-2555~6

대한불교조계종
안성 석 남 사
회주 원공 정무
원로위원
매월 첫째주 일요일 중심회 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번지
TEL 031)676-1444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지 대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불교교육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법주 대종사 무진장
이사장 안동일
신도회장 이종현 동산회원 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57-2
TEL 02)907-3706

운봉산 광운사 서울포교원
광 운 정 사
주지 청운
부설 광운불교대학
광운사 033)433-9108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87-10
TEL 02)381-8966

양초 · 고급향
연 꽃 양 초
대표 김동호 합장
■ 공장 053)811-5331

'청백원의 눈으로 찾아낸 고품격의 작품'
청 백 원
전시장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2가 46-1
■ 전화 053)253-1121, 256-7484

동성한약방
■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
전화 053)252-6411
053)255-0008

상품등록
미 수 타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하여
보이지 않은 곳에서
오래도록 경험많은 기술인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일동
주식회사 TG반도체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74-20
전화 031)792-8867 팩스 031)791-8871

대한불교 조계종
혜 국 사
주지 보천
신도일동
부설 꿈나무아동센터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
전화-054-571-0341

DCI(디씨아이)열처리
대표 김상진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345-7
포항 철강4단지 3B/7L
전화 054)276-1072(열처리), 276-1167
팩스 054)276-1168 휴대폰 011-503-9196

(불교용품전문)
삼 보 불 교 사
현진 이한득 합장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14
전화 053)257-7578, 256-0443
휴대폰 011-526-4058
www.sambobulgyo.co.kr



불자 세상보기

황 평 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문화재 도난은 예방이 최선

지난 3월 30일 밤 11시 50분,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괴전화가 걸려왔다. "남양주 별내면에 가면 석물이 있을 것이다" 딸깍. 발신처는 공중전화였다. 다음날 사범단속반은 남양주 별내면의 택지 개발지를 샅샅이 뒤졌다. 현장은 전날 밤 비가 와서 온통 진흙탕이었다. 아마도 전화를 한자는 이점을 노렸을 것이다. 한참 수색하다보니 푸른 천막 사이로 석조물이 보였는데 이것은 문경 김용사 '장로계성당공덕 불망비 귀부 1점'과 울주 '최진립 장군(조선 중기 무신, 1568~1636) 묘 장군석 2점' 등 11점의 문화재급 석조물이었다.

최근 문화재의 도난, 도굴은 문중이나 종택, 사찰 등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찰의 경외의 비석과 문중의 고서, 나무 판본과 묘지의 석물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석조물들은 개인의 정원석이나 몰지각한 수집가에게 팔려나가게 된다. 지금 전국에는 869곳의 고미술품 거래처가 허가되어 있다.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곳도 상당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도난 문화재를 불법으로 모집해서 거래를 하는 온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자진반납 형태를 취한 것도 사실은 문화재청의 사전 예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문화재청은 2002년부터 불법 도난, 도굴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신고 받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고 있으며 신고를 받으면 전국의 353곳의 기관(지자체, 일선경찰, 박물관, 고미술협회)등에 통보하게 된다. 문화재청의 통보를 받은 기관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게 되고 869곳의 고미술협회 가입 회원처는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가 원천 봉쇄되기에 이른다.

아마도 이번에 자진 반납한 자도 이러한 공개적인 활동에 의해 도난 문화재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에 찾은 문경 김용사 '장로계성당공덕 불망비 귀부 1점'은 신고 된 사진과 다르다는 점이다. 즉 반납한 자는 많은 도난품을 은닉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반납하다 보니 그 중 김용사 불망비와 비슷한 석조물을 반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직도 많은 은닉 석조물이 모처에 보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1점 중에 소장자가 확인되지 않은 6점(불망비 기단석 1점, 이수 1점, 석양 4점)은 소장자 확인 및 도난신고 처리를 위해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즉 아직도 도난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도난, 도굴 문화재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절대 우선이다. CCTV를 설치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 사찰경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석조물과 문중의 묘소에 있는 석조물이나 나무판본 등은 사진을 찍어두는 게 중요하다. 또한 예전과 다르게 경찰지구대나 지자체는 시, 도등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문화재청에 직접 도난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사진 자료가 결정적이다. 이번에 회수된 11점 중 6점이 출처를 모르고 잇다는 것은 아직도 1차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사후처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사범단속반의 실상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전국적인 문화재 사범단속반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그 중 2~3명은 내부 행정업무에 동원되고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2명 정도이다. 또한 불법으로 매매되는 고미술품의 70~80%가 서울에서 거래된다.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생명인데 고정적으로 배차되어 있는 차량도 없는 실정이다. 기타 전자화된 장비는 말 할 필요도 없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불법 문화재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불국토인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재 도난, 도굴의 사각지대이다. 예방교육의 상시화와 기본적인 자료를 항상 준비해서 불법적인 상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중생을 벗고 지혜의 눈 뜨는 날

부처님오신날. 이날은 역사 속 고타마 시타르타의 탄생일이다. 그리고 일체중생의 본래진면목을 간파하여 고통을 벗어나는 길을 밝혀 주신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부처님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 불교가 형성되고부터 줄곧 부처님의 탄생은 인류에 커다란 축복이었다. 부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더 캄캄한 곳에서 방황하고 고통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로도 초파일은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이었다. 부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는 한 성인의 생일날의 의미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홀로 존귀한' 자존의 가르침을 전하신 부처님이 탄생함으로 인하여 생로병사의 고통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희망이 결코 허망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둘러보라. 주변국들의 정치 군사 경제적 욕망과 속셈을 살펴보라. 무엇보다 동족인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행보를 보라. 불안하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구석이 한 두 곳이 아니다. 국제정세와 국내의 정치상황, 경제상황은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하듯 불안하다. 경제위기가 쉬 극복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대북관계와 수출입의 균형감 회복 등에도 낙관할만한 요건이 없다.

이렇게 불안하고 복잡한 가운데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그리고 곳곳에 연등이 밝혀지고 사람마다 행복과 건강과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을 밝히고 있다. 옛날 가난한 난타가 정성을 담아 밝혔던 초라한 연등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듯, 어려움 속에 밝혀 든 불자들의 등은 밝고 따뜻하다. 희망과 자비의 마음이 함께 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희망이란 무엇이겠는가? 물질적인 풍요와 눈앞의 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은 유위의 행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가르치셨기에, 불자들은 실재하는 것을 초월한 행복의 세계를 알고 있다. 불자들의 희망은 바로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그리하여 없음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근원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의 '새 소식'이란 바로 있음의 세계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고 절대자유의 세상으로 향해 뚜벅뚜벅 걸아가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받들어야 할 서원은 온갖 욕망으로 얼룩진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여 제불보살의 원력이 다 성취된 정토를 건설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예토를 사는 것도 중생의 마음이고 정토를 이루는 것도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중생의 마음이란 결국 나 한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나의 마음이 예토이면 중생계가 더럽고 나의 마음이 정토이면 중생계는 깨끗하다.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따라 불교의 정신이 구현되기도 하고 말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닦는 다는 것은 비운 다는 것이고 비운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오는 것이란 걸 깨닫는 데서부터 부처님의 정각은 완성됐다. 우리의 깨달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유위의 세상에 대한 부질없는 집착을 끊고 무위의 안목에 비치는 모든 불보살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지혜의 눈을 뜨자. 그런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다.

현불만평 박구원



화합의 마음으로

사부대중 테마칼럼

불교계 기부문화 활성화를 염원하며

부처님오신날에

우리사회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계층 양극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 시키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한정된 세수로 인해 더 이상 국가 사회복지 재정을 확대시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정부와 사회는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부문, 특히 종교계가 담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투여되는 재원과 인력에 관한 통계자료는 사회에 알려져 종교 간 비교와 각 종교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중요한 잣대로서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날로 증대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단을 비롯해 교계의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활동과 소요비용 등을 통계로 정확히 잡아 사회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 불교계는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단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아무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시켜 줄 재정을 확보 할 수 없다면 모래성을 짓는 것과 진배없다.

그동안 재정확보를 위해 회비를 걷거나 공모에 응하거나 공공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일반불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도태는 자명할 것이다.

불교계가 이런 초보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젼, 아름다운재단,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우리 귀에 익숙한 이웃종교단체들은 다양한 전력과 조직체계를 가동키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 전체 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이다. 점점 그 쏠림 현상은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구세군의 자선냄비는 종교의 벽을 넘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나눔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모금액도 상당해 이를 바탕으로 구세군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따른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불교계도 모금활동 전문 지도자 및 직원 양성, 모금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훈련, 개인 기부자 및 고액기부자 개발 및 조직화, 정보화 시대의 모금활동기법 개발 등이 적극적 추진돼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계종단에서 모금활동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 2008년 9월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했고 2009년 처음으로 1배 100원모금, 희망의등 달기, 자비연꽃 뺏지, 한끼나누기 운동 등의 모금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희망을 가져 볼만 하다.

시작이 곧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불교계 기관들이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모금 활동을 개발하고 서로 의사교환과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면 우리가 가진 무한한 자원들을 개발해 나가는데 늦지 않았다.



박찬정 부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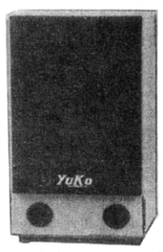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청와대 불자회

회 원 일 동

모두에게 복이 가득한 도량, 안심정사 · 백상선원

논산 연무읍에 자리한 약사정토도량 안심정사(安心精舍). 안심정사는 논산에서 '기도가 통하는 절'로 통한다.

1991년 창건된 안심정사는 당시 신도 한 세대로 시작했지만, 18년이 지난 지금 논산에서 관촉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신도들이 찾는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 서울 등지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모여드는 신도들이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논산 매표소에 근무하던 천주교 신자가 매표소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안심정사를 물어봐 안심정사를 찾아, 그 인연으로 신도가 된 일화도 있을 정도다.

복을 나누는 방법으로 현실에서 인간정토 건설

지역사회의 사랑을 받는 안심정사가 있기까지는 법안 스님의 원력과 노력이 있었다. 10년 동안 연무중앙초교 월 5명에게 무료급식 지원하고, 8년간 매년 경로잔치 등을 열었다. 공주교도소에서 재소자를 위한 독경대회, 찬불가대회 등으로 법무부 장관상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또 논산 육군훈련소와 육군부사관학교 등 지역 군부대 법당 등에 법회지원 및 경전 및 찬불가 만개 등 군포교에도 적극 나섰다.

현안심정사는 사경당과 선방 등 수행시설을 비롯해, 도서관과 다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추고 지역 신행활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도서관에는 각종 대장경과 불교전문도서 및 관련서적이 5천여 권 이상이 비치되어 있고, 청소년과 젊은 신자들을 위한 지장경 강독 및 해설 강좌 및 DVD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상담과 교육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정사의 5m 높이의 관음보살상은 93년 조성된 후 소원성취 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를 비롯한 질병치료에 영험을 보여 많은 신도들이 찾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고통 받는 신도들이 늘어남에 따라 주지 법안스님은 교육부장을 끝으로 종단업무 일선에서 물러나 신행증진과 상담치료 등에 나서고 있다.

논산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신도들을 위해 강서구 등촌동에 <백상선원>을 마련해 신도들과 기도객들이 마음 편히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았다

『만약 중생이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이거나 또는 문둥병, 간질병 같은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도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관(感官)이 온전하고 모든 병이 소멸하여 마침내 보리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만약 중생이 갖가지 불구가 되어 추악하고 어리석고 눈멀고 말 못하거나 또는 앉은뱅이, 곱사등이, 문둥이, 미치광이 같은 갖은 병고에 시달리다가도 나의 이름을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단정한 몸을 얻고 모든 병이 소멸하여 마침내 보리 성취하기를 원한 것이요..』

– 약사여래본원공덕경 –



"기복(祈福), 복을 빌어야 합니다"

안심정사 주지 법안스님, 기도로 병마극복 길 제시…약사신앙 연구로 박사학위 · 상담전문가로 '명성'

누구든지 좋아하여 구하는 것을 다 이루나니 –隨所樂求
건강하기를 구하면 건강을 얻게 되고 –求長壽得長壽
부귀와 풍요를 구하면 부귀와 풍요를 얻게 되고 –求富饒得富饒
인덕과 관운을 구하면 인덕과 관운을 얻게 되고 –求官位得官位
자녀를 얻고자 하면 자녀를 얻게 된다. –求子女得子女 <약사경>

"복을 빌어야 합니다. 복이란 '좋은 인연'이며 복권당첨과 같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요행'과는 다릅니다. 좋은 인연은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오래 갈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다 갖춰져야 하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소중히 여겨, 잘 빌고, 잘 아끼고, 잘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안스님은 약사경의 "구하면 다 얻는다."는 구절을 근거로 실용적 불교를 주장하고, 신도들은 이같은 가르침에 따라 기도와 함께 현실에서의 복을 비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 결과 신도들 하나하나가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한결같이 잘되고 관운이 창성하게 되었다.

이 또한 현실에서 인간정토를 건설하는 것이 아닐까?

법안 스님은 7년 동안 앓아오던 자신의 폐결핵을 약사 기도로 완쾌 한 이후 약사사상 철학박사학위를 취득 하는 등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기도정진을 수 십년 간 해왔다. 그 결과 스님은 중생 모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 Medicine Master Buddha) 신유(神癒)능력을 얻게 됐다.

스님의 신유 능력은 주변 사람들의 체험담에서 드러난다. 안심정사 신도회 부회장은 2003년 2월 초 부천 순천향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사경을 헤메는 자신의 동생을 스님이 안수하자 21~24회를 오가던 심장박동이 다시 빨라져 살아났다고 한다.

또한 신도는 소변을 누지 못해 배가 부풀러 오르는 증상으로 스님에게 전화상담한 후, 스님의 "소금양치질을 하라"는 처방을 따르자 통증이 사라지고 완쾌됐다고 한다.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로 불치병 · 난치병 신유(神癒)

더나가 2008년 귀신이 들려 목이 돌아가고, 헛소리를 하던 논산 모 초교 어린이가 스님을 친견한 뒤 치유된 퇴마일화는 논산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이다.

불 · 난치병 치유하는 약사신유(藥師神癒) 능력에도 스님의 겉모습은 평범하다. 온화한 미소 속에 범상함을 감춘 스님은 "소원은 간절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며 "구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 없으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렷이 답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오랜 병을 앓아온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상담은 범부도 할 수 있지만, 법안 스님의 처방은 독특하고 정곡을 찌른다. '한 생각의 차이'는 생과 사를 가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한 생각'을 돌리기 위해 법안 스님은 상세하게, 또는 무심하게, 때로는 불호령 등 상담자에 맞춰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핀다.

"현실적 성취를 통해 마침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약사신앙의 특징처럼 법안스님은 중생들의 현실문제 해결 상담을 통해 마침내 그들을 부처님께 이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사주 · 기문둔갑으로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시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부 등 목표에 전념토록 도와 진학 ·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상담과정에서 늘 자신을 낮추는 스님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상담분야 '전문가'다.

스님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약사신앙과 사상으로 석 · 박사과정을 마쳤다. 또 동방불교대학에서 정토사상과 실전상담심리 등의 강의를 통해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고, 각종 학회 등에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승으로서의 진가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이런 전문지식에 오랜 포교 경험과 불법을 현실에 적용해 널리 펴는 고민이 함께 어우러 적시 적소에 어우러져 발현되는 것이다.

현실문제 상담을 중생교화의 방편으로 활용

1년여 전 국내 주요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던 30대 뇌종양 환자가 스님을 찾아왔다.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법안스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많은 뜻이 포함돼 있었다.

그 환자는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말고 무엇이 필요했을까.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였던 것이다.

스님은 그 환자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누군가를 찾아다니기만 했던 그 환자는 정작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의지는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부터 마음을 모아 약사기도와 방생기도를 하던 그 환자는 마침내 병을 완치할 수 있었다. "우리 도량은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요.

모두 약사여래 부처님의 공덕일 뿐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초에는 새해인사도 드리고 한해계획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는 신도들로 안심정사 · 백상선원은 항상 붐빈다.

미국에서 불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자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이모 거사는 2008년 "올해는 시운이 없으니 주식투자 같은 것은 하지마라."는 스님말씀을 따랐다. 처음에는 그가 근무하는 철도청 모 연구소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으나 몇 달 후 주가가 폭락하자 주변에서 그를 무척 부러워했다는 후문이다. 그 후 '경북 청도군 개발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인의 권유에도 "특히 지금은 절대 하지마라!"는 스님말씀을 따랐는데, 2008년9월 군수는 구속되고 개발사업은 백지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은 "사주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큰 부처님법을 믿습니다."라며 목적과 방편의 주객전도를 경계하고, "상담 후 일회성 천도재보다는 꾸준한 기도와 수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당부한다.

안심정사 ☎ 041)742-4557
백상선원 ☎ 02)2659-0460



법안 스님 약력 한국불교태고종 안심정사 · 백상선원 주지

20년을 약사여래기도에 매진.
철학박사(원광대, '한국 약사정토사상에 관한 연구' 논문).
고려대 정경대학 경제학과 졸.
동방불교대학 교수 역임.
태고종 총무원 기획부장, 교무부장, 교육부장 역임.
현 BBS 불교방송 자문위원.
현 고려대학교 불자교우회 지도법사.
현 보문고등학교 불자교우회 지도법사.
현 안심정사, 백상선원, 다음까페 '藥師山 안심정사' 주석.


<안심정사 법당 내부>

웃음과 복이 흘러넘치고 병마(불치병, 난치병)가 기적같이 낫는 약사영험도량

체험사례 1

"제가 복이 계속 되는 것은 부처님과 스님 덕분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 김근식 교수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 재직하던 중 안심정사의 신도가 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산학협력처장 등의 중책을 맡는 등 바쁜 업무 중에서도 토요철야기도에 꾸준히 참여하고 일승보살회에서 고익진 교수님께 사사받은 근본불교를 온 ·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는 등 기도와 복 짓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한다. "2007년 제 처가 자가용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은 전혀 다치지 았았어요.

유리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추돌했는데 기적이죠."라며 말문을 연 김교수는 작년에는 딸이 원하는 대학에 2곳이나 합격했다며 활짝 웃었다.

"다른 신도들도 복이 끊이지 않아요. 군장성이 5명이나 승진한 해도 있었고, 옆에 김거사도 얼마 전 100억대의 공사를 수주했고..." 김정재 거사는 부처님께 귀의한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2007년이 되어서야 법안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와 복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건설업에 종사하는데 최근 5년 이상 별다른 성과가 없다가 기존 수주도 취소되는 불경기에 이러한 쾌거를 올린 것이다.

김거사가 빙그레 웃으며 귀띔하는데 김교수가 몇 달 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大, IBC로부터 '100대 과학자'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3대 인명사전 모두에 등재되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

체험사례 2

"제가 죽을 화를 면한 것은 부처님과 스님 덕분입니다"

2009년2월20일 새벽, 금은방을 운영하는 최모 거사의 전 재산인 6억여원의 금을 노리고 칼을 든 강도들이 들어왔다.

"살기가 넘치는게 꼭 저승사자 같았어요.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는데 눈앞이 캄캄해져서 저항은 엄두도 못내고

부처님만 불렀어요."라며 최거사는 그때의 두려움이 떠오르는 듯 손사래를 친다. 그때 강도 중 한명이 최거사가 간절히 염불을 하는 것을 보다가 안심정사 달력이 왜 이집에 걸려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거사는 안심정사 신도라고 대답하자 법안스님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해보라고 해서 교도소 재소자 포교를 하는 스님이라고 대답했더니 잠시 후 그 한명이 나머지 일행을 설득해서 묶었던 것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최거사가 금고 밖의 현금 2,300만원이라도 가져가라고 해도 "너를 살린 분은 법안스님이니 스님께 시주해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그날 오후 강도 중 그 한명이 법안스님은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스님과 수차례 상담하고 수계식도 했었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염불을 하는 최거사를 보고 스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며 제정신이 들었다고 한다.

최거사 가족은 집에 강도가 들어왔지만 부처님과 스님 덕분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던 것이다.



전국제일 약사도량 건립에 동참 공덕 쌓으세요

기도와 복 짓는 일에 동참하여 행복이 흘러넘기를 바라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복을 지은 불자님의 소중한 이름을 공덕비에 새겨 드립니다.

「부처님의 탑이나 절 또는 경전이나 불상이 허물어지고 파손된 것을 보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백천생 동안 전륜성왕이 될 것이며 함께 보시한 다른 사람들은 백천생 동안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 **대덕공덕 :** 관세음보살, 법상, 약사전 용마루, 약사전 대들보, 약사전 상량보, 삼천불전 큰기둥
■ **장자공덕 :** 대웅전 기둥, 대웅전 주춧돌, 약사전 큰기둥, 약사전 기둥, 약사전, 주춧돌, 삼천불전 현판
■ **법우공덕 :** 대웅전 법당문, 대웅전 서까래, 약사전 도리, 삼천불전 1인1불大, 삼천불전 1인1불中, 삼천불전 1인1불小, 1인1수 개금, 시멘트, 철근

논산 안심정사 ☎ 041)742-4557 / 서울 백상선원 ☎ 02)2659-0460 다음까페 http://cafe.daum.net/ansim24

밝은 것이 어찌 연등 뿐이랴…

26일 전국은 연등 물결…부처님오신날 봉축열기 고조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4월 26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이날 정오 10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된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 일대는 가족단위 시민 2만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흥겨운 불교문화마당이 펼쳐졌다. 특히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외국인 연등만들기 부스에는 33개국에서 온 1000여 명의 외국인관광객들이 '연등만들기' 체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찬탄하며 즐기는 '어울림마당'이 열렸으며,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부처님오신날 연등법회인 '화합한마당'이 봉행됐다.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연등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연등의 광명으로 세간의 어둠이 사라지기를 발원하며, 지혜의 등불을 높이 들고 힘차게 행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등 경연대회 시상에서는 △단체행렬등 부문에서 최우수상 한마음선원, 우수상 봉은사, 장려상 수국사 등이 수상했다. 이어 오후 6시, 동국대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구간은 10만여 개 연등으로 서울 도심거리를 장엄하며 세계적인 한국의 전통축제의 진수를 보여줬다.

밤 9시 30분부터 서울 종각사거리에서는 10만여 명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대동한마당을 펼치며 경제난 극복과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발원했다.

글=조동섭 · 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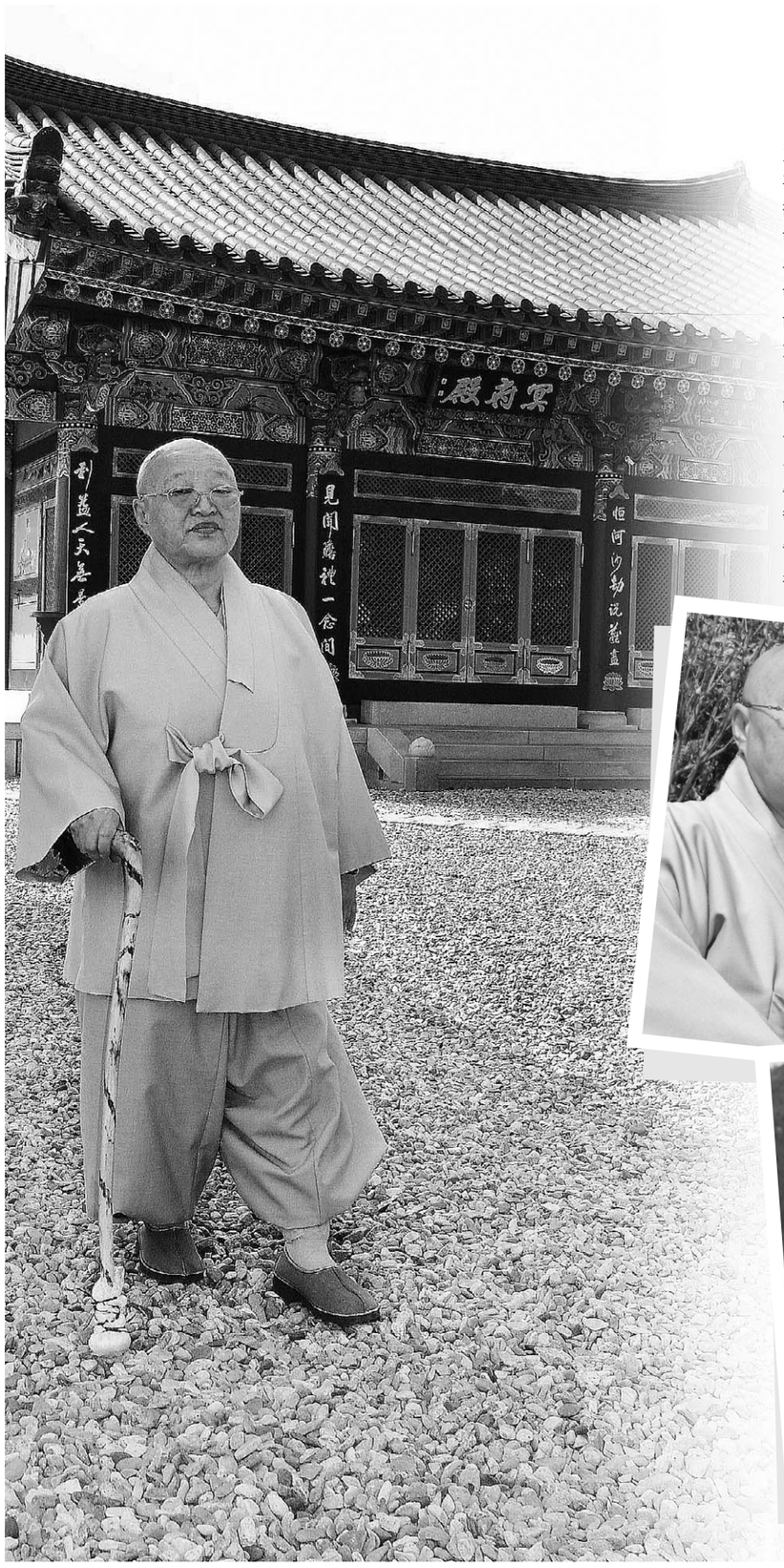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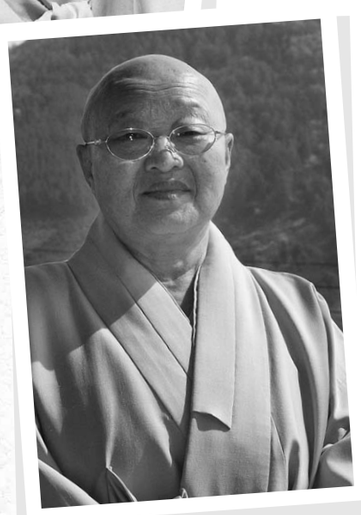


봉축마당

“삶이 꿈인 줄 알면 꿈 깨려고 더 열심히 살아야죠”







성경 스님(괴산 개심사 회주)

서울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괴산IC를 벗어나자 마자 충북 괴산읍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읍내 초입인 역말다리 근처에 자리한 벽초 홍명희 생가 뒤편 언덕을 오르니 아담한 절, 개심사(주지 석재)가 대미산 자락에 연꽃처럼 피어 있다. 꽃으로 장엄된 사찰 경내는 단아하게 잘 정돈돼 있다. 꽃밭에서 읍내를 내려다 보면 ‘개심(開心)’이란 절 이름처럼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듯 하다.

1853년 조성된 충북 지방문화재 제173호 아미타불상과 관세음보살상을 봉안하고 있는 개심사는 전통사찰이다. 1994년 주지로 부임한 성경(晟鏡) 스님이 주석하며 한국전쟁 이후에 신축된 대웅전을 해체하고 1997년에 주법당인 극락보전을 중창했으며, 범종각을 세워 괴산읍의 중심사찰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 상좌인 석재 스님은 도로와 가람을 정비해 괴산읍의 포교거점으로서 인근 주민을 위한 가정법회는 군인법회, 부부법회를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여름이면 어린이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해 어린이들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지역사회의 사회·문화 교육에 앞장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보살행까지 펼치고 있어 개심사는 괴산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개심사가 불과 15년만에 중창불사를 완수하고 지역포교를 이끄는 사찰이 된 것은 무엇 보다 수좌출신의 회주 성경 스님의 숨은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73세의 세수가 믿기지 않는 맑고 밝은 동안(童顔)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스님을 뵈니 필자의 마음까지 밝아진다. 참선을 하면 할수록 수좌상(首座相)만 높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35년 이상 선방에서 안거를 성만한 성경 스님의 언행에서는 아상(我相)이 무너져 겸손하고 자비와 지혜가 온 몸에서 흘러나오는 참 수행자상이 느껴졌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법문을 청하니, 할 말이 없다며 손사레를 치신다. 그러나 부처님은 온

공부 막히면 향곡·성철 스님께 달려가 질문… ‘경책’ 받아

개심사 중창위해 기도·정진 모범보여 “하심과 감사로 살자” 당부

바도 간 바도 없건만, 내일 모레가 부처님오신날이니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王宮家)에 내리시며, 모태 안에서 중생제도를 마치셨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 49년 설법을 하셨지만, 한 마디도 한 바가 없습니다. 중생이 하열하니까 알아듣도록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참 수좌에게는 법문 조차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환(幻)과 같은 꿈이라고 하는데, 수행자들이 정진하는 것도 꿈속의 일 아닐까요?”

“꿈 깨면 해탈인데, 꿈속에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꿈을 깨죠.”

많은 말 보다 입가에 맴도는 스님의 미소와 눈웃음이 더 많은 법문을 설하신다.

“오랫동안 정진하시면서 법열(法悅)을 느끼거나 득력(得力) 하신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공부하다 보면 환희심이 날 때가 여러 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착(着)하면 공부를 그르치기 때문에 놓고 또 놓고 가곤 하죠.”

“정진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잠이란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습(習) 때문에 잠을 이길 수가 없으니 수마(睡魔)와 싸울 때가 제일 힘들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공부가 수월해지고 자신감도 생기는 법입니다.”

성경 스님은 참선하다가 의문이 나서 성전암에 주석하던 성철 스님을 찾아가 질문했으나 “공부 안 하고 뭔 소리 하냐!”며 경책을 받은 일, 묘관음사 향곡 스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을 때 “니가 공부 해 보고 안된다 카나. 하면 된다카이”하는 일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신다. 공부 안 되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참된 발심이 됐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가슴에 다가온다.

1941년 2월 1일 충북 청주시 봉명동에서 아버지 이재호 거사, 어머니 박종순 보살 사이의 4남 1녀 중 맏이로 태어난 스님은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의 ‘인생 무상(無常)’ 법문을 듣고 발심해 1957년 17세 되던 해 속리산 수정암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삭발염의했다.

58년 법주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수지, 62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은 59년 해인사 국일암에서 동·하안거를 성만하면서 본격적인 참선정진의 길로 들어섰다. 76년 동화사 부도암 입승, 79년 동화사 양진암 입승, 89년 월정사 육수암 입승, 91년 내원사 입승 소임을 보며 제방 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했다. 주로 향곡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한 성경 스님은 94년 내원사 3년 결사를 마치고 잠시 쉬러 왔던 개심사와 인연이 닿아 주지소임까지 맡게 되었다.

그동안 개심사 중창불사를 위해 하루 세 번 관음정근을 쉬지 않고 해 온 성경 스님은 여가가 날 때마다 스님의 작은 방을 토굴 삼아 정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활발한 포교사업을 펼치는 상좌를 위해 기도하며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발원 역시 쉬지 않는다.

“포교가 더 어려워요. 잠과 화두와 싸울 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에게는 더 이상 좌선과 행선이 둘이 아니지만,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화두를 챙기는 ‘영원한 수좌’의 길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님들에게 법문 한 마디 해달라고 청하자, 스님은 자애로운 미소로 쉽고도 어려운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

“불제자는 깨닫겠다는 참된 발심이 가장 중요해요. 늘 일상속에서 하심하고 감사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살면 그게 수행이지요.”

그러고 보니 ‘연꽃을 들어 보이시던 부처님의 미소가 스님의 미소가 아닐까’ 하는 한 생각이 떠오른다. 사람 사람 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면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 아닐까.

글 · 사진=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dongguk UNIVERSITY

동국의 이름으로
내일의 문명을
깨웁니다

불기 2553년 봉 부처님 오신날 축

인간과 세계, 자연을 탐구하는
동국인의 열정이야말로
위대한 문명을 배양하여
미래의 가치를 이끌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미래 불교 대중화와 불국 정토 구현을 위해, 불교계 인재를 키우는 불교 종립대학 동국대학교가 불자 여러분의 보시와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액으로도 보살도를 실천하는 인재불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문의 : 02-2260-3300 http://ilove.dongguk.edu

세상을 비추는 힘 | 세상을 깨우는 이름 | dongguk UNIVERSITY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미래 인재들의 꿈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사부대중 일동

• 주요사업

–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은정학술상’을 제정, 한국불교학 발전을 위해 일익을담당하고 있습니다.
– 불교관련(교학, 교리, 문화재 등) 학술연구를 하는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인재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합니다.
–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해마다 불교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공부하기 힘든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생활격려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입니다. 저희 재단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지원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42-2 은정빌딩 6층
전화 02)515-9351 / 팩스 518-8998

活! 히말라야, 온 생명에 전하는 깨침의 메세지



히말라야. 부처님의 수행과 정각 그리고 전법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성산이다. 종교인과 산악인 여행객들은 물론 인류에게 신비와 희망 그리고 정각과 구원의 상징으로 우뚝 서 있는 히말라야는 누구에게나 살아서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다.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금정 스님(前 중앙승가대 기획실장, 히말라야 선요가수련회장)이 히말라야의 코사인쿤드 지역을 순례했다. 코사인쿤드는 히말라야의 신비를 더해주는 산정호수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70km 떨어진 랑탕에서 코사인쿤드로 이어지는 코스는 네팔 최초의 국립공원이며 다양한 자연 생태계가 보존된 지역이다. 히말라야에 한국불교 선원을 건립하고자 원력을 세운 금정 스님은 1996년 이후 10년간 네팔과 인도 등지에서 수행했다. 불교진흥원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이번 순례는 네팔 지역에 한국불교를 전하고 한국 수행자들을 위한 선원 건립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였다.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의 순례에서 렌즈에 담은 히말라야의 풍경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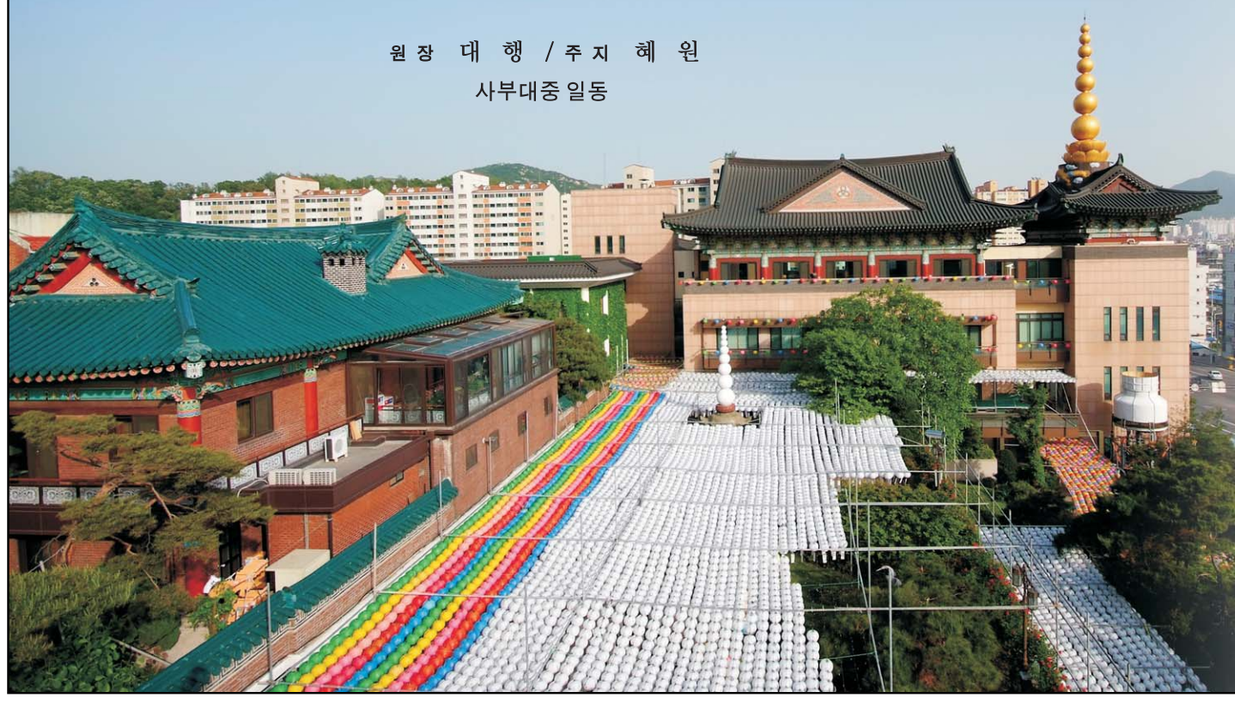
① 해가 떠 아침을 맞은 랑탕의 모습이다. '긴 혀'라는 뜻의 랑탕 계곡은 1949년 랑탕을 처음 탐험한 영국의 틸만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말했던 곳이다.
② 해발 3510미터 지점의 따레파티 마을은 따망족들이 살고 있는 곳. 이들은 모두 불교도들이다. 그들의 마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순례객들은 히말라야의 장엄한 봉우리를 우러르며 아침 예불을 올렸다.
③ 히말라야에도 우리나라 지리산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본 듯한 계단식의 다랑논이 있다.
④ 이렇게 높은 곳(해발 4380m)에 이런 호수가 있다니, 그저 감동스러울 뿐인 코사인쿤드 호수. 눈이 녹아서 이루어진 호수다. 히말라야 사람들에게 이 경외의 호수는 문수보살의 주처로 알려져 있다. 하늘에서 가까운 탓인지 물빛이 하늘보다 푸르다.
⑤ 코사인쿤드 호수 바로 아래 지역에서 돌탑을 쌓았다. 세상의 온갖 욕망이 히말라야의 바람에 씻기고 모든 생명이 참자유를 누리길 기원하며…
⑥ 지대가 높고 재화가 충분치 않은 히말라야에서는 큰 가람을 세울 수 없다. 그러나 저 우뚝한 봉우리들을 향하여 불보살의 명호를 붙여 놓고 귀의하는 마음만은 눈처럼 희고 바람처럼 맑다.
⑦ 곰파와 라우르비나야크 중간 지점, 해발 3700미터 지역에서 본 타르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타르쵸는 티베트어로 경전을 써 넣은 천을 깃발처럼 매단 것이다. 바람을 타고 온 세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지기를 염원하는 히말라야 사람들의 마음이 저렇게 높다랗게 펄럭이는 것이다.
⑧ 둔체에서 코사인쿤드를 향해 올라가는 초입에서 꽃을 만났다. 정열적인 색의 이 꽃 이름은 '라리구라스'이며 네팔의 국화다. 히말라야에 널리 퍼져 있으며 3~4월이 꽃의 절정기다. 색깔도 빨강 노랑 하양으로 다양하다. 벌들이 이 꽃의 꿀을 따다가 가파른 절벽에 매달아 놓은 벌집에 저장하는데 그 꿀이 유명한 히말라야 석청 이다.
⑨ '죽어 천년 살아 천년'이라는 주목은 랑탕 계곡의 장관 중에서도 명품급이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주목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히말라야의 숲에서는 나무들만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모아 이루어진 진짜배기 생명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주목 숲에서는 시간이 멈춰 선 듯한 느낌을 받는다.

글 · 사진=금정 스님(포천 불국정사주지)

나누는 기쁨 함께 하는 세상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내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날일세

원장 대행 /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031-470-3100 /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6-8163 / FAX: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 : (043)259-5599 /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 : (054)555-8871 /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 New York (미국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미국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미국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미국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0811
- CANADA (캐나다 토론토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아르헨티나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 Sao Paulo (브라질 상파울로 지원) R, Newton prado,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Brasil TEL : (55-11)3337-5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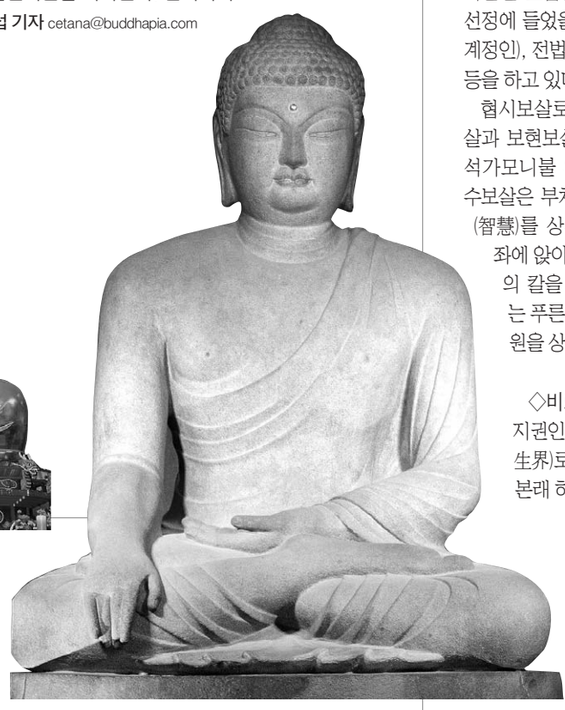
정진마당

"어느 분이 석가모니불이에요?"

경주 불국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은 불국토를 현실에 장엄한 성지(聖地)다.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선 일주문을 지나며 사람들은 고단한 마음을 쉬고 중도(中道)의 마음을 갖는다. 수미산 중턱의 사천왕 궁궐을 형상화한 천왕문, 금강문을 거쳐 진리를 상징하는 불이문, 해탈문과 범종루를 지나면 부처님과 보살을 모신 전각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전각에 모셔진 부처님 보살님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전각마다 붙여진 이름으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불상의 손모양(手印)을 보고 알 수 있다. 보살은 연꽃 · 정병(淨甁) · 법륜(法輪) · 구슬 등 손에 잡고 있는 물건(持物) 등으로 구분된다. 수인은 손의 형상으로서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계인(契印)은 지물을 들어 그 상징성을 표현한다. 수인과 계인은 불 • 보살의 모습으로 근본서원을 나타낸다. 전각마다 봉안한 불보살을 알아보자.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어느 전각에 어느 부처님이?

◇대웅전

대웅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로 큰 영웅이란 뜻이다. 대웅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모시고 협시로 문수, 보현보살을 봉안한다. 대웅보전이라 할 때는 주불로 석가모니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를 모신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아미타전

극락전, 무량수전, 수광전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로 불리는 서방 극락정토의 부처님이다. 아미타전이라 했을 때는 아미타여래가 주불이며, 무량수전이라 했을 때는 무량수불이 주불이다.

주불 아미타여래의 협시로는 관음, 대세지보살을 봉안한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강진 무위사 극락전 등

◇대적광전

불전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화엄전, 비로전, 적광전이라고도 한다.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좌우에 화신불인 석가모니불과 보신불인 아미타여래를 봉안한다.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화신불과 보신불 좌우로 문수 보현 관음 세지보살을 협시로 모시기도 한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불국사 비로전 등

◇약사전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은 유리전, 유리보전, 보광전, 약광전 등이라고도 한다. 약사불을 주불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봉안한다.

강화 전등사 약사전, 순천 송광사 약사전 등

◇관음전

관세음보살을 주불로 하며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협시로는 남순동자, 해상용왕이 있으나 후불탱화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양양 낙산사 원통보전, 구례 화엄사 원통전 등

◇미륵전, 나한전, 지장전 등

미륵전은 미륵불을 주불로 모신 전각으로 용화전이라고도 한다. 좌우 법화림보살, 대길상보살을 봉안한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 등

나한전은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좌우 주위에 16나한상을 봉안한다. 16나한을 모신 전각을 응진전, 500나한을 모신 곳을 나한전이라 한다. 청도 운문사 오백나한전 등

#그 외 부처님 손모양은?

◇여원인과 시무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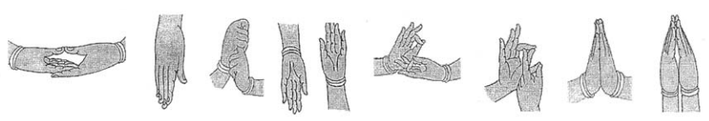
여원인은 일체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수인으로, 한쪽 손의 다섯 손가락을 펴서 밖으로 향하여 아래쪽으로 드리우는 모습이다. 만일 손을 안쪽으로 향하여 드리우면 촉지인이 된다. 다른 한 손의 시무외인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수인으로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서산 마애삼존불 등

◇합장인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내는 인도인의 인사법과 유사한데, 보통은 두 손바닥과 열 손가락을 합하는 모양이다.

◇연화합장인

연화합장인은 두 손의 열 손가락을 세워서 손가락과 손바닥을 함께 합하는 합장으로, 그 모양이 연꽃의 봉오리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음을 연꽃과 같이 번뇌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법식을 행할 때 처음에는 이러한 결인을 한다.



#각각의 불보살님들 어떻게 다를까?



◇석가모니불의 손 모양은 마군을 항복받던 모습을 나타내는 항마촉지인, 선정에 들었을 때 취한 선정인(법계정인), 전법륜인(길상인) 등을 하고 있다.

협시보살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있다. 석가모니불 왼쪽의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智慧)를 상징한다. 사자좌에 앉아 오른손에 지혜의 칼을 쥐거나 왼손으로는 푸른 연꽃을 들고 있다. 오른쪽의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행원을 상징한다. 연꽃을 들고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나타낸다.

◇비로자나불은 오른손으로 세운 왼손의 검지를 감싸 쥔 지권인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불계(佛界), 왼손은 중생계(衆生界)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며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본래 하나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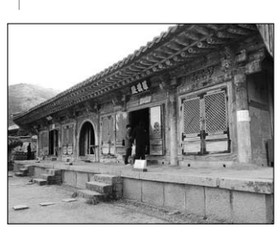
◇아미타불은 아미타정인(九品印)을 하고 있다. 좌선 자세에서 양손의 검지를 꼬부려 손가락을 끝을 붙이되 검지손가락 등이 서로 맞닿는 상품상생인을 비롯해 아홉가지 모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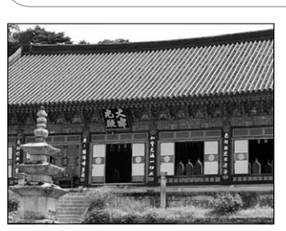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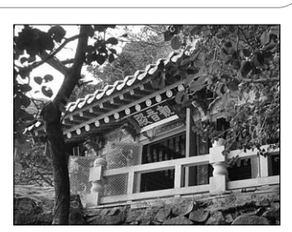
협시보살로 왼쪽의 관음보살은 정수리에 아미타불의 화현을 모시고 있다. 연꽃, 감로수병 등을 들고 있다. 아미타불 오른쪽의 세지보살은 왼손에 백련화를 들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있다.

◇약사불은 왼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고 약그릇(약병) 혹은 구슬을 받들고 오른손은 시무외인을 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손에 육환장을 들고 있다. 협시인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 외에 염라대왕을 위시한 지옥의 시왕상(十王像)을 봉안한다. 시왕의 각 명호는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태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등이다.

◇사천왕은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있다. 동승신주를 관장하는 지국천왕은 건달바의 왕으로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을 하며, 남섬부주의 증장천왕은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 서우화주의 광목천왕은 한손에는 용을, 다른 한손에는 여의주를 잡고 있다. 북구로주를 관장하는 다문천왕은 오른손에 탑을, 왼손에는 긴 창을 잡고 있다.



알쏭달쏭 불교문화가 한 손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700여 개의 표제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한국불교문화사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편집 (02) 926-8361, 영업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본마음 참나의 불성 자리를 찾아서

월호 스님의 십우도 풀이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참선의 단계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한 참선과 행불수행의 길잡이!

나는 지금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마음공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십우도는 참선수행의 드넓은 바다에서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국판/컬러/208쪽/9,000원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이

수행문답



현장에서 수행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 개념, 수행의 방식, 각 수행법의 요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보신문사 엮음/신국판/424쪽/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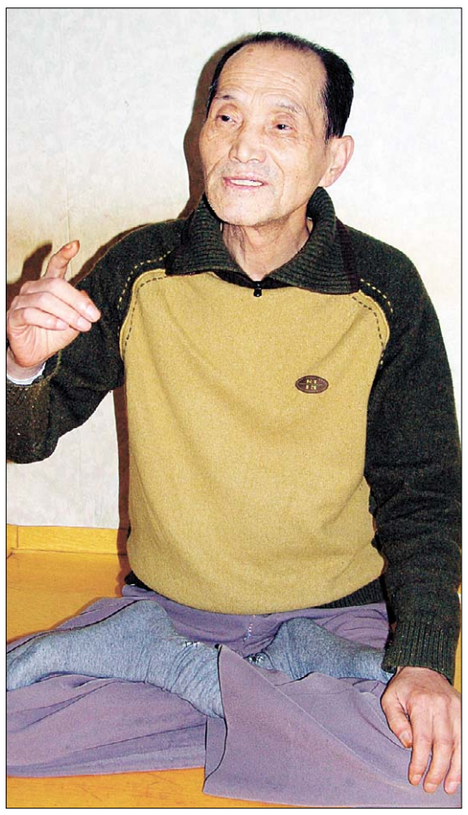
B05면 2009.4.2711:7AM페이지1(1,1)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상 버려야”

〈四相〉

정견 7보(寶)경전 외워 법문

성상현 법사



“정견(正見)을 흔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색안경을 쓰고선 절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관적 관점을 벗어난 정견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여읜 자리에서 실상(實相)을 보는 것입니다.”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의 7보(寶) 경전을 모두 외워서 설법하는 성상현 법사(75)는 ‘정견’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팔정도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한다. 수행자들은 안목을 중요시하지만, 안다고 하는 그것이 대부분은 아상(我相: ‘나’라는 생각) 인상(人相: ‘남’이라는 생각) 중생상(衆生相: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壽者相: ‘오래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착각

‘응무소주이생기심’ 법문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
‘가르침대로 실천’ 선교일치

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는 것. 때문에 사상(四相)을 버려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수행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정견이란 다시 말하면, 〈금강경〉의 ‘응당 어떤 사물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不應住色生心), 응당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요(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 응당 머무는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應生無所住心)’ 하는 법문과 같습니다.”

성 법사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응당 머무는바 없는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법문이 자성(불성)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고난 업식(業識)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성자리에서 보고 듣는다면 보고 들으면서도 아견(我見)이 없다. 이런 때는 ‘보는 그 놈이 여래’라는 것이 성 법사의 견해다. 즉 ‘범소유상(凡所有相)이 개시허망(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이면 즉견여래(卽見如來)니라’ 하는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와도 상통한다.

성 법사는 이에 대해 ‘무릇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는 일반적인 해석과 달리 ‘형상이 형상 아님을 보면 그게 곧 여래이니라’라고 새긴다. 이런 뜻 새김은 선사들의 견해와도 일치하는데, 성 법사가 수많은 경전을 통달해 종횡무진 경전을 비교하며 강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성 법사가 오랜 경전공부를 통해 정견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읽고 외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 그대로 실천(如說修行)’했기 때문이다. 경전을 오래 수지독송 하다보면 부처님의 깊은 뜻이 저절로 드러나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에 관음정근이나 능엄주, 절하기 등 실참을 병행하게 돼 선교일치(禪敎一致)가 저절로 이뤄지는 셈이다.

성 법사는 “경전을 읽고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경을 굴리는 전경(轉經)이 된다”며 경전을 읽고 듣고 옮겨쓰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을 익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성품 즉, 실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수행자는 끝없는 하심과 언행일치로 사상을 여의는 공부를 해야만 견성(見性) 성불(成佛)해 생사에 자재한 무여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성 법사는 40대 초반,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음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한 스님이 건네준 〈금강경〉을 보고 외운 후 경전을 공부하게 됐다. 이후 불과 몇년만에 7보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경에 통달한 성 법사는 30여 년 동안 스님과 재가자를 위해 경전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광주불교교육원과 서울 시내 네 개 사찰에서 법문 위주로 설법 중인 성 법사는 조만간 매주 〈법화경〉 등 경전강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02)353-7863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 “정견은 사상을 여읜 자리에서 보는 것”

“불법으로 행복발전소 되기를…”

금강강독회 정사유

배원룡 회장



“‘법’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분쟁은 좀 더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금강강독회 배원룡 회장(변호사)은 청화 스님(1924~2003)을 꼭 닮았다. 스님을 곁에서 지켜본 불자들을 감복시켰던 한결같은 겸손함과 자비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고 있는 배원룡 회장.

금강강독회는 6000여 회원이 청화 스님 법문을 공부하는 다음(daum) 카페 ‘금강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이하 금강카페)’ 오프라인 모임이다.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호선 동대입구역 ‘우리함께 빌딩 6층’에서 배광식 교수(서울대 치대)를 법사로 〈전통선의 향훈〉 〈정통불법의 요체〉 〈육조단경〉 등을 공부하며 법열을 나누고 있다. 3년 동안 40여 회 강독회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도반들의 심부름꾼 배원룡 회장의 공덕이 크다.

배 회장은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라는 정겨운 말들로 모임의 진행을 ‘참잘’ 이끌고 있었다.

가톨릭 신자였던 배 회장의 불연은 1984년경 어느 신부님에게 ‘불교의 참선에 관심이 있다’며 고해성사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배원룡 회장은 신부님이 전한 〈선학의 황금시대〉를 읽고 무위진인,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선사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다.

“대학원 시절 故 이기영 박사님의 한국불교연구원 대구

구도회에서 들었던 우룡 스님의 〈원각경〉 법문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이후 송광사 여름수련대회, 서울 길상사 일요법회, 불력회 독서모임의 불연이 청화 스님을 평생의 스승으로 영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배원룡 회장의 삶에 수행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최근에는 카페 회원들과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엔 도봉산 광륜사 금강선원에서 철야정진을 하고 월1회 금강강독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모두 도반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특히 ‘수행의 핵심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마음을 맑게 하는데 염불만한 게 없다’는 청화 스님의 가르침에 따

“불교 참선에 관심있었다”
고해성사로 불교와 인연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

라 절수행과 염불수행을 함께하고 있다.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입니다. 잠시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보리방편문과 염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108참회와 염불로 하루를 마감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수행으로 다져온 배 회장의 정사유(正思惟)는 다양한 사건 사고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대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에서 돋보인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한 상담원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안내해 큰 보람을 얻었다고.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도 결국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를 찾아온 이들의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른 의도를 갖고, 올바르게 명심하는 정사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요, 수행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원룡 회장의 정사유는 겸손과 하심이 있다.

“제가 재가수행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모임에서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금강강독회 모든 회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한 삶을 가꾸는데 일조하는 행복발전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 입니다.”

자칭 ‘심부름꾼’ 배원룡 회장의 한결같은 겸손함과 따스함에는 금강강독회를 3년간 여법하게 이끌며 도반들에게 인정받는 정사유 ‘대장’의 향기가 배어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 – “마음에 그른 생각이 없이 순리대로 풀어감”

불기 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관음성지 휴휴암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정진도량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봉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축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
VISION 1 인성/덕성 함양
VISION 2 외국어(영·중·일) 교육 특화
VISION 3 행정실습 교육 강화



계룡산 기슭에 자리한 금강대학교
성낙승 총장 외 교직원 일동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깨달은 이는 죽음과 고통을 능히
정복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 법구경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진 경

부 원 장 도 정
총무국장 보명화
규정국장 무 상
사회국장 법 광
감 사 무상심

회원종도 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리 229
전화 054)373-0383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 각

사부대중 일동

● 부전스님, 행자승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전화 053)766-7231 팩스 053)766-7232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고 문 지장사 진공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장 장산사 지원
포교부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장 자은사 도철
감 사 법성사 법공,
약사암 홍재

회 원 : 용화사(읍) 도진
문수암 덕안, 수암사 수현
보광사 지영, 연화사 원행
용화사(초전)연담,
대승정사 묘덕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전화 054)932-8443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산
총 무 이도각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대중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전화 054)262-1117
팩스 054)262-0149

"무엇이 부처님 오신날인가"

종교법인 화엄불교대학

회 주 진 귀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61
전화 053)754-4962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회 주 지성
주 지 상원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팩스 053)616-0408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
혜 운 정 사

총무원장 혜 일

주 지 청 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전화 053)621-6237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관련전문대출기관

- 전통사찰 불사대출 (기채승인부)
- 사찰매매잔금대출 (기타대출)

재무부인가 제9-205호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대구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지산치과의원

원 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프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전화 053)782-0022 팩스 053)782-2875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 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전화 054)954-8000(代)
팩스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대한불교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 장 수암 법혜

대구사원주지연합회신도회
회 장 임문우

• 부설기관 :
마하야나불교대학 / 마하야나 불교 합창단 / 수성구청소년수련관 / 달서구청소년수련관 / 수성구지역자활센터 / 공립은아어린이집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전화 053)629-9500. 629-0408
팩스 053)623-0408
www.dgbulgyo.com

합동석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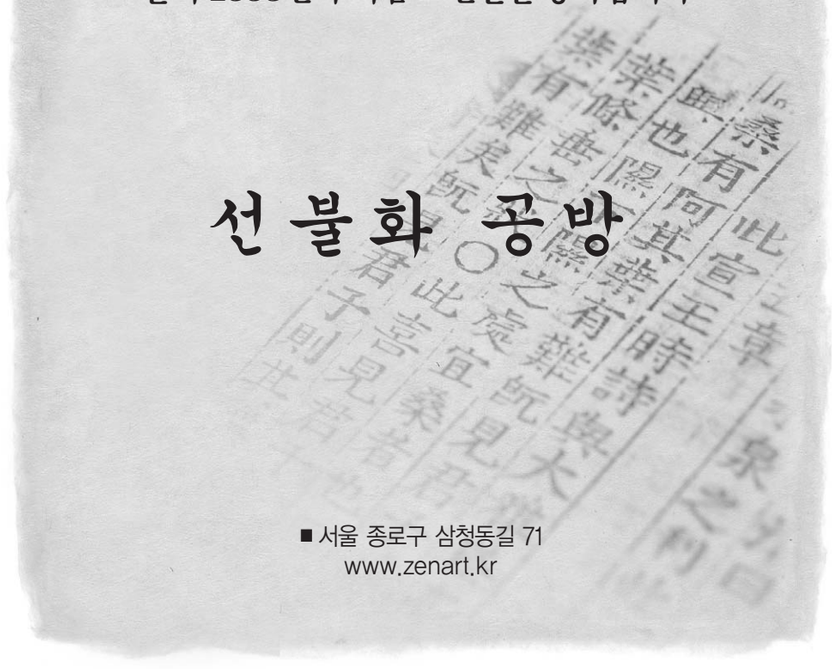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1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선불화 공방



■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 71
www.zenart.kr

729-B07면2009.4.2711:8AM페이지1(1,1)

말로써 베푸는 '언시' 생활화

정어

동산반야회
안동일 이사장



"무재칠시(無財七施) 중 '언시(言施)'는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을 가려해야 합니다."

4월 말 '동산반야회' 사무실은 4월 12일 열렸던 '동산반야회 연수원' 잔무와 봉축맞이 행사 준비 등으로 분주했다. 최고(最古) 불교대학으로 포교사 양성 요람이 돼 온 동산반야회의 도약에는 동산반야회 제2대 이사장인 안동일 변호사(80, 법무법인 홍익)의 역할이 지대했다.

안 이사장은 1993년 동산불교대학 3기로 인연을 맺은 후 '재가불자연합'과 '전국염불만일회' '붓다클럽' 등을 이끌고, 20여 년 넘게 조계종 법률고문을 맡아온 법조계 선지식이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명도단행 가처분' 등 종단소송

'(미래)자손 위한 창조적 봉사'
좌우명으로 법조계 외길 걸어
좋은 말은 화합과 나눔의 씨앗

과 법률상담으로 자신의 역량을 회향해왔다.

"4 · 19세대로서 자부심과 당시 스스로 새긴 '(미래)자손을 위한 창조적 봉사' 좌우명이 저를 법조계의 수많은 세파에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자유당 독재정권하의 부정과 부패로 암담했던 시대상황에서 저는 만 20세의 서울법대생으로 혁명에 동참했습니다."

이후 4월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사회 운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안동일 이사장은 "허위와 굴종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 봉화를 올린 정신이 그동안 법조계에서 활동 해온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4 · 19에 참여한 정의감으로 수많은 변론을 해왔지만, 어려운 재판과정들이 많았다. 국선변호사로 10 · 26 김재규씨 변론과 KAL기 폭파 김현희씨 등의 변호를 맡아 사회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안 이사장은 "법정에서 법조인의 역할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법률적 용어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앞서 모든 사람은 오직 진실(Nothing but the truth)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다. 지금까지 이 법언에 충실해왔다"고 자부했다.

안 이사장은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1987년 4 · 3호헌조치 반대 성명발표를 꼽았다. 안 이사장은 "당시 대한변협에서 공보이사로 협회지 '인권과 정의' 대변인도 맡고 있었다. 전두환 정권하의 군부독재시대에 대한변협은 사회단체 중 최초로 호헌조치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반대성명 발표가 6월 항쟁의 촉진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독재정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 국회 심지어 많은 국민들까지 '법'을 멀게 느끼고 법치주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며 준법정신의 훼손을 우려했다.

안 이사장은 "법은 대중들의 약속으로 교통법규 등 생활법규마저 지키지 않는 사회, 법을 만들고 이행하는 국회, 정부에서도 법을 경시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경책하며,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은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데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친절한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염불만일회 등에서 염불정진 하는 등 신행생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동산반야회 또한 힘든 상황이지만, 대아미타사 건립 등 재가불교의 미래가 될 사업도 지속하고 있다.

"보통 재가불자들은 '베품'을 재시로 생각하지만, 무재칠시를 생활화하는데서 진정한 '베품'이 시작된다. 특히 '언시'는 불자들이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출여전 불가경발 일입인이 유력난발'(言出如箭 不可輕發 一入人耳 有力難拔: 말이 나올 때는 화살 같아서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된다. 한번 사람 귀에 들어가면 힘이 있어도 빼내지 못한다.)는 경구도 있다. 항상 좋은 말을 가려해 서로 화합하고 나누는 삶을 살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정어(正語: 올바른 말) – "말 한 마디라도 종소리가 은은히 울리듯 하는 것"

부처님 원음 재현에 일생 바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전재성 회장

정업



"많은 공덕을 쌓아 내생에 행복하길 바란다는 생각을 갖고 번역한다기 보다 옳은 일이니까 고통을 감수하고 '그저 할 뿐'입니다."

팔정도 중 정업(正業)은 일체의 행동을 사제(四諦)의 진리에 맞는 정견(正見)과 정사유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자신의 직업에 맞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영어, 독일어, 빨리어, 산스크리트어, 인도어 등을 해독하는 불교학자로서 빨리어 경전 번역에 몰두하는 전재성 박사도 정업(正業)을 실천 하는 이들 중 하나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55) 박사는 20년 동안 부처님의 원음을 담은 초기경전들을 홀로 묵묵히 번역해왔다. 홀로 번역한 경전과 책은 <거지성자> <쌍윳다니까야 12권> <맛지마니까야 6권>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한권으로읽는쌍윳다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빨리어사전-어휘 · 문법사전> <법구경-담마파다>등 30권에 달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역경에 매진중인 전 박사는 불교학자로서 정업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부처님 당시 인도 등에서 사용되던 빨리어는 부처님 말씀을 오롯이 담고 있다. 하지만 한문을 통한 중역(重譯)으로 인해 중국식 번역투를 피할 수 없었고, 방대한 양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전재성 박사가 빨리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부처님의 원음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자들이 올바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니까야 및 초기경전 번역작업에 몰두하는 것 자체가 전 박사에게는 정업을 행하는 일이다.

전 박사는 "1982년 독일 본대학에서 인도 · 티베트학을 공부하던 때 독일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Peter Neujahr)와의 만남에서 대단한 감동을 받았다"며 "탁발로 연명하며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페터 노이야르를 보고 부처님의 모습이 떠올랐고 빨리어경전을 번역하기로 발원했다"고 설명했다.

유학 당시 빨리어로 쓰인 <맛지마니까야>가 1902년에 이미 독일어로 번역돼 있던 것에서 충격을 받았던 전재성 박사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싯다르타>가 니까야의

20년간 초기경전 묵묵히 번역
"각성 통해 삶의 방향 조절"
니까야 2년내 완역 목표

영향을 받은 것에서 니까야의 한국어 번역작업을 발심했다.

전 박사는 1989년 귀국해 지금까지 몇몇 개인과 단체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홀로 역경을 진행해왔다. 여러 시행착오도 많았다. 현재 전재성 박사는 <우다나경> 번역 작업을 진행중이다. 니까야의 완역을 2년 내로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정업이란 무엇일까. 그는 "착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을 정업이라 한다면 마음이 최고의 평정 상태일 때 정업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라며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울 때가 악한 상태이므로 이를 자각하고 명상 수행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다면 니까야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한다.

요즘같이 사는게 벅차다고 느껴질 때에 전 박사는 "스스로 본인이 알아차리고 각성을 통해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각자가 스스로 본인의 삶의 방향을 견고하게 만들어 마음이 맑고 안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조언한다.

묵묵히 니까야 완역으로 부처님의 원음을 불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정진하는 전재성 박사. 불자들이 니까야를 많이 접하길 바라며 오늘도 번역을 쉬지 않는 그에게서 정업을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을 엿본다. 한국빠알리성전협회 www.kptsoc.org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정업(正業: 올바른 행동) – "정업은 본분에 충실하는 것"

2년여 동안의 학술 연찬을 통해 드디어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발간!

"이 금강경을 지니고 보고 외워 다른 사람을 위해 연설하라" – 응화비진분



독 | 송 | 본 5,000원
주 | 석 | 본 9,000원
한 | 글 | 사 | 경 | 본 4,000원
한 | 문 | 사 | 경 | 본 4,000원
포 | 켓 | 용 3,000원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역

전국 사찰 법보시 주문 쇄도!
발간즉시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금강경 공부해야 대학 졸업!

경희대 한의대생 고전 20권 이상 안 읽으면 유급

경희대 한의과대학이 고전 추천 도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학생을 유급시키는 학사 제도를 도입했다. 경희대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2년 간 교수들로 이뤄진 독서지도 전문위원회의 추천 도서 100권 중 20권 이상을 읽도록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중략) 추천 도서에는 『금강경』, 『논어』 등의 동양고전과 『군주론』, 『그리스 · 로마 신화』 등의 서양 고전, 『자본론』, 『과학혁명의 구조』같은 인문사회 · 자연과학 서적 등이 포함됐다. –중앙일보 3월 16일자

金剛般若波羅蜜經

조계종출판사 02. 733. 6390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나듯 말과
행동이 같은 이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
-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대 해 사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싫어 할 뿐이로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신심명 중에서-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
전화 053)818-4055 팩스 053)294-0408
www.dae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돈 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 지 보 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전화 054)285-0308

대한불교조계종
원 각 사

주 지 석대혜

신도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
전화 054)481-2363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보덕사

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63
전화 054)976-0108

대한불교조계종
직지불교대학 와룡정사

주 지 태 성

• 부설 : 선혜유치원 •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564-2
전화 053)588-3599 팩스 053)584-3599
유치원 교무실 053)593-3993~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포교원
청룡산 마하사

주 지 재 원

신도회장 김수월화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564
전화 053)637-2331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 지 부 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전화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대구분원 관 음 사

주 지 元 明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2가 26
전화 053)421-3700 팩스 053)427-1889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선 석 사

주 지 혜 만

신도일동

■ 경북 성주군 월향면 인촌2리 217
전화 054)933-9800 팩스 054)933-9916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 지 성 공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2리 865
전화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영주 관 음 사

선원장 도 기

신도일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전화 054)633-1138

대한불교조계종
지장기도도량 성 불 사

주 지 해각지성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영주시 상망동 67-3
전화 054)634-7918~9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 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영천 포교당 청량사

주 지 천 은

(영천시사암연합회 회장)

■ 경북 영천시 교촌동 237
전화 054)334-3526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무량암)

'자연 미륵부처님 기도성취도량'

회 주 혜 천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
전화 054)471-3771 휴대폰 016-371-4115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 지 법 성

(영덕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전화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주 지 법 흥

사부대중 일동

원만사 부설 유치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전화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 현 사

주 지 지 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전화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 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전화 052)298-5865, 6623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 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전화 054)931-7777, 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부설 : 아헹가 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전화 : 서울 02)599-8150
전화 : 대구 053)981-3553

대한불교조계종
장 암 사

주 지 도 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83
전화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제 9 교 구 천년기도도량 덕 사

주 지 연 암

신도회 일동

■ 경북 청도군 화양읍 소라리1
전화 054)372-7640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 지 포전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대가야 불교성지
고 령 반 룡 사

주 지 황룡법륜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전화 054)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서 봉 사

주 지 경 희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39-2
전화 053)471-4812 팩스 053)471-4813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전화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 지 경 암

신도회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전화 053)791-8137 팩스 053)792-0784

729-B09면 2009.4.27 11:9 AM 페이지 1(1,1)

"불법도 '스스로 마음 봄' 강조"

정명

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박사



"바르게 사는 것(正命)은 자기 자신을 믿고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별다른 것 없어요."

정신분석학의 대가 소암 이동식 박사(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 · 89)는 1976년 한국정신치료학회를 창립하고, 대한신경정신과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최고"라고 강조하는 노학자는 불교와 유교, 노장 사상을 통해 서양의 정신분석학을 풀이한 '도(道) 정신치료'를 창안한 장본인이다.

이 박사는 정명의 조건으로 '자존'과 '자신을 돌아봄'을 강조한다. 그가 '도 정신치료학'의 일가를 이루며 자신의 사명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자

동양의 불·유·도교로
서양의 정신분석학 풀이한
'도(道) 정신치료' 창안

존'이었다. 이동식 박사는 한민족 전체가 자존감을 잃고 방황하던 일제강점기 대구의전과 서울대 의대를 마쳤다. 미국에서 서양 정신의학을 공부했던 소암은 1958년 유학을 마치면서 귀국을 앞두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이동식 박사는 당대의 석학들이 떠든 내용이 무식한 한국인들도 다 알던 것임을 보고 깨달았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세계 최고이며 한국인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확신을 갖고 귀국한지 반백년이 넘었다. 지금도 소암 이동식 박사의 신념은 확고했다.

"WBC(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보세요. 한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은 '한국선수 같은 선수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박사는 개인은 물론 민족의 자존을 강조하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도 방법을 달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우리가 일본의 교과서를 갖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이 교과서에 일본은 백제의 후예라고 당당히 기록하고 떳떳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2001년 아키히토 일왕도 직접 백제 무녕왕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소암은 청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 등으로부터 불교를 익혔다.

이 박사는 "청담 스님 법문을 듣다보면 하고 싶은 말은 딱 두 마디였다. '자존심, 자기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과 '사람은 자기 필름을 돌리고 있다'는 두가지가 핵심인데 사람들이 못알아 들으니 길게 법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도 결국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과 불취외상자심반조(不取外相自心返照, 바깥에서 모양을 취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 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상대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개심을 품게 되는 애증(콤플렉스)이 바로 중생고입니다."

소암은 일반적으로 '콤플렉스'라 알려진 개념을 '핵심감정'이라 이름 붙였다. "대개의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평생 자기 삶을 지배하는 핵심감정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면 핵심감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소암은 "핵심감정을 지배하는 욕구가 없어지는 때가 무아(無我)이며 진여(眞如)"라고 말했다.

"대혜의 <서장>에 나오는 애응지물(碍膺之物, 가슴에 거리끼는 것)을 벗어남이 불교적 깨달음(覺)이며, '핵심감정'에서 해방되는 건강에 이르는 길입니다. 수행하면 건강해집니다."

'자존'을 바탕으로 '자기 돌아봄'을 '도정신치료'라는 학문으로까지 승화시킨 이동식 박사는 정명을 실천하는 재가선지식임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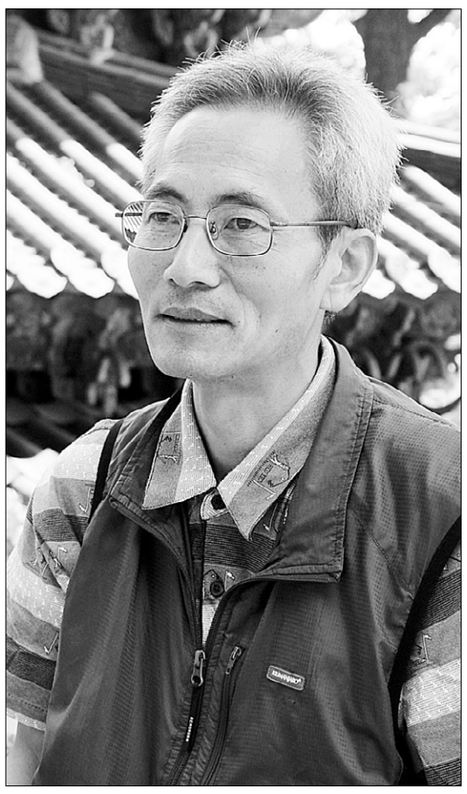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정명(正命: 올바른 사명) – "정명은 자기자신을 믿고 돌아보며 사는 것"

철야정진으로 일상에서도 '如如'

정정진

보림회 총무
전근홍 거사



"선생님(백봉 거사)의 유훈에 따라 매 주말 철야정진을 계속하다 보니 육신의 습(習)을 바꿔나가고 일상 속의 큰 경계에서도 여여(如如)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35년 여간 매 주말 철야정진과 동 · 하계 일주일 철야정진을 이어 온 보림회(회장 홍종화, www.borim.co.kr) 총무 청봉 전근홍(58) 거사. 토요일 저녁 8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보림사 선방에 가면 어김없이 좌복 위에서 20여 회원들의 정진을 이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세월 동안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입승(立繩) 소임을 원만하게 맡아온 그의 한결같은 모습은 팔정도의 정정진(正精進: 바른 노력) 즉, 바른 생활과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재가 수행의 전범이다. 한국의 유마거사로 존경받았던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제자들의 모임인 보림회가 스승의 입적 후에도 중단 없이 정진을 이어 온 것은 청봉 거사의 헌신적인 정진력이 절대적이었다.

청봉 거사는 1974년 1주일 용맹정진을 시작으로 철야정진을 계속한 결과 1777년 여름 철야정진, 1982년 동계 철야정진에서 각각 체험을 얻고 득력(得力)함으로써, 철야정진의 중요함을 실감하게 됐다. 그가 처음 선(禪)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 것은 1974년 여름이었지만, 화두가 순일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은 1977년 여름 철야정진 때였다. 당시 선방에 시계가 있었는데 참선을 시작해서 1~2분만 지나면 시계소리 조차 들리지 않고 오직 화두만 들렸다. 그러자 어느 순간 화두가 딱 끊어지면서 어떠한 실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마치 포항제철 같은 커다란 공장에서 정전으로 갑자기 기계가 딱 멈췄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적적함이라 할까, 처음으로 1초도 멈춤 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쉬어본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스승으로부터 받은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동산이 물위를 간다)' 화두의 답이 저절로 나왔다. 마치 정해진 답처럼 거침없이 종이에 적었다.

"예리한 칼을 들고 쫓고 쫓을 새, 갈 곳 없는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이 내 집안 소식을 토하는구나. 산은 푸르고 물은 맑은데, 할 일도 많았던 내 집안 일이 하나도 할 일 없는 그대로구나."

백봉 거사 유훈 따라 철야정진
낮에는 길상사 사무장 소임
밤에는 스승 유고 편집과 참선

백봉 거사는 이 글을 읽어 보고 "전군(청봉)이 화두를 깼다"고 말했고, 청봉 거사는 1982년 동계 철야정진 때 다시 한번 법열(法悅)을 체험한다. 이때 그는 "공겁인(空劫人: 불생불멸의 본래면목을 상징)의 분상에서 공겁사(空劫事)를 굴린다"는 스승의 설법을 듣고 자신이 바로 공겁인이라는 실감을 절실하게 느꼈다.

"선생님은 견성을 하고 난 오후(悟後) 수행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法身)이 자체성이 없는 색신(色身)을 끌고 다닌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성태(聖胎)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입적하는 순간까지 옛 성현들처럼 항상 그(自性) 자리를 놓치지 않는 보임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청봉 거사는 낮에는 서울 성북동 길상사의 사무장 소임을 보면서 밤이면 스승의 유고(遺稿) 편집작업과 참선으로 쉴 틈이 없다. 늘 하심하며 드러내지 않는 공부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몸은 출가하지 않고 세속에 있으나 마음은 출가자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출가 신불출가(心出家 身不出家)'의 경지를 엿보게 된다.

"늘 놓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스승의 유훈은 보이지 않는 죽비가 돼 오늘도 그를 '바른 노력'으로 이끌고 있다.

한 달, 아니 며칠도 해보지 않고 공부가 안 된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청봉 거사의 정정진을 거울 삼아야 하리라.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정정진(正精進: 올바른 수행) – "바른 생활과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고 용맹스럽게 나아감"

불기2553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모집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 3동 1301-20
전화 053)474-8228
한글도메인 : 한국불교대학, 다음까페 : 불교인드라망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성불산 안 일 사
주 지 선 광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6동 산225
전화 053)655-0225
부설 : 반야유치원 전화 053)655-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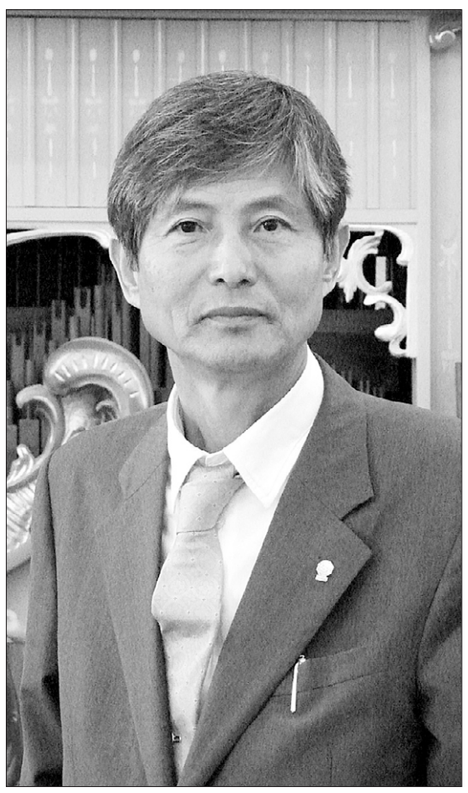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율원장 흥 륜
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전화 054)370-7100 /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B10면 2009.4.2711:10AM페이지1(1,1)

“나 바로 보려면 나 밖으로 나와야”

정념

진양유조선(주)
황경환 회장



매일 아침 위빠사나로 시작
“명상 필수불가결한 수행법”
부친이 불교와 첫 인연 맺어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금생보다 내생을 좋은 날로 바꿔주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 팔정도의 삶을 사는 것은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진양유조선(주)과 경주IC휴게소, 오르골소리박물관을 경영하는 황경환 회장은 매일 아침 1시간 가량 어김없이 위빠사나 명상에 잠긴다. 살다보면 아프고 피곤한 날도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일과라 여겨 절대 게을리 하지 않는다. 위빠사나란 ‘위’는 분리한다, ‘빠사나’는 본다는 뜻으로 무명에 가려있던 나를 보는 것을 말한다

“기업 운영의 성패는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식이 좋으면 하고자 하는 일의 판단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식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위빠사나 명상입니다.”

위빠사나와 불교의 근본은 초기 경전에 있다고 본다. 초기불교를 알면 사성제, 나아가 팔정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명상은 필수불가결한 수행법이라고 덧붙였다.

“부처님은 ‘내가 아닌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을 알려면 우선 나부터 바로 봐야합니다. 우리는 기적처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죽는다면 천추의 한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후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황경환 회장은 정념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 초기불교경전을 들었다. 한국의 경전들은 대부분 인도의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한자로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재번역한 것들로, 본래 의미가 퇴색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회장은 초기불경의 번역불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꼬집었다.

“사람들은 근본을 모르고 형상만을 따라가고 있어요. 불자들 중에는 건물불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의 번역불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법을 모르는 중생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불사가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황경환 회장이 있기까지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를 이끌어 준 것은 5명의 스승이었다. 아버지와 경봉 스님, 한국불교연구원 이기영 박사, 대행 스님, 김사철 박사가 바로 그들. 이 중 처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준 것은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였다.

“아홉 살 때 아버지께서 ‘환아, 너도 언젠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순간, 긴장할 때처럼 오줌이 마려웠어요. 또 어떤 자리에서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늘 일러주셨는데요. 그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겠단 신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평생의 화두를 가슴 깊이 새겨준 경봉 스님의 통도사 극락암 일요법회는 10여 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훗날 황 회장의 승용차로 스님의 위패를 다비장 입구까지 운구하기도 했다.

“경봉 스님은 ‘하루가 24시간이면 8시간 자고, 9시간 일하고, 4시간 놀아도, 3시간이 남으니 그중 1시간만이라도 이 몸을 이끄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라’고 명상수행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바세계를 무대로 연극 한번 잘하고 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내 밖으로 나와야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이제는 슬하의 세 딸을 둔 아버지가 돼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막내딸에게 언젠가 초기불교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 유학을 접고 3개월 전 스리랑카로 떠났습니다. 누군가 대화가 통하는 도반을 만나면 그 환희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게 제 딸이 된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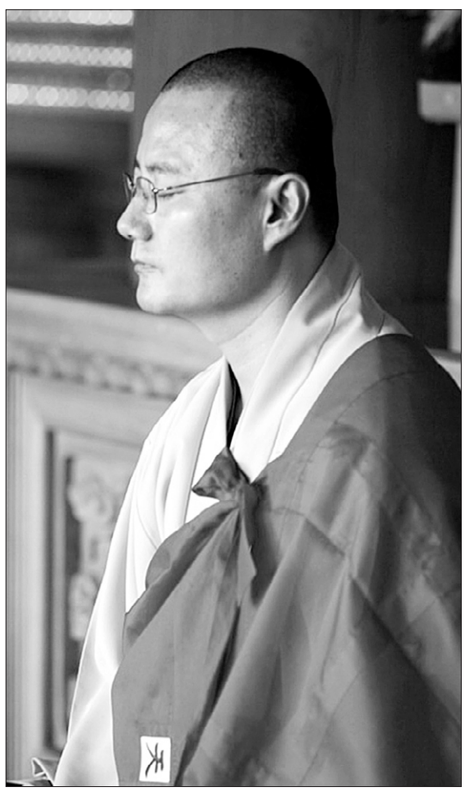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정념(正念: 올바른 기억) – “정념은 항상 올바른 기억을 갖는 것”

“선정 닦아야 실체 그대로 보여”

정정

김천 성전사 주지
정명 스님



매월 4박5일 ‘선정삼매수행’
홈페이지 통해 문답 적극
“집중으로 고요와 행복 찾아”

“흔들리는 물 속에서 항아리 밑바닥을 볼 수 없듯 마음집중은 위빠사나를 위한 기본조건입니다. 선정을 닦아야 몸과 마음의 진정한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명 스님은 김천 성전사 주지소임을 수행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명상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성전사를 비롯해 여주불교대학 등 다양한 법석에서 초기불교와 마음집중 등에 대해 강의하는 ‘정정(正定)’의 전문가다.

스님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신집중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전사에서 매월 4박5일간 ‘선정삼매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선정삼매수행에 대해 스님은 “여러 불자들과 함께 수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선정삼매수행의 참가비는 자율보시로 운영된다.

정명 스님은 또 불자들이 선정 · 위빠사나 수행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정명 스님의 성전사(planet.daum.net/hsk040404)’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위빠사나 · 선정삼매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경 및 염불 듣기 등 불자들에게 유익한 문화의 장도 마련했다.

정명 스님이 2008년 6월 초기불교수행법에 관한 체험 등을 일기형식으로 정리한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남방불교선방일기>를 출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마타 수행법(선정삼매 등)을 책으로 정리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따라하고, 바른 마음집중을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번뇌와 망상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적인 일상에 괴로워하죠.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집중은 스트레스를 억누르거나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에 고요와 행복감을 깃들게 해 ‘바로 지금 이순간’ 깨어있는 것이죠.”

정명 스님은 복잡한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히 선정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정수행은 불안 · 우울증 · 조울증 ·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고혈압 · 당뇨 등 성인병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의대와 영남의대 등에서는 대체의학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정신집중수행을 교육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명 스님이 재가불자들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선정수행법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나빠나사띠. 들숨과 날숨의 마음을 챙기는 명상수행법이다. 윗입술 위와 콧구멍 아래, 콧구멍 입구와 콧구멍에서 호흡이 부딪치는 접촉점을 찾고, 그 지점에서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정명 스님은 “우리의 마음 한번에 2개 이상의 대상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아나빠나사띠를 수행하면 결과적으로 마음이 통제되고, 높아진 집중의 힘으로 마음의 고요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월 청소년명상캠프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다”며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은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부모와 학생의 또다른 행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정정(正定)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정명 스님의 모습에서 경전 한구절이 떠오른다.

“출가해 수행자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다.” <선가귀감>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정정(正定: 올바른 마음집중) – “정정은 유익한 마음의 하나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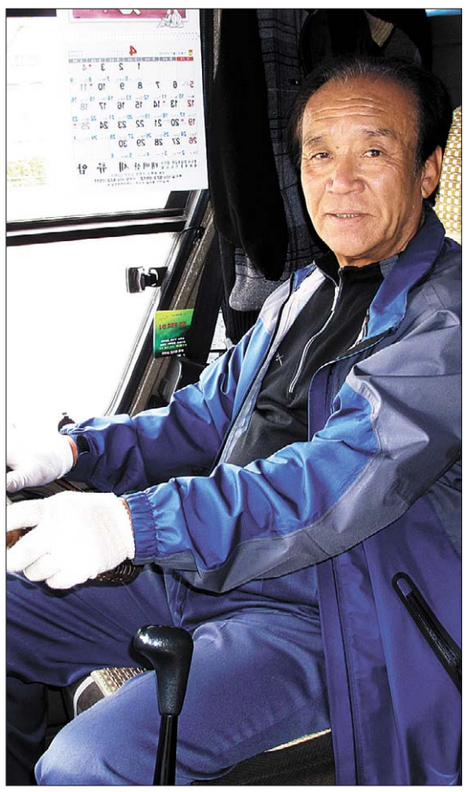




729-B11면 2009.4.2711:14AM 페이지 1(1,1)

"안전운전이 곧 기도, 부처님 가피 함께 해"

구룡사 셔틀버스 ▮ 여평구 기사



구룡사 셔틀버스 기사 여평구(65) 거사를 만난 것은 4월의 어느 일요일이었다. 여 거사는 이날 구룡사 일요법회에 온 불자들의 차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택시기사로서 운전불자연합회 창립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여 거사가 구룡사 버스를 몰게 된 인연은 무엇일까.

여 거사가 처음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은 1973년 제대 후 법무부 재소자 호송버스를 몰면서 부터였다. 그러던 중 신혼과 예쁜 딸아이까지 낳아 미래를 설계하던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 왔다. 1975년 교통사고로 인해 딸의 머리 일부분이 함몰됐기 때문이다.

여 거사 자신도 부모님이 용주사 문수암에 기도를 해 어렵게 태어난 자식이었기에 딸 아이의 사고 소식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다. 다행이 목숨은 건졌지만, 이후 사고 휴유증으로 정신지체를 앓게 됐다.

여 거사는 "딸아이가 자라면서 담배 등 심부름을 시키면, 집 대문을 나서기 무섭게 다시와 물어볼 정도"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이런 딸을 위해 여 거사는 다른 이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 했다. 법무부 호송버스로 매일 아침마다 대전중학교 학생 100여 명을 안전 등교시킨 것이다.

이러한 선업은 그에게 또 다른 선과를 낳았다. 여 거사의 선행이 알려지며 1987년 배명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표창을 한 것이다. 부상으로 받은 택시로 그는 호송버스를 은퇴하고, 택시기사가 돼 대전 운불련 창립 당시 총무부장을 맡는 등 본격적인 신행활동에 나섰다. 100여 대의 불자기사들은

장애딸 평범한 삶 사는 것에 감사

시설아동 야유회와 노인효도관광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전개했다.

그의 신심이 더욱 증진된 계기는 조금씩 상태가 호전된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며 고교에 진학할 때였다.

여 거사는 "당시 정신지체로 딸아이가 전교 최하위를 도맡다시피 했다. 오죽했으면 담임교사조차도 여상 진학에 희의를 보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상조차 못가면 사람구실을 못할 것 같아, 시험을 봐서라도 보내겠다고 했다. 당시 그 중학교에서 가장 공부 못하는 3명이 그 시험에 응시했다"고 토로했다.

시험에 앞서 여 거사는 평소 교양대학으로 다니던 대전중앙불교회관에서 매일 새벽 3시부터 6시간씩 불공을 드렸다. 기도의 영험일까, 다행이 딸은 3명 중 유일하게 시험을 통과해 합격했다.

여 거사는 이를 두고 "부처님의 가피로 가능했다. 이건 기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이들은 여상 간 것이 대수냐고 말할 수 있지만, 목숨을 잃을 뻔 한 아이가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스스로 진학했다는 기쁨은 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던 것이다.

여 거사는 "딸이 이제는 30대 아줌마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다.

현재 여 거사는 1993년부터 서울시내 버스기사를 하며 구룡사 일요법회 등에 다닌 인연으로 2000년부터 구룡사 셔틀버스를 몰고 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천수경>을 틀며 양재역에서 구룡사로 오가는 8번의 운행은 그에게 일종의 팔정도 수행이다. 갑자기 뛰어드는 오토바이도, 앞을 가로 막는 택시에도 묵묵히 염주를 돌리는 그의 운행에는 불심이 가득하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가정의달 5월, 전국 사찰은 수많은 불자들로 북적인다. 성지순례를 하기 위한 참배객들부터 꽃구경을 하기 위한 등산객까지 사찰을 찾는 이는 다양하다.

이런 불자들을 위해 주요사찰들은 셔틀버스 및 관광버스를 운용하고 있다. 기도처의 염불 · 절 수행 열풍 뒤에는 안전히 그들을 나르는 버스기사들의 노고가 숨어 있었다. 기사들은 전국 어느 외진 곳에 위치한 성지라도 어김없이 신심을 싣고 달리고 있다. 매년 10만km를 달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가족의 마음에 '나' 맞추자 모두 잘 풀려"

YES관광 ▮ 허길웅 기사

Yes관광에 근무하는 허길웅 거사(67)는 1993년부터 관광버스 운전을 시작했다. 15년간 기술자로 괌, 사우디 등 한국통신의 해외지부 근무 후 돌아온 그를 반긴 것은 그동안 기다려 준 아내와 유치원 다닐 무렵 떠나 다 성장한 아들, 딸이었다.

"집에서 생활을 같이 안 하니, 마치 손님 같았지."

매년 가족을 보기위해 한 차례씩은 한국을 찾았지만 그에게나 아내와 아이들에게나 힘든 시간이었다.

특히 사춘기에 아버지와의 정서적 교감을 갖지 못한 부자간 갈등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다. 건축사로 일하던 아들이 IMF당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머물며 더욱 갈등은 촉발됐다. 평소 완고한 성격이기도 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젊어 고생을 마다 하지 않은 그에게 30대 노총각이 실업자가 돼, 집에서 밤새 게임하는 아들의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내와 함께 아들은 식당일을 시작했지만 불편한 관계는 그대로였다.

"다툼이 끊이질 않아, 퇴근 후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을 정도였다. 아들 편을 드는 아내와 각방을 쓸 정도로 나빠졌다. 오죽했으면 집에 키우던 개가 발소리를 먼저 듣고 짖으면 방에 들어가 잘 정도였다"고 허 거사는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허 거사의 가정사는 순례 운행 후 우연히 동참해 들은 고우 스님 법문으로 달라졌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피곤함에 취침하는 여느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봉화 금봉암에 도착해 쉬려던 허 거사는 유난히 법문을 듣고 싶어졌다.

법회를 찾은 그에게 고우 스님은 "사람은 갈 길이 다르고, 자기 행을 닦는 인연 따라 과보가 온다"며 "누가 누구를 위해 빌어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시신기증 서약 · 재산도 사회환원

법문했다.

이후 허 거사는 아들에 대한 마음이 일종의 욕심임을 깨닫고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을 내기로 결심한다. 그동안 허 거사의 인생과 생활에 아들이 맞추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신기하게도 가족의 마음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자 모든 일이 화목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족도 자신에게 맞추기 시작했다.

허 거사는 "우선 평소 하지 않던 설거지 등 집안일부터 나서서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도 서로 집안일을 도왔다. 그러다 보니 대화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하게 욕심을 버리니, 서산 땅에 4차선 도로도 나는 등 오히려 복이 들어오더라"고 말했다.

허 거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07년 서울대에 시신기증 서약을 하고, 대신 장례비를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선언했다. 자그마한 서산 땅도 자녀들에게 사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거사의 운전습관도 변했다. 빠르게 가기 보다, 주변을 둘러보며 법문 하나를 함께 듣는 여유가 생겼다. 불자들과 순례 시 주로 듣는 테이프는 역시 고우 스님의 법문 녹음집이다.

원래의 성실함에 더해 운전에 여유가 더해지자 총무원, 중앙신도회와 각 사찰에서 요청하는 일 또한 밀려들기 시작했다.

현재 허 거사는 관광버스 기사도 하며, 종로구청 앞 아들의 '강원식당'과 조계종 총무원 앞에 있는 아내의 '만화식당' 일도 돕고 있다. 내년이면 40을 앞둔 아들도 올 해 장가를 갈 계획이다.

"버스 노래방 기기를 이용해 찬불가와 사찰 안내, 주변 볼거리가 번호만 누르면 나오는 방송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허 거사. 그의 버스에는 여유가 가득하다. (011)227-4700

※연지원은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종교단체 봉안당입니다.

천년고찰 奉元寺

봉원사 연지원 봉안당이 장묘문화의 새장을 열겠습니다

봉원사 경내에 위치한 연지원은 교통이 편리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최고의 명당지로써 완벽한 최첨단 현대식 시설과 쾌적하고 세련된 고품격 디자인으로
고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혼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봉원사 연지원은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봉원사내 연지원에서 가신 님의 영혼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또한 영가의 극락왕생과 자손의 발복을 기원하며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 숲속의 영원한 안식처
고품격 색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으며, 항상 쾌적한 숲속의 넓은 공간은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 첨단시설과 온라인 추모시스템
봉안당내는 항상 쾌적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자동항온항습시스템 등을 완비하여
완벽한 편의 시설과 영구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보안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산림욕과 휴식공간
가족과 같이 길을 따라서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산림욕으로 심신의 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내에 전통찻집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천불전 경내에 있는 안치단



부부단



개인단



(삼천불전 1,024기 설치신고필증)

한국불교태고종 奉元寺 봉원사 연지원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23번지 전화 02)365-7678~9 / 팩스 02)365-7680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 보람된 일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 법구경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 인 중 학 교
이사장 종 광
교 장 김영현 교 감 이종서
법인사무국장 일 륭 행정실장 이 은 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800
전화 053)764-0802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 지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 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대방산 보림사
주 지 선 주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67
전화 053)614-4526, 7169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주 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하루헌 카페, 영남불교문화연구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257
전화 053)767-0274 팩스 053)762-8950
휴대폰 011-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주 지 혜 선
(금용복지회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전화 053)628-5404

학 교 법 인
능 인 학 원
이사장 종 광
교 장 김태욱 교 감 양근식
교 법 사 아 용 법인사무국장 일 륭
행정실장 김홍석
능인고등학교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전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 도 일 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전화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고 방 사
주 지 성 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485
전화 054)431-6822, 6823

대한불교조계종
삼성산 삼성사
회 주 원공정무대종사
주 지 도 성
'세계 최대 불교종합 복지관 건립기도도량'
■ 경북 경산시 유곡동 267-2
전화 053)856-1110

대한불교조계종
시 래 사
주 지 묵 조
■ 경북 경주시 시래동 784
전화 054)746-1456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 지 동 진
사부대중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전화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대중일동
문화강좌 안내 :
선체조/다도/어린이천자문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 구 도 광 사
주 지 법 성
신 도 일 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1708-6
전화 053)653-8583 팩스 053)656-1843
휴대폰 010-2015-7223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대구교구 종무원 덕 안 사
주 지 종무원장 종 범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129-11
전화 053)656-4144

대한불교원효종
관음기도 도량 대 각 사
주 지 대 각
신 도 일 동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 1동 325-3
전화 052)296-0908

홍익법인 한국불교미타종
(종립)한국승가대학
종정 대종사 의륜
총무원장 대종사 왕인
총무부장 성원 포교부장 법인
※종도등록 접수받고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61-17
전화 053)621-3610, 625-3372

관음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 지 보 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용 암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20
전화 054)277-3611팩스 054)277-3644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 지 법 원
(성주사암 연합회 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전화 054)933-7881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주석사찰
부처골 지장선원
주지 혜봉 대종사
(다음카페:부처골 풍경소리)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
전화 054)383-8553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 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44

대한불교부처님세계
수 참 사
주 지 영 암
관음회장 최영희
신도회장 이계향
회 원 일 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전화 053)561-3129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경북교구종무원
조 실 월운성도
종무원장 만 학
총무부장 청명 위원 관 법
사부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사곡동 603-243(용불사)
전화 054)465-4658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 선 원 사
주 지 성 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전화 054)975-6976

대한불교선각종
영천 보현산 등명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선혜
신 도 일 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전화 054)337-4572(등명사)
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휴대폰 010-5506-9448

구미 선산 비봉산
서 황 사 (구, 죽장사)
주 지 명 효
총 무 견 진
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전화 054)481-2736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 지 법 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 3리 838
전화 054)636-2201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 지 우 륵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전화 053)982-9329 팩스 053)983-1698

개원사 심녕총림
개 원 사
주 지 문 공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6
전화 053)981-0995

(사)한국미륵불교
천 용 사
주 지 덕 련
■ 경북 구미시 광평동 170-4
전화 054)451-7769

729-B13면 2009.4.27 11:18 AM 페이지 1(1,1)

부모님과 함께 가요

정조의 효심으로 세워진 화성 용주사

효행본찰로 알려진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는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임금에 의해 대대적인 중수가 이뤄진 사찰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인근의 융건릉으로 옮기면서 본래 갈양사라는 작은 절을 중수해 융릉의 원찰로 삼고 이름을 용주사로 바꿨다. 용주사(龍珠寺)라는 이름은 사찰을 낙성식날 밤 정조의 꿈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해 붙여진 이름이다.

여주 신륵사처럼 원찰로 세워진 용주사는 평지에 자리한다. 지금도 도로변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모시고 가기에도 좋다.

평지에 있긴해도 용주사 경내는 정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회양나무(천연기념물 제264호) 등 오래된 고목이 곳곳에 우뚝 서 있고, 건물들도 짜임새 있게 배치돼 사찰의 정취가 물씬하다.

용주사에는 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을 비롯해 다수의 문화재가 있다. 특히 불이문인 천보루가 회랑으로 감싸여 있는 점은 독특하다.

은중경탑과 효성전, 효행박물관 등도 용주사의 볼거리다. (031)234-0040

찾아가는 길
네비게이션: 경기 화성시 송산동 188번지 용주사
대중교통: 1호선 병점역 하차 버스 이용(50번, 35-1번)

전 · 현생 부모 위해 지은 경주 불국사 · 석굴암

신라 재상 김대성은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해 각각 사찰을 창건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죽은 뒤 열달 후 다시 태어난 김대성은 석굴암은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는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 지었다.

불국정토를 그대로 사찰로 장엄한 불국사(주지 성타)는 경역 전체가 대한민국의 사적 및 명승 제1호이며, 1995년 석굴암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일주문을 지나서부터 대웅전 앞까지 아름다운 풍광과 유물들이 끊이지 않는다. 일주문을 지나 바로 만나는 연못은 한국 사찰 중 가장 큰 규모의 연못이다. 해탈교를 지나 천왕문을 넘어서면 청운교, 백운교가 있는 회랑 건물을 만난다.

정면에서 오른쪽 청운교와 왼쪽 백운교(국보 제23호) 위의 문이 자하문이다. 왼쪽에서 조금 낮은 계단은 연화교와 칠보교(국보 제22호)이고 그 위의 문은 안양문이다. 자하문 옆으로 돌아 올라가면 대웅전을 만나게 된다.

대웅전은 뜰에 다보탑(국보 제20호)과 석가탑(국보 제21호)을 품고 있다.

대웅전 뒤로는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을 봉안한 비로전과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 극락전 등이 있다. (054)746-9913

토함산 기슭에 위치한 석굴암(국보 제24호)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창건을 시작해 혜공왕 10년(774)에 완성됐다.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렸다. 주차장에서 5분여를 걸어 들어가면 석굴암을 만난다. 평탄하게 정비돼 어르신을 모시고 찾기에도 좋다. (054)746-9933

찾아가는 길
네비게이션: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번지 불국사 / 석굴암
대중교통: 경주역,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불국사행 버스 다수, 석굴암은 불국사 앞에서 석굴암 입구까지 아침 10시부터 매시간 마다 셔틀버스가 다닌다.

절 나들이로 사랑 쑥쑥

5월은 '가정의 달'이다. 5일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까지. 1년 중 가장 많은 기념일 있는 5월은 축복과 감사의 달이다.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는 좋은 날, 사찰을 찾아 부처님과 함께하며 원력과 신심을 다지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자녀와 함께 가요

전국 사찰 어린이날 행사 '풍성'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5월 2일 어린이를 위한 불교문화 체험마당을 펼친다. 행사는 조계사 중고등학생회와 대학생회 회원들이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초만들기 △전통공예 △단주만들기 △컵등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사불 · 사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오후 4시부터는 봉축 기념 작은 음악회도 준비됐다.(02)732-2183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서울지부는 같은 날, 서울 봉은사에서 제2회 프리허그(free hug) 이벤트 및 제1회 금연캠페인이 개최한다.

전북지부는 23일 김제 금산사에서 '제13회 청소년 모악축제'를 연다.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축제 한마당인 모악축제는 문예 · 사생 · 음악페스티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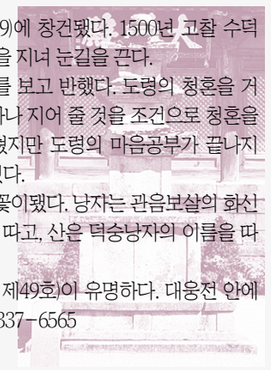
같은 날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이 자연 속에서 출사를 즐기는 오대산 전국디지털 사진공모전을 연다. (033)332-6665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는 전국 각 지구별로 제25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울산지구는 2일 울산 정토사에서, 광주지구는 10일 상무대 무각사에서, 밀양지부는 24일 밀양 용궁사에서 각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 글짓기 대회를 연다.

여주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도 어린이날 당일인 5일 '제15회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지 대회'를 개최한다. 만5세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크레파스화, 수채화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031)885-9952

부부 · 연인과 함께 가요

수덕도령과 덕숭낭자 전설 서린 예산 수덕사



수덕사(주지 옹산)는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됐다. 1500년 고찰 수덕사는 덕숭낭자와 수덕도령의 애틋한 전설을 지녀 눈길을 끈다.

홍주마을에 살던 수덕도령은 덕숭낭자를 보고 반했다. 도령의 청혼을 거절하던 덕숭낭자는 자기 집 근처에 절을 하나 지어 줄 것을 조건으로 청혼을 허락했다. 수덕도령은 어렵게 불사를 마쳤지만 도령의 마음공부가 끝나지 않아 낭자는 한 쪽 버선만을 남기고 사라졌다.

덕숭낭자가 남긴 버선은 버선꽃이라는 꽃이됐다. 낭자는 관음보살의 화신이었고 이후 수덕사는 수덕도령의 이름을 따고, 산은 덕숭낭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이라 이름 붙여졌다.

수덕사는 고려시대 창건된 대웅전(국보 제49호)이 유명하다. 대웅전 안에는 괘불(보물 제1263호)이 봉안됐다. (041)337-6565

찾아가는 길
네비게이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 수덕사
대중교통: 홍성역, 홍성터미널에서 버스 이용

의상 대사와 선묘낭자의 사랑 담긴 영주 부석사

의상 대사와 선묘낭자의 사랑이 깃든 부석사(주지 근일)는 최고(最古) 목조건축인 무량수전이 유명하다. 은행나무로 둘러싸인 500m 길이의 사찰 진입로도 운치를 더한다.

부석사는 의상 대사가 신라시대(676년) 창건했다. 의상 대사가 부석사를 창건할 때 도적들이 방해하자 대사를 사모하던 선묘가 용이 돼 나타나 큰 돌을 공중으로 들어 도적들을 쫓았다. 선묘의 도움으로 도적들이 물러가 의상대사는 부석사를 창건할 수 있었다. 선묘가 바위가 돼 땅에 내려앉은 바위를 부석(浮石)이라 하고 선묘의 도움으로 지어진 이 절의 이름을 부석사(浮石寺)라 이름했다. (054)633-3464

찾아가는 길
네비게이션: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부석사
대중교통: 풍기에서 부석사행 버스 이용

남녀 만남에 영험한 관음보살 모신 서울 옥천암

서울 옥천암(주지 정범)은 '남녀 간의 만남'에 영험한 관세음보살이 있어 젊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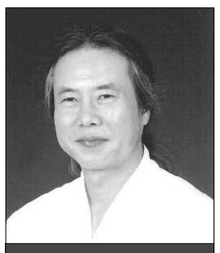
낙산사 홍련암, 남해 보리암, 강화 보문사와 4대 관음성지로 알려진 옥천암은 백불로 불리는 마애관음보살(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 유명하다.

옥천암 마애관음보살은 흰색 호분(胡粉:석회질 암석)이 두껍게 칠해져 '보도각 백불(普度閣白佛,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로 불린다.

또 옥천암은 조선 후기 고종의 어머니 민씨가 고종을 위해 기도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에 앞서 태조 이성계는 한양 천도시 옥천암 마애관음보살 앞에서 기도를 올린 곳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02)395-4031

찾아가는 길
네비게이션: 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8번지 옥천암
대중교통: 3호선 홍제역→08번 버스(유원하나아파트)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장한빛 仙師]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과정 교수역임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 (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하였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괘씸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간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제 3의학 아카데미"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昨今의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상 저촉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 인접)
• 교육기간 : 5월 4일 ~ 5월 9일 [5박 6일]
• 전수비용 : 200만원 (숙식제공) • 계좌번호 : 농협 195-02-287327
• 전수교육 안내 032)937-7182 / 010-5721-2266 전국대표 1588-7638 WWW.HANVIT.TV

주최 : 제3의학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지원센타 (피부, 비만, 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센타설립문의)

제 1기 선착순 12명

• 내과적영역 초.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턱관절장애, 백내장, 아토피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 물혹(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 외과적영역 목,허리디스크,안면마비,모든 종류의 두통,현운,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항강통,어깨결림,오십견,테니스 골프 엘보우,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악성무좀,중풍후유증,뇌성마비,생리통,채머리증,족저통,수전증,족저통,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 합기도, 체육관, 각종수련원, 단식원운영자 각종 의료기홍보관 운영자 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 ×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꽃꽂이 강의
매주목요일
오후 1시~3시



사부대중일동
기 원 사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TEL 02)918-0034

한국불교꽃예술연구원
보 림 꽃 예 술 중 앙 회

몸과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적 건강까지...

현대 과학이 창조한 신비의 연금술

알키미온(Alchemion)이란?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선인들의 지혜와 첨단 소재를 개발해 온 현대과학이 조화를 이루어 창조해 낸 새로운 차원의 신물질입니다. 뛰어난 영능력자에 의해 여러 광물질을 수 년간의 숙성과 특수 공정과정을 거치면서 대우주의 강력한 에너지를 연결시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높여 주도록 제조된 영적인 물질입니다.



알키미온 거북이
거북이는 예로부터 건강, 장수, 행운을 가져오는 영물로 여겼는데, 하늘의 조화로운 기운으로 가정과 사업체에 영적건강과 행운을 가져옵니다.

알키미온이 필요하신 분
- 정서 불안으로 안정이 필요하신 분
- 손발이 차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정력강화와 자신감을 원하시는 분
- 영적 불균형으로 심인성 장애가 있으신 분
-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원하시는 분
- 직장과 사업체의 성공을 원하시는 분



알키미온 파워카드
각종 질병으로 인해 몸이 허약하거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 주는 등 자동 조절효과가 나타납니다.



알키미온 여의주
여의주란 예로부터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구슬을 뜻하며, 심신의 완전한 건강 뿐만아니라 가정과 사업을 만사 형통으로 인도합니다.

ALCHEMION (주)무단 참다운 건강을 전하는 기업 단체 상담 환영합니다. 상담전화 02)924-3500

"불기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온 우주법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대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1,700년 한국불교로 이어져왔습니다. 불교신도와 신도회도 그 역사와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민족의 삶을 일구어 왔습니다. 또한 천년가람을 수호하고 불법을 잇는 주춧돌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중앙신도회가 소통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소통하는 공간과 희망을 주는 불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중앙신도회와 함께 탁마하는 본 회와 부설기관의 임원과 함께 전국의 대의원, 신행단체 · 교구 · 사찰신도회를 비롯한 기초지역단체의 신도회와 불자 여러분들과 다같이 깨달음의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명원 김의정 합장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신도회관
전화 02-733-7277 전송 02-733-7278
홈페이지 : 중앙신도회 www.LBA.or.kr

■ 부설기관 : 사) 날마다 좋은날 · 불교인재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 부설위원회 : 반갑다연우야 · 불교정책기획단 문화재환수위원회 · 미얀마불교대책위원회 종교화합위원회 · 세계불교도우의회 · 지역본부



종교법인 : 국제불교협회 국제불교 지도자 협회 02)733-5665

"불기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국내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 후진국들의 어두운 곳에서의
자랑스런 봉사자들의 땀방울이 부처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봉사하는 주역은 법하이십니다. 같이 일합시다. 모두 동참바랍니다.

목탁. 혜정. 법성. 천장. 문수. 법진. 현담 합장



KOREA MYANMAR
FRIENDSHIP INTERCHANGE ASSOCIATION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법인
한국 미얀마 친선 교류 협회

729-B15면 2009.4.27 11:11 AM 페이지 1(1,1)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성지순례를 떠나 보아요. 불패가 놓이는 108성지마다 그 의미를 새기며, 새롭게 발원합시다.

 # 게임방법

아기부처님에 불패를 놓고 윷을 공손히 모아 경건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도판 위에 던진다. 도 · 개 · 걸 · 윷 · 모는 숫자로 바꿔 1 · 2 · 3 · 4 · 5로 진행한다.

윷을 던져 나온 수대로 1번 성지부터 108번 성지까지 순례한다.

회원 여유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을 지정해 한 사람은 불패를 운행시키고, 한 사람은 염불 목탁을 치게 한다.

검은 칸에 불패가 걸린 회원은 다음 윷을 던지기 전 모두에게 1배 한다.

❶❷❸❹❺가 붙은 칸에 불패가 걸린 회원은 퀴즈를 푼다. 맞추지 못하면 1회 쉬며 모두에게 3배 절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먼저 성불한 사람에게 다함께 삼배를 올린 후 설법을 듣고 먼저 성불한 사람은 그 판의 가장 늦은 사람의 편이 돼 함께 진행한다.

Quiz 사진보고 맞춰 보아요

1, 32번은 어디일까요?

2, 52번은 어디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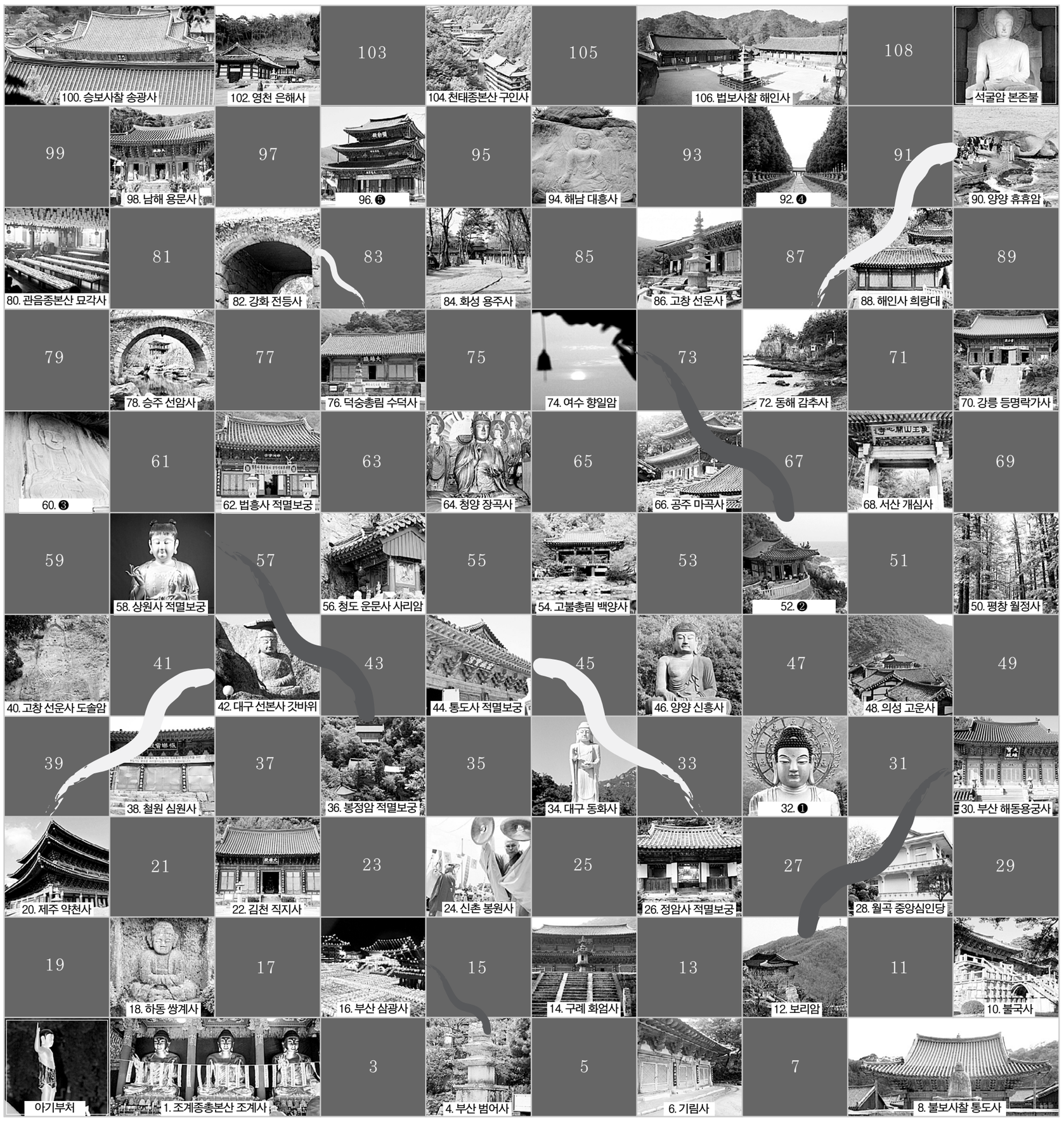
3, 60번은 어디일까요?

4, 92번은 어디일까요?

5, 96번은 어디일까요?

= 정답 =

1. 보문 법주사
2. 낙산사 홍련암
3. 강화 보문사
4. 제주 관음사
5. 갑사 금산사



빙의(귀신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중생... 그 고통을 함께합니다



빙의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교육비용 : 200만원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최근에는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도시 지역에서도 건설 중이며, 각종 문화시설이 마련되는 등 시민들의 쉼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지하철 역사 명칭이 불교의 인연으로 유래했다면? 전국 지하철과 연계된 110여 개 사찰 중 특별히 역 · 지명과 인연이 깊은 사찰 20개를 선정했다.

직장인과 등산객, 어르신들의 소중한 이동수단에서 더 나아가 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지하철로 여행을 떠나보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5월, 지하철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느껴진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불광역-불광사 · 진관사

'불광'은 바위와 대소 사찰이 어우러진 형세가 마치 부처님의 서광같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불광사가 위치해 유래됐다는 설도 있다. 불광동과 인접한 북한산 자락에는 서울 4대 명찰 중 하나인 진관사를 비롯해 불광사, 삼천사 등 많은 사찰이 위치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삼천사의 경우 구파발 역이 가까우나 불광역에서 삼천사 입구까지 704번이 운행된다.



가는 길: 불광역 9번 출구-7720번 버스-독바위-불광사, 불광역-720번 버스-진관사

안국역-조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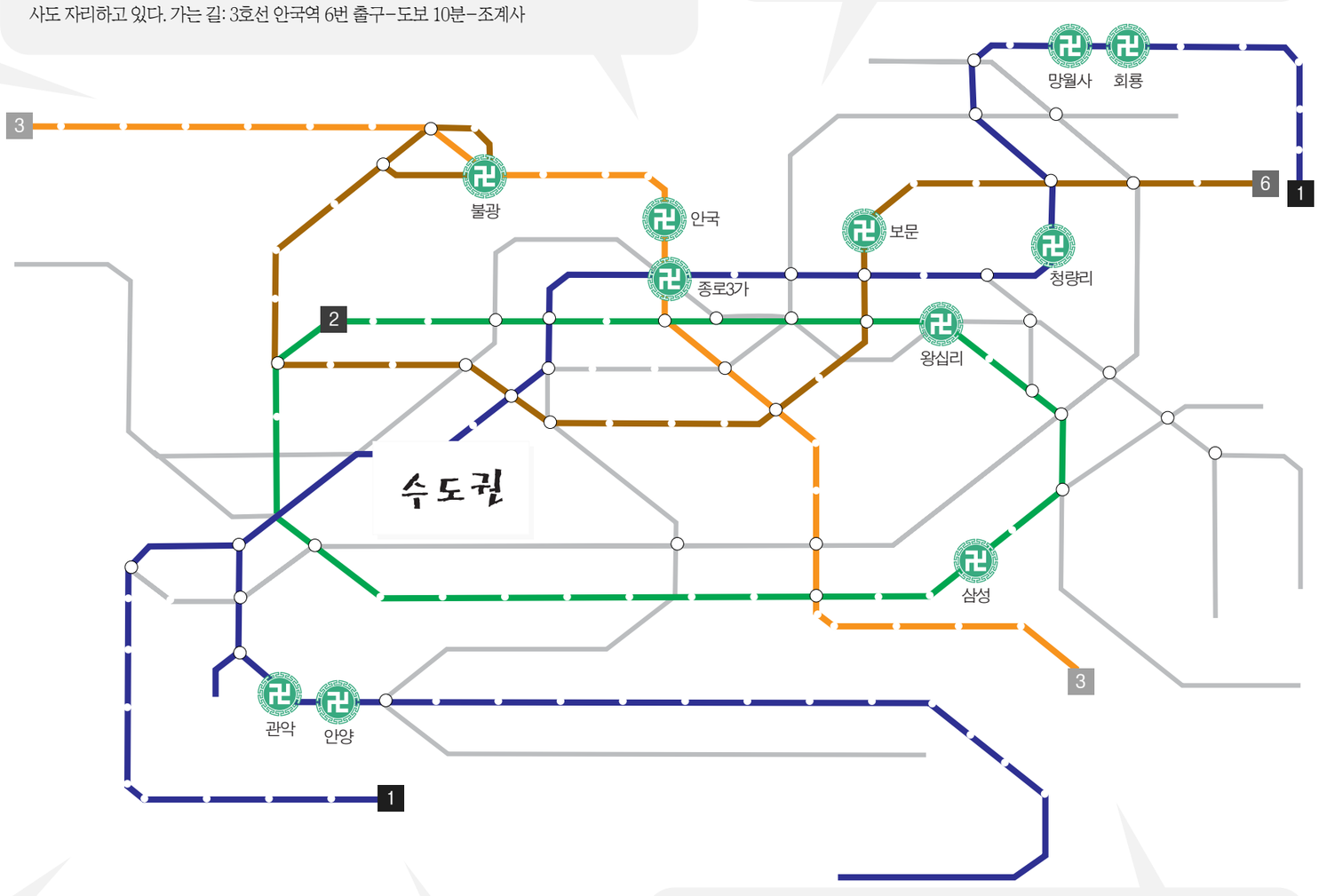
조계사는 100년이라는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파란만장한 근대 한국불교와 궤를 같이한다. 조계사의 전신인 각황사는 1910년 창건됐다. 일제 총독부는 조선사찰령을 선포해 한국사찰을 일본장충단 박문사(博文寺)에 귀속시키려 했다. 이에 회광, 만공, 만해 스님 등이 31본산주지회의를 열고 '조선불교 개혁안'을 통해 조선불교 통일기반인 총본산제도를 주창했다. 1929년 전국 104명의 승려가 각황사에서 '조선불교선교양종승려대회'를 열어 종회법을 제정했고, 1937년 각황사를 현재 조계사 자리로 옮기는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북한산 태고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해 절 이름을 태고사로 했다. 대웅전은 정읍 보천교 십일전을 이전해 1938년 준공 봉불식을 거행했다. 경복궁역 방면 500m에는 태고종 총무원인 법륜사와 송광사 서울 포교당 법련사도 자리하고 있다. 가는 길: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도보 10분-조계사



종로3가역-탑골공원

3 · 1운동으로 잘 알려진 종로3가 탑골공원 자리에는 고려 시대에는 흥복사(興福寺)가, 조계종 조선 전기에는 세조가 중건한 본찰인 원각사가 있었다. 하지만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고 기생과 악사를 관장하는 장락원을 세웠으며, 중종 때는 사찰건물이 철거됐다. 1897년(광무 1) 영국인 J.M.브라운이 공원으로 설계해 지금의 탑골공원이 탄생했다. 1467년 사월 초파일에 성대한 연등회에서 완공된 원각사지 13층석탑은 대찰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만해 스님 선사비도 탑골공원에 세워져 있다. 가는 길: 종로3가역 11번 출구-도보 10분-탑골공원





관악역-삼막사

관악역이 위치한 삼성산은 관악산 서쪽 480m의 산으로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경기도 안양시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 삼성산과 삼막사는 원효, 의상, 윤필 3명의 고승이 막(幕)을 치고 머무른데서 유래했다. 삼성산에는 삼막사를 비롯해 염불암, 망월암, 안양사, 삼성사 등으로 거대한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고 있다. 관악역 2번출구에서 삼막터널 방향에는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이 있으며, 삼막사에서 365m봉으로 나와 오른쪽 방향에 염불암이 위치하고 있다.



가는 길: 1호선 관악역 2번 출구-20번 · 6-2번 종점(경인교대)-도보 40분-삼막사

안양역-안양사

극락정토는 다른 말로 묘락(妙樂) 또는 안양(安養)으로 불린다. 안양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에서 유래됐다. 현재 태고종 사찰인 안양사는 900년 태조 왕건이 금주(시흥)와 과주(과천) 정벌 차 삼성산을 지나다 산꼭대기 구름이 5가지 빛을 띠는 것을 보고 창건한 절이다. 고려 최영 장군이 7층 전각을 세우고, 승려 1000명이 불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 규모를 짐작케 한다. 경기도문화재인 귀부(龜趺) 등이 있으며, 1976년에 만들어진 안양에서 가장 큰 미륵불이 있다.



안양역 인근의 망해암은 도보접근만이 가능해 오전 9시부터 2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가는 길: 1호선 안양역 2번 출구-2번 마을버스 종점 하차-도보 10분-안양사

삼성역-봉은사



삼성동 일대는 1970년대까지 뚝섬 봉은사로 불렸다. 조선 중종 원찰이며, 현재 COEX, 한국전력 등이 자리한 12만평에 이르는 일대는 봉은사 소유의 토지였다.

1977년 청담동에서 이 지역을 행정 분리해, 봉은사와 어린아이를 닮은 섬인 무동도, 당나무를 파는 상점이 많은 닥점마을 세 부락을 묶어 삼성으로 명칭했다. 신라 연회 국사가 794년(원성왕 10)에 견성사(見性寺)란 이름으로 창건했으며, 1498년 정현왕후가 선릉(宣陵)을 위해 중창 후 봉은사라 개칭했다.

사명(四溟) 대사가 사용한 봉은사 고려청동누은향로(高麗靑銅縷銀香爐, 보물 제321호)는 현재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 중이며, 판전에는 <화엄경소> 등 총 16부 1,480매 목판본을 보관하고 있다. '판전(板殿)', '대웅전(大雄殿)' 편액 등은 추사 김정희의 유작이다.

가는 길: 삼성역 6번 출구-코엑스 방향 도보 15분-봉은사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두번째 백초스님의
찾아온 사람만 가지고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망월사역-망월사

망월사는 도성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 만월을 보는 사찰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라 선덕여왕 8년(639년) 해호 스님이 왕실 융성을 기리고자 창건했다. 신라 월성을 바라보며 기원해 '망월'이라고도 한다. 대웅전 동쪽 토끼바위와 남쪽 달 모양 월봉(月峰)이 있어 마치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해 망월사로 불린다는 설도 있다. 대웅전은 없이 낙가보전(洛迦寶殿)에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가는 길: 1호선 망월사역 2번 출구-도보 10분-망월사

양산역-통도사

통도사는 법보(法寶) 해인사, 승보(僧寶) 송광사와 함께 불보(佛寶)를 지닌 삼보사찰(三寶寺刹)이다. 646년(선덕왕 15) 자장 율사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진신사리(舍利)와 가사(袈裟), 대장경 등을 금강계단에 최초로 봉안하고 창건한 절이다.

이후 신라 율종(律宗) 근본도량으로 승단의 중심이 됐다. 영축산은 산의 형세가 부처님이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 붙여졌다.



가는 길: 양산역 4번 출구-12-1번, 63번, 67번 버스-통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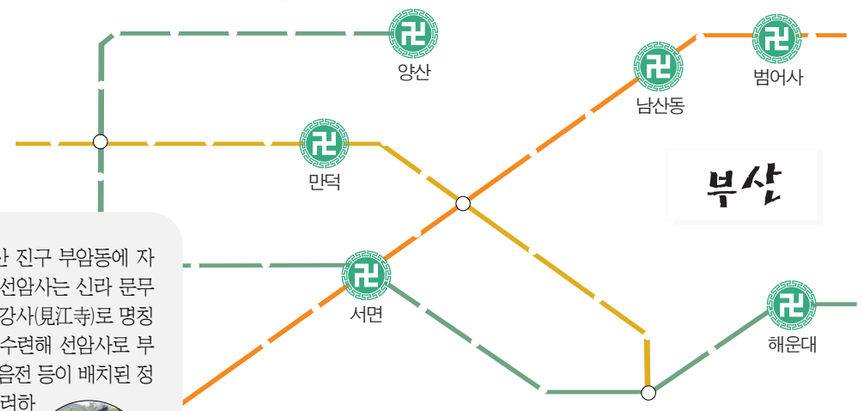
범어사 · 남산동역-범어사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678년) 의상 대사가 해동 화엄십찰 중 하나로 창건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래현 금정산에는 금빛을 띤 우물이 항상 가득 차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금어가 하늘에서 내려와 놀아 금정산 범어사라고 명칭됐다.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 3대사찰인 범어사는 경허 용성 성월 만해 동산 등 고승들이 수행정진한 명찰로 선종본찰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남산동은 일대가 범어사 사전(寺田)으로 범어사에서 보면 남쪽 산등성이라 해 남산동이라고 불렸다.



가는 길: 1호선 범어사역 5 · 7번 출구-90번 버스-범어사



회룡역-회룡사

'회룡'은 '왕이 돌아왔다'는 의미다. '회룡사'는 68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법성사'로 무학 대사는 1394년 정도전의 시기로 이곳 인근 토굴에 피신해 있었다. 1398년 '동북면병마사'로 태조가 요동출전을 하자 무학 대사는 손수 관세음보살상을 모시며 축원했다. 그 뒤 1403년 태조가 이 곳을 찾아 중창 후 절 이름을 회룡사로 고쳤다. 의상 대사 사리 1과를 모신 오층석탑, '무학골'로 불리는 천연동굴, 김구 선생이 상해 망명 전 은신한 '석굴암'이 있다.



가는 길: 1호선 회룡역 2번 출구-도봉산국립공원탐방센터-회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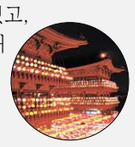
서면역-선암사 · 삼광사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자리한 선암사는 신라 문무왕 15년(675)에 원효 대사가 창건했다. 견강사(見江寺)로 명칭됐지만, 뒷산 절벽에서 국선 화랑도들이 수련해 선암사로 부르게 됐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극락전, 관음전 등이 배치된 정토도량이며 석축 위 동백나무가 매우 수려하다. 용왕전 폭포와 신선대의 절경 또한 유명하다.



가는 길: 1호선 서면역-17, 23, 88, 169번 버스-선암사

초읍동 백양산에 위치한 천태종 삼광사는 어린이대공원과 시립도서관과도 이웃한 도심포교사찰이다. 부산전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 경내 건물들이 전통과 현대식의 조화로 이뤄져있다. 3만 5천여 평 대지에 연건평 5천 평의 사찰로 1만 명이 동시 입장가능한 지관전 등을 보유하고 있고, 1,700평의 국내 최대규모인 요사체 법화삼매당을 보유하고 있다.



가는 길: 1호선 서면역-81, 63, 112, 44, 133, 201 버스-삼광사

해운대역-해동용궁사

해운대 인근 기장에는 해동용궁사가 있다. 용궁사는 고려 1376년(우왕 2) 공민왕 왕사인 나옹 스님이 가뭄 극복을 위해 창건했으며, 산 이름을 봉래산, 절 이름을 보문사라 했다. 임진왜란 당시 병화로 소실됐다가 1930년 통도사 운강 스님이 중창했다. 1974년 정암 스님이 관음도량으로 복원하고 해동용궁사로 개칭했다. 단일 석재 최대석상인 해수관음대불, 동해 갓바위 부처인 약사여래불 등이 있다.



가는 길: 해운대역-181번 버스-해동용궁사

청량리역-청량사

청량리는 청량사(淸凉寺)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맑고 서늘하다'는 청량사는 예부터 도성사람들의 피서지였다. 청량사 인근에는 사니사(四尼寺) 중 하나인 '돌곶이승방'이 있었으나, 명성황후의 홍릉이 승방자리에 정해지며, 폐허가 된 청량사로 옮겨 중창된다. 일제치하 많은 애국지사, 고승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으로 만해 스님이 한때 머물러 1939년 회갑연도 열렸다. 같은 시기 불교계 학자인 박한영(朴漢永)도 기거해 청량사 현판, 주련 등에 작품을 남겼다.



가는 길: 1호선 청량리역 3번 출구-홍릉공원 방면 도보 12분-청량사

보문역-보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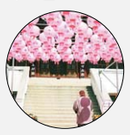
보문역과 보문동은 보문사(普門寺)에서 유래됐으며, 보문사는 '탑골승방'으로 미타사, 청량사, 청룡사와 함께 사니사(四尼寺), 또는 사승방으로 불렸다. 사니사는 조선왕실 후궁 등 여인들과 깊은 인연이 있어 억불숭유에도 사대문 인근에 남았다. 조계종 사찰이었으나 1972년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 보문종 본산이 됐다. 경주 불국사 석굴암을 본 딴 석굴암이 조성돼 있으며 대웅전 영산회상도와 신중도, 지장보살도는 각각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8, 99, 100호다. 보문사 초입에는 사니사 중 하나인 미타사가 있다.



가는 길: 보문역 1번 출구-도보 7분-보문사

대전 유성온천역-동학사

계룡산은 산세가 융성하고 풍경이 빼어나 마곡사, 갑사, 동학사 등 등산객이 찾는 사찰이 많다. 동학사는 신라 성덕왕 724년 상원사로 창건돼 937년 신라멸망 후 신라시조 초혼제를 지내며 동학사로 개칭됐다. 전 왕조 충혼을 달래는 국가기능을 지녀, 경내에 숙모전과 삼은각이 있다.



가는 길: 1호선 유성온천역 6번 출구-107번 간선버스-동학사

대구 아양교역-동화사

대구 팔공산에는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를 비롯해, 갓바위 선본사, 파계사 등 유수의 사찰이 있다. 이중 동화사는 신라시대 창건된 대표적인 사찰로, 임진왜란 당시 승병 활동 등 호국불교 전통이 서려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동양최대의 석조약사여래대불이 봉안돼 있다.



가는 길: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급행1번, 801번, 105번-동화사(갓바위104번)

광주 증심사입구역-증심사

증심사는 광주 동구 무등산 서쪽에 위치한 통일신라 사찰이다. 송광사 말사로 1986년 11월 1일 광주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됐다. 한국전쟁 때 원형을 잃었지만 재건돼 광주지역 대표사찰로 손꼽힌다. 오백전과 7층석탑, 철조비로자나불좌상(보물 131), 석조보살입상 등이 보존돼 있다.



가는 길: 1호선 증심사입구역-첨단9번, 지원35, 지원50, 51, 54, 봉선 76번-증심사

중국적산법화원 방생법회 초대

한중불교교류행사 & 중국불교성지순례 (주)SK투어 ☎1600-4226

제1일
14:00 • 인천항/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집결후 출국수속
(협찬사 경유시 국제여객터미널까지 45인승 셔틀버스 무료제공)
• 움직이는 특급호텔, 2만6천톤급 특급카페리 탑승 후 휴식
18:00 • 저녁식사후 주지스님 주최로 선상법회 행사
• 장보고일대기 영화감상 • 중국산동성 불교유적 영화감상

제2일
09:00 • 중국도착후 입국수속 • 적산법화원으로
11:00 • 적산법화원 방생법회행사 참여
(중국적산법화원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방생법회)
13:30 • 점심식사후 관음보살 분수쇼 감상
15:30 • 연태시 와인박물관 견학
16:30 • 연태산공원 관람후 석식 • 숙소자유시간

제3일
08:00 • 조식후 연태시 봉래로 이동
10:00 • 팔선각, 삼선산등 봉래유명관광지 관광
13:00 • 점심식사후 용구시로 이동
14:00 • 남산대불, 중국불교박물관 참배 및 관광
(중국남산대불사 스님들과 불자들과 함께 합·불교교류행사)
18:00 • 연태중식(전통맛사지 & 북한평양식 선택투어)

제4일
08:00 • 조식후 연태시내관광(쇼핑 · 토산품점)
12:00 • 중식후 북여동해(세계와인동상전시)관광
해수관음보살 참배
16:00 • 연태/영성/석도항 국제여객터미널 도착후 출국수속
저녁식사후 주지스님주최 선상법회 행사

제5일
10:00 • 조식후 인천/평택 도착후 하선준비
입국수속후 귀가 감사합니다.
(협찬사 경유시 목적지까지 45인승 셔틀버스 무료제공)

4박5일 ₩399,000

출발일
4월 30일 ~ 6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동훼리호 인천항 출발), 목요일 (대룡훼리호 평택항 출발)
·포 함 사 항 : 왕복카훼리호(다인실), 전일정식사포함, 호텔 2박(2인실), 중국현지관광 및 방생법회, 한중불교교류행사, 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중국비자비, 현지가이드팁, 기타 개인비용

적산법화원은 한국(신라)사람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중국 산동성 최대의 사찰로서 한국과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1994년 한·중우위를 더욱 돈독히 한다는 취지하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장보고기념탑도 건립하셨습니다. 한국의 불교지도자님들과 불교신자님들을 초대하여 중국 위해시 불교협회와 함께 한중불교 교류를 위해 방생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중국적산법화원 주지

국내 방생법회 행사
45인승 최신형 관광버스 무료지원
[2009년 4월 23일 ~ 7월 31일까지]

• 전국 어디든지 방생법회행사 무료버스 지원가능
• 점심(공양). 방생법회 행사비등 1인당 10,000원만 지참
• 버스지원협찬기업 30분간 경유

어버이날 특선
중국크루즈여행 5일
(5월 7일 출발)
399,000원

제주도 3사순례행사
약천사/관음사/천왕사
(매주 화, 목, 일 출발)
259,000원

(주)SK투어 ☎1600-4226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영혼이 잠깬 이는 눈 먼 무리 속에서
찬란한 지혜의 빛을 발한다.
- 법구경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정 여

선 원 장 인 각
총무국장 도 관
포교국장 일 광
원 주 정 오
강 주 용 학
교무국장 승 연
호법국장 법 귀
도 감 도우, 효원
신도회장 이윤희
박물관장 경 선
재무국장 정 현
연수국장 도 명



범어사에는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TEL 508-3122~5 원주실 508-3636 범어사 템플스테이 508-5726
범어사불교대학 불교회관 4층 TEL 866-7277
(사복) 범어사 · (재)범어청소년동네 TEL 508-8822 성보박물관 TEL 508-6139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주 지 아산 정우
부주지 하은 현근

유 나 노곡 상경
율주(전계사) 중산 혜남
강 주 혜엄 우진
율 원 장 우설 덕문
박 물 관 장 범하
도 서 관 장 현담
사 적 편 찬 남세
도 감 현봉
총무국장 항조
기획국장 정안
교무국장 선혜
재무국장 정수
사회국장 성구
포교국장 정묵
호법국장 선호
농 감 보근
원 주 각림

총 림 대 중 일 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팩스 : 055)382-7196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삼광사의 풍경소리로 세상은 자비로워집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주 지 류화산
총무 엄행주 교무 김도진 재무 김효성 노전 김구해
고문 김성규 김길두 김기성 전무수 김부환 박경순 홍영표 이종화 장석근 김형대
신도회장 김 석 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총무위원 김상준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사업위원 김석홍 기획위원 송세현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섭외위원 이봉영 부녀위원 정옥순
사부대중일동 합장

■ 정기법회 - 매월1, 2일 오전 10시
■ 가족정기법회 - 매월 4주 토요일 오후 8시
■ 청년회법회 - 매월 1일 오후 8시,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학생회 법회 - 2~4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 발원
대한불교 천태종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님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불사」를 발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려고 합니다.
결 제 : 2009년 6월 1일 회 향 : 2009년 9월 8일
월~토요일 : 밤 10시~새벽 4시 일요일 : 오전 10시~오후 4시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삼 광 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불기 2553 년 부처님 오신 날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선원장 수 불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禪 本 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TEL 053)851-1868 ~ 9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 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남양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729-B192009.4.2711:15AM페이지1(1,1)

향기까지 먹어보세~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고고하게 자라 아름답게 꽃 피운다. 연잎에 떨어진 물방울은 어떤 흔적도 남지 않고 떨어진다.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은 부처님의 깨달음, 가르침, 정신을 나타낸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오염된 세상을 맑히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연꽃은 불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준다. 무엇보다 연꽃은 핌과 동시에 열매를 맺어 부처님의 생사불이(生死不二)의 가르침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고품격 꽃이다.

최근에는 부여·무안·제주·강화 등에서 연꽃축제가 개최돼 매년 성황을 누리고 있다. 연꽃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연꽃을 비롯한 그 뿌리, 열매, 꽃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이 모두 약재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연꽃이 불자들에게 지혜의 가르침과 육체의 건강까지 함께 준다하니 그 세계가 더욱 궁금해진다. 부처님의 법만큼이나 무한한 연꽃의 세계를 살펴봤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연밥

연꽃의 열매인 연밥은 연실(蓮實) 또는 연자(蓮子)라고 한다. 연밥은 소화기능이 허약해 생긴 설사를 그치게 하고, 유정(遺精)과 대하(帶下),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잘 못자는 증상을 치료한다. 치질과 탈항, 악창 및 각종 지혈에 효과가 있다. 잘 놀라고 불면증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고3 수험생, 직장인, 갱년기 여성, 허약한 노인 등이 연밥을 요리해서 먹으면 좋다.

□ 연자술

연꽃이나 연밥, 연근을 깨끗이 씻어 적당히 썬 다음 재료의 2~3배의 술을 부어 항아리에 밀봉한다. 냉암소나 지하실에서 3~4개월 정도 보존한 후에 먹는다.

더위를 먹었을 때나 과로했을 때 신경이 쇠약해졌을 때 연자술을 먹으면 풀린다. 또 소화불량이나 위장에 탈이 났을 때도 좋으며 자양강장의 효력도 뛰어나다.

□ 연자죽

연씨, 멥쌀, 찹쌀을 곱게 갈아서 고운 체에 거르고 찌꺼기는 버린다. 갈아놓은 쌀을 붓고 불에 올려서 따뜻해지면 준비해 둔 연씨를 넣고 끓이면 된다.

연자죽은 여성들에게 특히 좋은 음식이다. 피부미용, 여드름, 주근깨, 피로회복, 소화기관을 보호하며 자양효과가 뛰어나 부부금실에 좋다.

□ 연자팥밥

연자, 찹쌀, 멥쌀은 불려놓고 냄비에 죽염을 넣고 끓인다. 팥을 삶다가 첫물을 버리고 다시한번 삶고 끓어오르면 팥을 올려 고루 뒤집고 뜸을 들여서 마무리한다.

연자팥밥은 겨울철 최고의 보양식이다. 연자는 오장을 편하게 하고 기미와 미백에 좋다.

연근

연의 뿌리 연근은 맛이 달고 떫으면서 성질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 연근의 철분과 탄닌 성분은 소염작용이 뛰어나 점막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므로 상처부위를 지혈하는데 좋다. 연근에는 정자를 만드는데 중요한 알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으며 철과 타닌 성분들은 위궤양과 빈혈치료에 효과가 있다.

생 연근즙을 하루에 한두 컵씩 마시면 위궤양, 천식, 폐결핵이나 치질로 인한 하혈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고혈압을 예방하고 술독을 없애준다. 신경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작용도 있어 신경의 불안정, 불면증, 자율신경실조 등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 연근죽

연근을 얇게 깎아 물에 담근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밑손질해 얇게 썬 연근과 불린 쌀을 넣어 볶다가, 쌀뜨물을 붓고 밥알이 푹 퍼지도록 끓인다.

□ 연근김치

연근은 껍질을 벗겨 식초물에 담가 아린맛을 뺀 다음 2~3㎜ 두께로 썬다. 미나리, 배, 밤, 대추는 채썬다. 찹쌀풀에 통깨, 고춧가루, 채썬 홍고추와 풋고추, 감초물, 소금을 넣고 고루 저은 다음 준비해 둔 모든 재료를 넣고 버무려 3일쯤 익힌 뒤 먹는다.

□ 연근전

연근은 껍질을 벗긴 후 굵게 잘라 식초물에 담근다. 호박, 당근, 연근은 믹서기에 각각 간다. 갈아놓은 호박, 당근, 연근에 밀가루, 계란, 소금을 넣고 각각 반죽한다.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팬을 달궈 반죽을 한 수저씩 둥글게 지진다.



□ 연근 흰콩 야채 조림

연근은 납작하게 썰어 연한 식초를 넣은 냄비에 넣고 삶아 건진다. 흰콩은 하루 저녁 정도 불린 후 건져내고, 당근은 콩알보다 약간 굵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한다. 간장, 청주, 설탕, 다시마 물로 조림양념을 만든 다음 다시마 2쪽을 넣고 서서히 조리다가 붉은 고추채를 넣고 살짝 조린다.

□ 연근초절임

연근은 껍질을 벗겨 서너 등분한다. 비트는 강판에 간 후 면보에 받쳐 즙을 낸다. 비트즙에 설탕, 소금, 식초로 간을 한 후 연근을 담가둔다. 연근에 색이 배면 적당한 굵기로 자른다. 연근을 처음부터 얇게 잘라 색을 내면 곁과 안의 색에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굵게 서너 등분해 색을 낸 후 얇게 저며야 겉과 안의 색의 농도 차이가 나 더 예쁘다.

연잎

연잎은 타닌이 풍부하다. 말렸다가 달여 마시면 지혈, 지사, 이뇨 등에 효과적이다. 설사, 두통과 어지럼증, 토혈, 코피 등 출혈증, 산후 어혈치료, 야뇨증, 해독작용에 쓰인다.

□ 연잎밥

연밥의 쓴 맛이 나는 씨눈을 떼 낸 다음 씨만 받는다.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2~3㎝ 두께로 썰어 먹기 좋게 2~4등분한다. 찹쌀은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리고 팥은 삶는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연잎을 펼쳐놓고 준비해둔 연근, 연씨, 찹쌀, 팥을 가운데 놓은 후 여분의 연잎으로 감싸면서 짚이나 실로 묶어 찐다. 한번 찐 것을 들어내 연잎을 헤치고 밥을 뒤적이며 물엿, 잣, 소금으로 간을 맞춘 후 다시 싸서 푹 쪄낸다.

연차



연의 모든 부위는 차로 음용이 가능하다. 연꽃차, 연잎차, 연향차, 연근차, 연자차 등 뿌리와 꽃으로 차를 만들어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 살결이 고와진다.

특히 연꽃차는 "오래도록 마시면 늙지 않고 흰머리가 검게 된다<본초십유>" "혈을 잘 순환하게 하고 어혈을 제거한다<산동중약>" "장복하면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한다<명의별록>" "오래도록 마시면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고 몸을 좋게 한다<동의보감>" 등 각종 문헌에서 그 효능을 알리고 있다.

□ 연꽃향차

연꽃의 향을 머금은 차. 녹차(세작)를 넣은 작은 삼베 주머니를 꽃에 활짝 피기 전이나 어둡기 전 연못에 핀 꽃송이에 넣어 꽃향기를 흡수하게 한다. 밤새 연꽃의 은은한 향이 차에 배어 차의 향이 더욱 좋아지고 차가 순해져 차를 많이 마셔도 속이 쓰리지 않는다. 연꽃향차는 연꽃의 좋은 향과 성분과 기운이 차에 담겨 차의 질이 더욱 좋게 만든 것이다. 연꽃향차에는 이틀째 된 연꽃으로 백련이 좋다.

□ 연잎차

연잎차는 스트레스와 함께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입 냄새와 니코틴을 제거하며 피를 맑게 하고 갈증을 해소해 숙취해소에 도움을 준다.

연잎차를 매일 마시면 불면증에도 좋고 마음에 안정을 준다. 감기예방은 물론 어혈을 풀어주고 피를 맑게 하며 지방분해 능력이 좋아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다.

□ 연꽃차

연꽃 차는 꽃이 활짝 핀 8월에 만든다. 아침 9시 전후에 연꽃을 딴 다음 급속 냉동한 후 냉장고에서 숙성시킨다. 향과 맛이 오래가고 연꽃 하나면 30인분 정도 우려낼 수 있는 연꽃차는 볼거리도 있어 여럿이 모여 즐기기 좋은 차다. 연꽃향차는 70도 물을 이용하지만 연꽃차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이어야 향기를 온전히 풀어낸다. 뭉친 연꽃을 나무젓가락으로 한잎 한잎 풀어낸다. 찻잔에 연꽃 한 송이 띄워 그 향을 음미하며 차를 마시는데 스님들이 연차를 늘 마시는 것은 연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행 정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초혼·재혼 –

결혼정보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베트남 관음사 사찰과 자매결연

초혼·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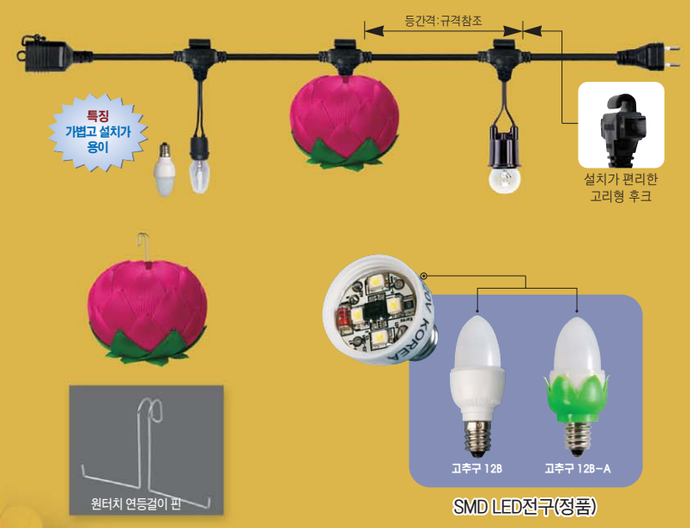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담 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1-494-9595 / 전화 032)886-1661
◆ 본회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 7 아자빌딩 1505호 (영등포역 15층 5호 해피씨디)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관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729-B202009.4.2711:17AM페이지1(1,1)

깨달음의 첫걸음 건강요가 배워요

마음공부를 하는 불자들에게 있어 몸이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할까? 마음만 깨치면 성불한다는 가르침은 몸을 배제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몸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할 뿐, 몸은 건강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다.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마음의 작용도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신체의 이상적인 조화, 곧 건강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일차적 요건이다. 아헹가 요가의 정신 또한 그러하다. 생활 속에서 수시로 수련할 수 있는 아헹가 요가의 자세 12가지를 소개한다. 지면을 오려서 거실이나 사무실에 붙여두고 수시로 따라하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세 설명: 현천 스님(아헹가 요가협회장)
■ 자세 시범: 백미정(서울 아헹가 요가센터 원장)



1. 비라아사나

무릎을 꿇고 척추를 세우고 똑바로 앉아서 두 발을 벌리고 앉아 엉덩이가 바닥에 닿게 한다. 손을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고 고요히 들숨과 날숨을 바라본다(무릎이 좋지 않거나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담요를 밑에 놓는다). 골반을 교정하고 다리 피로를 풀어 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관절염을 예방하고 치유한다.(두 손을 깍지 끼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어 본다).



2. 받다코나아사나

발바닥을 붙이고 두 손으로 두 발을 깍지 끼고 발꿈치는 회음부 가까이로 가져온다. 가슴은 앞으로 밀어 척추를 똑바로 세운다. 숨을 내쉬며 몸통을 바닥 쪽으로 내리고 척추는 쭉 뻗는다. 팔꿈치는 넓적다리위에 놓고 턱이나 이마를 바닥에 댈려고 노력한다. 20초~2분 정도 유지한 후 들이마시며 몸통을 일으킨다. 2~3번 되풀이 한다. 전립선이나 생식기계 및 부인과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또 편안한 출산을 도와준다.



3. 파스치모타나아사나

두 발을 모으고 두 손으로 발을 잡고(잡을 수 없으면 발목을 잡거나, 벨트 이용) 등을 펴고 45° 위를 보며 등과 가슴을 편다. 숨을 내쉬며 배, 가슴, 머리 순으로 몸통을 다리 위에 놓는다. 10초에서 길게는 5분까지 머무르면서 고르게 호흡한다.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가슴, 배 순으로 몸통을 들어올린다. 2~3번 되풀이 한다.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장에 휴식을 준다. 혈압과 맥박을 정상으로 만들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



4. 아도무카스바나아사나

두 손을 30㎝ 정도 벌려 두 발 옆에 두고 등을 쭉 펴서 앞으로 바라본 뒤 1m 정도 껑충 뛰어 두 발을 30㎝ 벌린다. 체중이 두 발과 두 손에 똑같이 작용하도록 두 다리, 두 팔을 힘껏 뻗는다. 골반을 들어올리고 가슴은 아래로 내린다. 이때 몸통과 다리는 직각이 되게 한다. 30초~1분 유지하고, 한 번 더 행한다. 전신에 기력을 솟게 하고 발목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진정시키고 어깨를 유연하게 한다.



5. 우파비스타코나아사나

두 다리를 벌리고 손을 엉덩이 뒤에 놓고 척추를 쭉 뻗는다. 무리하게 벌리면 넓적다리가 손상되어 몇 개월씩 고생하니 조심해야 한다. 손을 가슴 앞 바닥에 놓고 앞으로 밀면서 배, 가슴, 턱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10초~1분 정도 고르게 호흡하면서 유지한 후 들이마시며 턱, 가슴, 배 순으로 몸통을 일으킨다. 2~3번 되풀이 한다. 효과는 좌골신경통을 완화하고 난소를 자극하고 생리 흐름을 정상화하며 생리 이상을 치료한다.



6. 숩타비라아사나

맨 앞 비라아사나로 앉아 숨을 내쉬며 먼저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등과 머리를 바닥에 내린다. 무릎을 붙이고 몸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한다. 몸이 굳은 사람은 큰 베게를 등 뒤에 받치고, 엉덩이 밑에는 담요를 깔고 한다. 무릎에 자극이 많이 오는 사람은 금방 일어난다. 10분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심장의 이상 증세를 완화하고 류머티즘과 등 부분의 통증을 진정시킨다. 소화를 돕고 위산과다, 위궤양, 천식, 생리통 등을 가라앉힌다.



7. 우스트라아사나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엉덩이 위에 놓는다.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골반은 앞으로 밀며 몸통을 뒤로 젖힌다. 넓적다리는 바닥과 수직으로 이룬다. 가슴을 활짝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목과 얼굴에 긴장을 푼다. 5초~1분 정도 고르게 호흡하면서 유지한 후 몸통을 똑바로 한다. 2~3번 되풀이 한다. 폐활량을 증대시키고 척추를 조정하고 어깨가 앞으로 굽은 사람에게 좋으며 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



8. 맏스아아사나

두 다리를 앞으로 뻗고 내쉬며 몸통을 뒤로 눕히는데 먼저 두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고 등, 머리 순으로 내린다. 이때 목을 꺽어 머리 정수리를 바닥에 댄다. 30초~1분 정도 유지한 후 역순으로 일어난다. 한 번 더 행한다. 등 부분이 완전히 신장되고 가슴이 잘 펴진다. 갑상선과 목에 좋은 효과가 있다.



9. 부장가아사나

엎드려 두 발은 조금 벌리고(두 다리를 모아서 할 수도 있다). 두 손은 갈비뼈 옆에 놓는다. 들이마시며 두 손은 바닥을 누르고 머리, 가슴을 들어올리면서 젖힌다. 엉덩이는 조이며 10~30초 유지한 후 내쉬며 배, 가슴, 이마 순으로 바닥에 내린다. 2~3번 되풀이한다. 디스크 등 척추 질환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고 가슴을 완전히 펴지게 한다.



10. 마리챠아사나

정면을 보고 왼쪽 다리는 쭉 뻗고 오른쪽 다리는 세우고 왼쪽 상박을 오른쪽 무릎 아래에 맞대고 오른쪽 손은 왼쪽 엉덩이 뒤에 놓는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왼손으로 무릎과 넓적다리를 감싸 잡는다. 숨을 내쉬며 허리, 가슴, 목 ,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다. 세운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에 힘을 주고 시선은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본다. 복식 호흡하면서 5~30초 정도 유지한 후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다. 한 번 더 한다. 다리를 바꾸어 반대로 2번 행한다. 복부 장기를 조절하고 허리선에 있는 지방을 줄여 준다.



11. 사르반가아사나

어깨 밑에 담요를 두 장 놓고(머리는 바닥에 놓고) 반듯이 눕는다. 무릎을 세우고 발과 엉덩이를 위로 차 올리며 두 손으로 등을 받친다. 다리를 모으고 몸통을 똑바로 세운다. 30초~5분 정도 유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등, 엉덩이, 다리를 내린다. 내분비선을 조율해 주고 불면증을 줄이며 신경을 진정시킨다. 또한 자궁 탈수를 치료하고 자궁 근종을 줄인다.



12. 할라아사나

어깨 밑에 담요 두 장을 놓고(머리는 바닥에 놓고) 반듯이 눕는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다리,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고 다리는 머리 위 바닥에 둔다. 두 손은 등을 받치고 몸통은 똑바로 세운다.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의자를 머리 위에 두고 두 다리를 위자 위에 얹는다. 사르반가아사나에서 곧바로 두 다리를 머리 위 바닥으로 내려도 된다. 30초~5분 정도 유지한 후 등, 엉덩이, 다리 순으로 바닥에 내린다. 피로를 덜어주고 과도한 긴장을 조절하고 원기를 회복시킨다. 똑바로 누워 몸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하고 몸에 긴장을 풀고 편안한 호흡으로 몇 분간 이완한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2009(2553)년 부처님 오신날 극락사 법요식 및 경로잔치
  일시 : 5월 2일(음,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삶에서 나보다 낫거나 동등한 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가라.
- 법구경

수행과 참여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200만 부산 불자님들의 신행과 수행을 책임질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가
여래의 전법사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회 장 공 병 수
이사 · 임원 · 회원 일동

법계정사 개원 1주년 기념
월호 스님 초청대법회

- 일 시 : 2009년 5월 15일(금) 저녁 7시
- 장 소 : 법계정사(6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 7층)
TEL 051)853-2021
FAX 051)853-2036

-봉 축-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불교인재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로터스불교대학 (포교사반)
로터스수행학교 (기 초 반)
부산불교전문강당 (강원반)
로터스청년불교대학 (청년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5층)
TEL (051)853-8539
FAX (051)853-2036

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임정웅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안인성, 지호경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대표전화 070-8133-991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고 문 도업 스님, 성본 스님, 이만 교수
자 문 정성호, 김영수
명예회장 송 월, 달 오
회 장 무 상
수석부회장 심 산
부 회 장 효 신, 대 광, 법 기, 일 원
이 사 고 담, 청 암, 제 민, 성 구
혜 성, 보 문, 도 경, 지 운
관 성, 무 애, 학 산, 광 진
감 사 무 념, 법 초
사무총장 효 선
재무부장 선 웅
기획부장 법 륜
총무부장 보 덕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900-3606
E-mail: donglimdongm@naver.com

봉 불기 2553년 축
사단법인 **해동불교 원효종**

종정 최병일 덕산 종사

이사장(학장) 전용만 효천
이 사 임철식 태경
이 사 신종섭 천족
이 사 이을용 남정
이 사 하영열 일공
이 사 허진화 선덕
감 사 신용재 대경
감 사 백남옥 송천
사무국장 이송우 금천

각 사암 주지 및 원효 한가족 법우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 실 진 제
분원장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 051)746-2256, 4812
www.seon.or.kr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경전 과정 -

조실 지 관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신도회일동

부산시 진구 전포2동 33번지
☎ (051)809-0926 / FAX: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용호재가복지봉사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양정노인주야간보호센터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용호치매노인주야간보호센터
- 용호어린이집
- 용당어린이집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관 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 장 서은해

TEL : (051) 628-6737 / FAX : 628-6562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선원장 **정여 스님**

입 승 도경 스님
총 무 효산 스님
명예회장 김 경 환
신도회장 이 향 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다여림회,
선림회, 여여산악회, 지장회, 관음회,
천일기도회, 어린이회, 여여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금강경반, 원각경반,
화엄경반, 법화경반, 참선반

■ 여여선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단옹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부산서구시니어클럽 051)244-670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051)263-6697
  하단어린이집 051)206-3722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 055)632-1854
  마하병원 055)633-3000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구 덕 청소년 수련관 051)240-4681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TEL 051)242-0691
FAX 051)248-0691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회 주 정 각
주 지 청 명
법 사 범 진
노 전 정혜, 이구
신도회장 광운(김동열)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 2100, 403-4848
FAX: 051)403-4860
E-mail: jbw000@cho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부설>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 암 지 태
신도회일동

- 정법사: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 055)246-8393, 245-6544
- 대자유치원
  ☎ 055)245-0108, 242-0108
- 토월도솔유치원:
  경남 창원시 창남동 45-1번지 APT단지내
  ☎ 055)261-0832
- 진해자은 도솔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자은동 911번지
  ☎ 055)551-2112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TEL 055)246-8393, 245-6544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 지 深 山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 중심도량
동명불원

주 지 정 산
사부대중합장

불교문화아카데미 (수시모집)

* 불교기본교육 : 매주 (월) 오후 2시, 8시
* 경전교육 : 매주 (목) 오후 2시
* 염불공덕회 특강 : 매주 (금) 오후 2시
*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 : 매주 (수) 오후 2시, 8시
* 희상 스님의 선화그리기 강좌 : 매주 (화) 오후 2시
* 생활차 만들기 강좌 : 매주 (금) 오후 2시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TEL 051)624-7667, 626-4337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부설> 대광명 불교대학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최중식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해운대로데오아울렛 B동 3층
TEL (051) 742-7610
FAX (051) 742-7606

가장 행복한 공부로의 초대
월암 스님과 함께하는
행복禪수행학교
교 육 생 모 집

- 개 강 : 5월 7일 목요일
- 강의시간 : 매주 목요일 (주간반) 오후 2시
  (야간반) 오후 7시 30분
- 2년 4학기제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참선교육 전문학교

* 초심자도 누구나 편안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합니다.

행복선수행학교 교장 '벽송사 선원장 월암 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합장

부산시 중구 광복동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TEL 051) 253-8686~8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어리석은 이가 아니다.
- 법구경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설동근

수석부회장	이윤희	상임부회장	이재희
수석부회장	박수관	상임부회장	천양자
수석부회장	김석조	상임부회장	허인구
상임부회장	권청길	상임부회장	김귀련
상임부회장	김동열	상임부회장	홍경표
상임부회장	김승영	감 사	하만경
상임부회장	김희근	감 사	김백영
상임부회장	박순곤	사무총장	김수현
상임부회장	이상수	사무부총장	박차수
상임부회장	이시영	재무부총장	최대경
상임부회장	이영숙	사무국장	김석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전화 (051) 861-8800~1, 팩스 (051) 861-8802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진, 김재운, 설동근, 조효식, 최칠관
회 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이윤희
부회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장남인, 허인구
감 사 권기우, 이종우
사무총장 박영근
재무총장 정원종
총무이사 장병주
기획이사 안병호
섭외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김상훈
친목이사 노종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512-3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봉축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판 정기예탁
13개월 4.98%

성의신협 불교지점

이사장 최송홍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47-18번지
TEL 051) 633-9120~4

봉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 날 축

파초여행주식회사

인도불교성지순례!
누구나
한 번은 다녀와야 할 성지 중의 성지
영혼의 고양을 위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안내드립니다.

「인도성지순례 전문 파초여행사」

대표이사 이원겸 합장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37-16
동아제일빌딩 308호
전화 051-808-7370
전송 051-704-2355
긴급 010-8817-0162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불교협의회 복지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명예회장 혜총스님 회 장 정여스님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용하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원장 김수현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신자	· 상락정 배산실버빌	원장 범산 스님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순화	· 상락정 영주홈	원장 지현 스님
· 금정노인요양원	원장 진명 스님	· 선양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 김수현
· 금정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만 스님	· 선재어린이집	원장 이명숙
· 내원어린이집	원장 이정오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영곤
· 다정한어린이집	원장 강은아	· 영도구노인복지관	관장 선공 스님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맹자	· 영주암어린이집	원장 양금선
· 마야어린이집	원장 옥유희	· 용당어린이집	원장 배지미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서봉 스님	· 용호어린이집	원장 서은영
· 무량수 요양원	원장 각우 스님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이춘성
· 보현어린이집	원장 금인순	· 지혜어린이집	원장 정명경
· 부산 보현의 집	원장 이기표	· 컴넷하우스	원장 채인숙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윤기혁	· 하단어린이집	원장 김명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금순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관장 정련 스님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장 김영곤	· 혜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	센터장 원허 스님
· 부산광역시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창식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영란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관장 범산 스님	· 환희소규모요양시설	원장 지현 스님
·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원장 범산 스님		
· 부산금정시니어클럽	관장 진명 스님		
· 부산서구시니어클럽	관장 이난희		
· 부산연제시니어클럽	관장 정득보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45-22
연락처 : Tel) 532-0115~7 Fax)531-011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swia.org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정 사

주 지 석상범

차상위 계층을 위한 후원회
금강(金剛)

후원회장 석상범

운영위원 일동

·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무관심과 방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50-72
TEL 051)204-0023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나눔은 습관이며 베풂은 수행입니다!!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신익철
감 사 심산, 이경순
총무이사 해암, 문수용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성미
홍보이사 혜산, 김성수

이 사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00호
TEL 051)853-0429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여래사불교대학

입문자반, 불교학과
경 전 반, 동 문 회

부산불교교육원

불영소리(기타반)
여래다회(차공부모임)
여래선방(참선반)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 3층
TEL 051)466-4080
FAX 051)462-1483
www.bulgyo.or.kr
cafe.daum.net/Busanbulgyacademy



아름다운 제주
머무르고 싶은
약천사 템플스테이

대한불교조계종 약 천 사

善緣護持
선연호지
아름다운 인연 잘 이어가자

회주 혜 인(慧印)
주지 성 원(性圓)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165
TEL 064)738-5000 FAX 064)738-5022
www.yakchunsa.org
E-mail : yakchu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법화선원

주지 법 공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08번지
TEL 055)883-7257
FAX 055)883-7253
H.P 011-838-7257



월암 스님의
『돈오선』

현대북스 [現昊]

멈출 수 없는 도전 본능
새롭지 않으면 허락할 수 없습니다.

T.051)244-1251 F.051)244-1241

『삭발하는 날』·『산문 - 치인리 십번지』의 저자

현진 스님이 전하는
다섯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이 순간
깨어있는 삶을 위한
잔잔한 이야기

신국판 양장 13,000원



현진玄眞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광사 율원에서 공부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동안 월간 해인 편집위원과 불교신문 논설위원을 역임하였고
해인사 포교국장 소임을 맡아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청주 관음사에 머물면서 서원대학교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삭발하는 날》, 《잼있는 스님이야기》,
《산문 – 치인리 십번지》, 《두번째 출가》 등이 있다.

클리어마인드 CLEAR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 736호
T. 02)2198-5151 F. 02)2198-5153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어리석은 이는 지혜 있는 이 옆에
일생 살아도 그 지혜의 길을 알지 못한다.
- 법구경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기도 : 오후7시~9시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TEL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 산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 508-4509 FAX 508-4870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주 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밝은세상
울 산 시 민 선 원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기도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신촌마을 8번지
TEL 051)973-5224, 3076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TEL 051)317-5671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 덕 원
http ://www.gongdukwon.net
주 지 효 선
신도회장 양반야등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 솔바람산악회, 열린마음봉사회, 대원청년회, 백상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FAX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불 광 사
회 주 인산 지 준
주 지 보 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25번지
TEL 051)809-1420(초연중학교 뒤)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부설] 마애뜨리아 불교대학
주 지 운 암(석현엽)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445번지
TEL 051)271-2774

불교를 배우면 행복해집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재)선학원 죽림선원
죽 림 불 교 대 학
광양시 금강정사 금강불교대학
(전남 광양시 광영동)
주 지 각원 합장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1동 17-6번지
전화 (051) 507-5118, 070-8274-5118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사
주 지 정 원
사부대중일동
■ 제주시 봉개동 281-1번지 안국사
TEL 064)721-2792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 여
부 총 재 심 산 원 허
사무총장 일 광
협 회 장 백명숙
고등부지회장 박병택
중등부지회장 손태석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TEL 051)513-4306 FAX 513-4307

재단법인
보 현 장 학 회
이 사 장 정여 상임이사 각우
이 사 여현, 정현, 정만, 김석조, 심금조
감 사 상현, 오미희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 57번지
TEL 051)403-7096 FAX 051)403-9810

전통성과 정체성의 유지계승
부산불교교육대학
총 동 문 회
회 장 최현모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TEL (051) 863-6368

불교TV부산염불공양회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임춘지
부 회 장 이금월 구복리 진순귀
운영위원장 서숙영 감 사 김정숙
재 무 윤정희 총 무 김순이
홍보팀장 하순인 포교팀장 공재란
문화팀장 강낙춘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
동양빌딩 8층
TEL.(051) 633-4020

財團法人
一念奬學會
이사장 李大願行 외
임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내
TEL 051) 818-9914 FAX 818-9916

부산 여성 불자회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정정자 박영옥
엄점선 박종남
총 무 하영조 손영순
재 무 김정식 서정례
감 사 김정숙 한순정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 817-3166, 3168(FAX겸용)

부산불교 보현장학회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최춘자 전영자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보현청년회 일동
보현회 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1-17
TEL (051) 636-4531

청년의 패기로 신행, 포교 호법을 실천할 회원을 찾습니다.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 장 손정현
기장군불교청년회, 대각불교청년회, 대원불교청년회
대광명사청년회, 범어사청년회, 관음사 법연청년회
홍법사 청림청년회, 선암사 원효청년회
한마음선원부산지원청년 2부, 새벽향기직할청년회
특별지회 정공중창단, 가람뫼문화답사팀
찬불율동팀 플라잉, 찬불가 통기타교실 통만두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www.kybabs.org
TEL (051)861-5241

전 국 비 구 니 회
회 장 명 성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 TEL 02)3411-8103-4 / FAX 02)3411-8108
www.kbiguni.org

www.insammaket.com
귀하고 고마운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인삼마켓
취급품목 : 홍삼액, 홍삼정, 홍삼편, 인삼, 홍삼청국장, 캔디, 제리, 분말

홍삼생식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 gine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겉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껍질의 바로 안쪽에 많은 망상조직이 존재하는데 홍삼은 이와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액기스 추출과정에 90℃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검은색을 띠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풍기인삼은 이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희 풍기정품인삼제조창은
양심을 속이지 않는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영농법인풍기정품인삼제조창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636-2174 FAX 054)638-2177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위치 : 강릉지역	●위치 : 경기	●위치 : 부산
●법당 : 25평(목조)	●법당 : 25평외50	●법당 : 50평
●요사 : 60평	●요사 : 200평	●요사 : 100평
●부지 : 270평	●부지 : 800평	●부지 : 135평
●가액 : 4억	●가액 : 35억	●가액 : 1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전통사찰
- 부지 총평수 : 6천평
- 건물 : 7동, 전통 목조기와 법당(5포 7포)
- 지장전 15평(목조), 공양간 50평, 요사채
- 위치 : 부산에서 30분 거리
- 산세 최고(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따뜻한 남향
- 텃밭(공터) : 2,000평, 주차장(버스) 100대 주차가능
- 양도가액 : 15억(40억 불사)

부산 해운대 동백섬
- 대지 : 11,000평
- 건물 : 2동 , 법당 40평(현대식)
- 해운대 해수욕장, 누리마루, 벡스코
- 도량 뒤로 산, 남쪽바다 조양권 양호
- 주변 토지가격 평당 300만원
- 양도가액 : 22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96평, 건물 200평
- 도심 현대식 4층 건물
- 가액 : 10억
  (은행 3억 융자 7억 인수 가능)

011-860-12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보손리 부근(구미 근교)
- 건물(임법당)
- 전세 3,500만원
- 절도량 3,000평

010-2419-8383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남구 역삼동
- 실평수 : 16평
- 방1, 삼존불, 탱화, 기타
- 보증금 1,000만원
  월7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795-2832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전남 벌교읍
- 대지 120평
- 기와집, 수세식 화장실
- 시설완비
- 가액 : 2천5백만원

010-3541-231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시내 중심가 지하철 3분거리
- 평수 : 약 65평
- 보증금 2000만원. 월7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51)255-708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 버스정류장 앞
- 평수 : 70평
- 법당1, 공양간, 방3칸
- 전체도시가스, 전기승압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최고시설. 꼭필요한분만연락바람

010-7112-1823
032)612-0108

부자가 되는 명당

- 땅 : 관리지역 약 1만평 토목공사 완료
- 건물 : 신축 원룸 60평식 2동 20평 토굴 1동
- 가액 : 15억 중 5억 대출가능
- 용도 : 팬션,기도원,연수원, 전원주택 불사 가능 투자 가치 100%

010-8992-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산 중리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 천수관음 4자 외 탱화 5점
- 5층건물 중 4층 38평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소임관계로 급 안내

011-853-00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군포. 안양지역
- 평수 : 76평. 방4개 공양간, 샤워실, 회장실별도 (스님만 쓸 수 있는 곳)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1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685-6740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 대지 : 49평
- 방2, 마루, 부엌, 목욕탕, 걸망풀고 쉴 수 있는 곳
- 가액 : 2천 5백만원

010-2047-8376
010-9247-248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 250평
- 대웅전(목조)25평
- 산신각, 요사채 각1동
- 가액 : 2억5천만원

011-9765-530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팔도시장 뒷쪽 입구
- 3층 건물 중 2층 32평
- 법당, 삼존불, 탱화 등 시설 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450만원

010-5618-3306
010-5650-0664

토굴및불자수련원지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
- 토지 : 3000평, 건물주택 70평 통나무집 10평, 차고 20평 창고 10평
- 외형 : ①반월지(명당터로써 참선수행의 최적입니다) ②교통편리하며 입구까지 아스콘 포장완료 ③토지분할가능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66-2296

신도시 부근 사찰

- 위치 : 경기 북부 시내중심가에서 도보로 15분거리노송 우거진 풍치수려한 절
- 평수 : 680평(반영구적 사용가능한 실사용 평수 10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20평, 요사채2동 (약100평,30평)창고2동,시설좋음
- 교통편 : 매우 양호. 절에서 도보 30분거리전철역 개통예정 잠실과 강북에서차로 30분거리
- 장점 : 시내중심가이면서도 깊은 사찰같음. 인구유동성이 많아 포교와 수행에 최적지
- 가액: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선이나 상담후 절충,양도하고자함

011-393-0013
011-710-7294

포교당 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탱화,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

010-2756-3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내 10분거리
- 법당 1,2층 약 45평 요사채 1,2층 약 50평(현대식) 단청필 총 17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 시설깨끗하고 좋음

010-6298-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시 목천 IC에서 10분거리
- 면적 : 총500평(대지+부지)
- 목조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5억

011-9505-98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태평로 (지하철1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스님 공부부관계로 급 양도

010-5075-114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김해시 삼방동
- 평수. 53평(2층) 위치 양호함
- 법당.삼존불 소불200불 등삼백
- 보증금 500만 월 40만 합 이천만원

010-9395-9397
055)337-939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010-7325-1259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팔공산 은해사에서 15분거리
- 대지170평, 건물60평, 입지환경 최상,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사정상 급 안내 합니다
- 기도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가액 : 1억

011-437-69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주 시내
- 1층 단독주택 33평
- 큰방1(법당) 외 큰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 삼존불, 각단탱화 모든시설완벽, 현재 운영중
- 소임관계로 급 양도 스님이나 법사보살님께 최적 동네가 조용하고 주차 편리함
- 전세 220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4923-4927

고급단독주택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큰방2,작은방2,거실,욕실, 화장실2,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 대지 300평, 임법당 30평, 흙집 15평, 심야전기 암반수, 산세 좋음
- 가액 :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43)543-7928
010-6472-792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등기필 104평, 기타 사용지 있음
- 건물 : 법당 (단청), 요사채, 스님친견실 3동, 주차 20대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융자 4천만원)

019-550-9725
055)232-7151

토굴암자안내

- 위치 :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대지 298평
- 건물 50평. 1층, 2층(별장임법당)
- 산신각 옆 사계절 물 흐름 토굴 앞 남한강 보임 텃밭, 마당 잔디밭
- 가액 : 2억 9천만원
- 큰방 4, 대형거실, 욕실, 화장실 2, 상수도 지하수 겸용

010-4736-3567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량리역 2분거리
- 5층건물중 5층 전체사용 80평중 마당 30평, 법당 30평 방2,거실1,욕실2개,부엌1,다락1
- 삼존불,지장단,1자원불 500여불
-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5800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0-2069-0824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잠정3동
- 평수 50평, 방2칸, 공양간 별도 삼존불, 인등, 영가단
- 가격 : 전세 3,000만원, 월 100만원
- 보증금 2,000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가능

010-9809-5006

포교원(급)안내

- 위치: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영동 명진사
- 특징 : 약 50평, 삼존불 외 모든 시설 갖춰져 있음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 35만원 시설비 500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3163-501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5동 3층건물 중 2층
- 약 45평.삼존불, 욕실, 화장실, 주방, 종무실 겸 방 2칸
- 보증금 1천만원 / 월60만원 모든시설 완비(시설A급) 시설비 2300만원

010-2208-4899
053)55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목동4거리. 도로변
- 단독 2층 23평. 1층 사용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
- 시설일체. 즉시법회 가능

010-2679-1150
010-7287-493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 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1
- 가액: 보증금800만원 / 월33만원 시설비 등 400만원
- 몸만 들어오면 됨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시내
- 1층 건물 중 1층. 국도변
- 평수 : 22평, 방1,주방, 화장실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600만원
- 삼존불. 스님 즉시법회 가능

017-571-55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교통편리 집기 일체 양도
- 가액 : 7천만원

055)744-4879
010-8223-487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중심가
- 평수 : 30평(2층) 삼존불 및 시설완비
- 보증금 200만원 월세30만원 시설비1000만원

010-4415-668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32)546-5117

사 찰 안 내

●위치 : 북한산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대지 : 100평
●법당 : 60평	●법당 : 20평
●산신각 : 3평	●요사 : 40평
●가액 : 4억	●가액 : 13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평생토굴분양

자격 참선수행에 득력한자로서 마음깻 공부하다 죽을 각오가 정리 되신분

- 분양가 : 3천만원(1인 1실 방 93개 선착순)
- 대상 : 비구, 비구니, 거사님, 보살님, 종단불문
- 위치 : 서울시 정릉 4동 북한산입구 남향 명당혈 버스종점 5분거리
- 혜택 : 숙식, 난방, 수도, 공과금 모두 지원해드림(공부만 하면됨)
- 자가용 소지자는 절대분양못함

02)914-423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6739-6426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총평수 :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 산신포함 약 100평

※현재 공시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 평수 : 산 1500평
  절터, 토굴, 기도처로써 명당 터입니다
- 옛날 전설이 있고 도인도사 할아버지가 몇 천년전에도 공부를 하셨던 자리로써 입구에 약수터가 있고 청정도량으로써 원래는 본인이 토굴을 여러 동 지어 지인 들과 함께 수행하던것 이 자금에 자질이 생겨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 본인 역시 독실한 불자로써 수행하시는 분께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봅니다
- 가액 : 평당 30만원

010-5501-31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경북도청 부근 대구역,중심가 3분거리
- 평수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보증금 2000만원, 월115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 5층 스님실 25평 포함시– 월 45만원 추가
- 구조 : 최신건물 A/V有, 아미타 삼존불
- 지장,삼성,신중,사천왕탱화, 500인등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0-9598-911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동 화계사거리 대로변
- 4층 건물 중 3층 약 40평
- 시설A급,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00-8705

출발 늦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의 손길 '분주'

6.25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방 국가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45년 이후 1999년까지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는 약 127억불에 달한다. 이후 한국은 1990년대에 들어 개발도상국들에 사회간접자본 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JTS(이사장 법륜)가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심사위원회에서 국제구호단체로 인정받아 국제구호활동의 탄력을 받은 것을 비롯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회장 도공)와의 업무협약으로 캄보디아 아동센터를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2008년 지구촌 곳곳에서 국제구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이사장 법등)가 창립되는 등 불교계 구호활동의 역사는 고작 10여 년 이지만 불교계 NGO단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이웃종교보다 10년 이상 늦게 시작한 불교계 국제구호사업은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다.

1700년 전 인도와 동북 · 남 아시아로부터 불교를 전파 받아 역사와 문화를 융성시켰던 만큼 이제는 우리가 불교국가의 시민들에게 식량 · 식수 · 의료 ·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는 자비행으로 불은(佛恩)에 보답 할 때다.



전세계적인 경제난과 고환율로 인한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들은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된 JTS 구호활동 모습.

한국 국제협력의 현황

한국의 대개도국 협력사업은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자금원조에 의한 개도국 연수생의 위탁훈련이 시초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로 외채 감소과 국제수지 흑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원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제규모 증가 ·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등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구되면서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개도국 지원이 시작됐다. 당시 300억 원을 출연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돼 개발원조 유상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국제원조의 시작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원조단체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KCOC)에 등록된 59개 해외원조단체를 비롯해 총 70여 개에 이른다.

70여 단체들은 아시아(12개국), 아프리카(7개국), 중동(3개국), 중남미(4개국), 동구 · CIS(2개국) 등 총 28개국에서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여성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불교계 단체는 정토회 산하 한국 JTS, 지구촌공생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로터스 월드, 진각복지재단(JGO),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더 프라미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이웃을 돕는 사람들, 능인선원 YBA,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 등 10여 개 단체다. 이에 반해 개신교는 28개의 구호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가톨릭은 바티칸본부 산하의 한국카리타스를 운영해 전세계 162개 카리타스 회원기구들이 20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불교계의 활동이 아시아 지역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면 구호활동의 전 세계적 영역확대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내 불교 NGO의 구호활동

◇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

최근 UN에서 국제구호단체로 승인받은 국제기아 · 질병 · 문맹퇴치기구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는 1991년 법륜 스님이 인도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중에 구호사업을 발원하게 되면서 설립됐다. 현재 미국, 필리핀,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현지법인이 있고 인도, 필리핀,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북한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후에 네팔,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10개국으로 개발구호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북한(식량지원-어린이지원, 농업지원, 의료 및 교육지원) △인도(교육-수자타아카데미, 의료-지이바카병원, 마을개발-둥게스와리마을 개발) △필리핀(교육-민다나오지역, 원주민보호-전통문화보존) △아프가니스탄(난민캠프 및 문맹퇴치, 마을 개발 지원) △지진해일피해구호활동(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몽골, 이란, 이라크 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

2003년 창립한 불교계 국제개발단체로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아프리카 케냐 등 7개국에 걸쳐 구호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각국에 2명 이상의 매니저 및 실무진을 파견해 활동하고 있다. △생명의 우물: 깨끗한 식수 공급사업 △어린이 교육지원: 어린이들 문맹퇴치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 △부설 공생노인복지센터: 국내 노인복지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기타 지역에는 △연해주: 고려인 빈민가정 결연사업 △북한: 북한 결핵어린이 돕기 △인도네시아: 유치원건립, 지진피해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 △베트남: 어린이 긴급구호 지원 을 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생명의 우물 1000프로젝트 사업을 벌이고 현재 800여 개의 우물을 조성해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2002년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본격 출범한 로터스 월드는 캄보디아 정부와 앙코르와트 유적지가 있는 시엠립 지역에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BWC는 내전으로 인해 빈곤국가가 된 캄보디아의 고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BWC 아동센터(고아원), 진료병원, 지역도서관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로터스 월드는 북한에도 유치원 콩우유 지원사업과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김안과, 경희의료원 등과 업무협약으로 보다 활발한 의료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 진각복지재단(JGO)

진각종 진각복지회(이사장 회정)는 1999년 11월 스리랑카와 네팔에 각각 JGO(The joy of genuine oneness: 진정한 하나 됨의 기쁨)란 명칭으로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국제구호사업에 나섰다. 2000년부터 네곰보 지역에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위해 컴퓨터 직업훈련, 기숙사 및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타나 인근 지역 만4~5세 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더 프라미스(The Promise, 이사장 법등)

2008년 6월 창립한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는 현대사회에서의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장 위급하고 절박한 현장에서 '부처님의 약속'인 보살도 실현을 지향하는 단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교육과 의료 구호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티베트 서부 쓰촨지역에 위치한 리탕군에 2번째 세워질 충와중학교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08년 8월 재단 최초의 다목적 해외복지시설 몽골 '드림센터'를 개관했다. 드림센터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얀주르흐구의 게르촌 식수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마을 사랑방 및 공부방과 도서관, 컴퓨터 교실을 운영 중이며 조계종국제봉사단원들이 무료의료진료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종단 복지재단으로 다소 늦은 출발에도 매년 해외구호 개발팀을 각국으로 파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자정보 729호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 인천시 계양구(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32)546-5117

토굴 또는 전원주택안내
● 위치 : 강원도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산중턱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밭1, 집1
● 집전체 황토, 청정바다 밭 잘 가꾸어져있고,
● 나무 100그루정도 심어져있으며 모든게 다 갖추어져있음.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3천만원
016-337-9736

포교당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 86평(법당 46평) 방 3칸, 공양간
● 삼존불 (아미타불,관세음,대세지보살)
● 전세3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및 비품대는
● 상의 후 결정
010-8011-7444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개정 2동
● 대지 : 63평, 건물 3층 96평
● 내부 최고시설, 옥외 약사여래불 조성
● 가액 : 7억 7천만원 (절충가능)
011-850-2189

사찰안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부근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8504-6591

서울도심포교원
● 위치 :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10분거리(대로변)
● 시설 : 4층건물 중 3층 법당, 상담실방, 화장실, 4층, 공양간겸큰방, 주방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원 시설비1800만원(잘되있음)
● 몸만 오시면 됨
● 작은금액으로 법당운영. 자신있는분 환영
011-9105-0024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옆산, 옆계곡, 법당, 요사채, 마당잔디, 텃밭, 각종유실수 총 3,700평
● 임대보증금 350만원 일년 350만원 양도도 가능. 2억5천만원
017-813-9126

탈종공고
● 사찰명 : 백련암
● 법 명 : 법연 (손영자)
● 주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794번지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4월 29일

대한불교불입종 총무원장 법하

한방(韓方)치료로
간질(환) 백반증(백납) 건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B26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 감정 위주로 속성 개인지도
빙의 퇴마법 속성 개인지도
010-7443-3060
(도통 합장)

전통불교 범음범패 전수원
기초반,중급반,고급반,전문반
(전문의산소리,사물다루는법,
불교 전통무용, 각정 제의식)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실전위주로 여법하게 행사 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051)555-0969
011-849-0961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貴한 인연"
50대 계사생 비구승입니다.
도량을 온전히 맡겨주실
아름다운 인연을 기다립니다.
불공 천도재 무보시 집전
010-2446-2626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 병원치료도 잘 안되고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분
- 가정불화, 질병, 우환 등 하는일이 잘 안되는분
- 조상천도가 잘 안되거나 귀신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빙의, 영적장애, 정신질환, 유전성질병, 불임여성
- 알콜중독, 우울증, 두통, 불치병, 수술 전후관리

※특별한 우주氣 치유로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신비의 게르마늄 팩
(노벨상 2회 수상)
탁월한 피부 미백, 매끈하고
보드라운 피부 잔주름, 기미,
칙칙한 피부 노화방지 100mg 2만
오사카대학공학박사(다까마스세이지)인정
(주)리코포오래이숀
농협 187-02-274348 이양희
주문 010-2414-4984

비구니 사찰 공양주 모십니다
(40-50대, 숙식 가능한 분)
053)854-2178

- 불자님께 맞는 기도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시는 분,
- 원인모를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
- 우울증, 공허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시는 분.
- 빙의, 수맥차단, 태아령 천도 무료상담

표심스님 010-7588-4504

기도 수행정진 하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종무소 근무 할 불심이 강한 여 직원(PC가능자) 구함
숙식 제공,출퇴근가능
▷경북 군위면
054)383-0407
010-2750-4394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암자)
054)772-413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5323-7706

금강경 반야심경 (달마도)
열심히 써 드리겠습니다.
월정사 사경대회 1,2회 입선
대한민국 미술 대상전 초대작가
운송 김국희
011-9208-3835

- 사찰에서 일하시면서 운전하실 기사 거사님 모십니다
- 사찰에서 일하시면서 숙식 하실 수 있는 부부 연락주세요

(안 성)
017-265-6300
010-3077-6911

경치 좋고 물맑은 산사(山寺)에서 여생을 함께 보내실 분
60세-70세 사이
보살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011-534-975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
010-6633-5494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괴산, 천년고찰)
010-6414-5600

되는 이는 물에빠졌다 나와도 이 주머니에는 잉어가,
저주머니에는 붕어가.. 들어있는데
될때는 뭘해도 되고,
안될때는 뭘해도 안돼...
사주를 보아 원인과 때를 알고 적성을 찾으면 길이 보여...
영축산 토방에서 무불 합장
011-854-8107
(예약상담)

재단법인 선학원 귀하
대덕사 사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선학원을 탈종합니다.
사찰명 : 대덕사 / 주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산 92-1
2009. 4. 28
대덕사 주지 춘식 합장

秘 法 무 료 강 의
초종파! 귀의 삼보하옵고 비구,비구니들이여 광고보고 찾아가보면 별 것 아니다
● 교재 : A4용지 인쇄분 - 각1시간강의(체험1시간). 본 강의 들으시고 훌륭한 선지식 되소서

1.전생요법, 빙의치유법	2.신병에 침 놓는 곳	3.통술학,불력전생격국법. 심식법,약손마드법
체면학,참으로쉽다	삼혼칠백의 작용법 건강미주,관상학,기학	7일 도인비결법(직관법)

강의시간 :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17시까지)
장소 : 마산 무학산하 법향사 內
※(침) 특수혈 활용비법 (철학박사, 한의학박사, 설산당특별강의)
사총혈,사회혈,팔회혈,요혈,경험혈,육부하합혈,팔맥조화열,오수혈을 쉽게 외울 수 있다.
*** 인연있는 승려들이여 이강의를 꼭 들으소서!! ***
전화 055)221-3358/010-9027-3117 의암 다보 -두손모음-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3월 동시모집
▶ 저렴한 학비, 실속 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학력 · 연령 제한없이 누구든 입학가능!
- 졸업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불교대학"을 치세요.
※ 입학문의 ☎ 053)474-8228
행자 (예비스님) 모집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5/21(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유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불교 영상의 모든것
www.불영.kr
불교뉴스 · 홍보영상 제작
문의전화 02)2236-7208 / 017-207-7208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비법 전수생 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컹비법 공개!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3시 개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 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역앞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잡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군자 떡
나눔과 자비의 정신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단용, 제사용, 법회용, 개인 행사용
모든 떡을 정성을 다해 만들겠습니다
모든 떡 일체 문의 : 사군자 떡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 다동 2호
031)843-3372 / 017-302-3372 일심행 합장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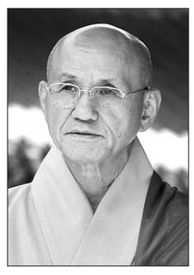
총 1,2권 2,100 페이지 /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 (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 1권 2,745 페이지
크기 : 14×20cm / 가격 : 100,000원

사십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1.가정안택의식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2.사무실고사의식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 慧 草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3.자동차고사의식	中央僧伽大學校 總長 宗 梵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4.선박고사의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기타편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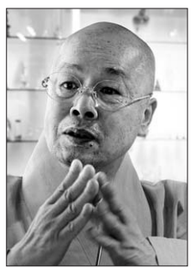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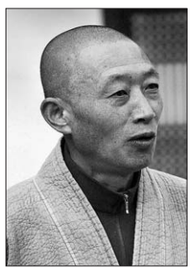
‘진짜 필요한 것’ 부터 도우며 ‘세계일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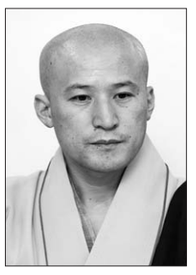
불교계 NGO단체들의 국제구호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의 원력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직책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닌 몸소 활동가적 기질을 발휘해 사업을 이끌어왔다. 이들의 공통점은 섣부르게 포교를 위해 활동을 하거나 단순히 자본만 투자해 구호활동을 벌이지 않는 것이었다.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순전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호 대상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자 노력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실현하는 불교계 대표 구호단체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해외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살’들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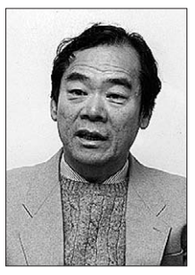

월주 스님.


성관 스님.


목탁 스님.


영봉 스님.


유수 스님.


이근후 박사.

월 주 스님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 사업’ 800여 우물 조성, 7개국 구호

성 관 스님 캄보디아 어린이 보육·교육, 빈민지역개발·문맹퇴치, 의료 활동

목 탁 스님 미얀마에 여러지역 사찰불사 지원, 소수민족 고아원 운영

영 봉 스님 네팔 히말라야서 현지인과 빈곤층 무학자 대상 한국어 강좌

유 수 스님 인도서 쓰레기 제로 운동…북한지원 · 빈 그릇 운동 등 펼쳐

이근후 박사 네팔·베트남 · 우즈베키스탄서 정신과 치료와 봉사 20년

◇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2004년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고 캄보디아, 케냐,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네팔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사업, 먹는물 사업, 지역개발 사업 등 국제개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 생명의 우물 1000프로젝트 사업을 벌여 800여개의 우물을 조성하는 등 전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공생유치원을 개원하고 울란바토르 12곳에 우물을 파는 사업을 진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만 2번 역임한 조계종단의 원로인 그가 이 같은 지원에 나서게 된 계기는 출가 50년 동안 행정업무 중 제3세계 국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고나서 부터였다. 세랍 75세로 노익장을 과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인으로, NGO단체의 대표 지도자로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고 있다.

스님은 지구촌공생회 활동 뿐만 아니라 1980년 후반부터 10여년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1996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대북 사업을 통한 남북교류에 기여했다. 2003년에는 ‘지구촌 공생회’를 창립하여 빈곤국가 돕기 운동과 ‘함께일하는재단’ 이사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

로터스월드 2대 이사장인 수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2006년 캄보디아 시엠립에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아동센터(BWC)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오고 있다. 1996년 캄보디아를 처음 방문한 이후 내전의 상처를 딛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캄보디아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스님은 이후 ‘반드시 기회가 되면 이들을 돕겠다’고 서원을 세운 뒤 2003년부터 Beautiful World of Cambodia(BWC) 사업 계획을 세웠다.

현재 BWC는 조계종 중앙종회 화엄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린이 보육 및 교육, 인근 빈민지역개발 및 문맹퇴치운동, 낙후한 의료진료 활동 등 폭넓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엄회와 로터스월드는 이사회 참여와 더불어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병원진료시설과 자원봉사자들을 확충할 수 있는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성관 스님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으로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을 역임했으며, 중앙종회의원, 경기대학교 관선이사 등 종무행정 및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 목탁 스님(미얀마문화원 공동대표)

서울 혜은정사 주지인 목탁 스님은 한 · 미얀마교류친선협의회 공동회장임과 남방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미얀마문화원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미얀마 문화원은 양국의 종교 · 경제 · 보건 · 사회 · 문화 · 예술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로 상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스님은 1992년 미얀마를 방문해 고아원에 생필품과 학용품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미얀마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우연히 미얀마를 방문했던 스님은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열정에 감탄, 미얀마에 대해 공부하게 됐고, ‘상좌부 불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 외국인 최초로 미얀마 양곤불교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불교가 신앙이 아닌 생활로 자리 잡은 미얀마인들을 좋아하게 된 스님은 한국 · 미얀마친선교류협회를 창립, 미얀마 여러 지역에 사찰불사를 지원하고 소수민족 고아원을 6여 년을 운영해왔다. 또한 2004년 미얀마를 방문해 정부로부터 수도 양곤시 동부지역 신시가지에 1만 여평 규모의 불교기술종합대학 설립을 허가받아 2005년에 완공, 미얀마 극빈층 아이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영봉 스님(네팔 세종한국문화와언어교육원 원장)

영봉 스님은 20여 년 간 히말라야 등지에서 정진하며 미얀마 난민 돕기 운동을 펼쳐 왔다.

스님은 평소 네팔지역에 한국 문화와 언어, 불교를 널리 알리는 한국어 학교를 설립하려는 원력이 있었다. 공주 신원사 주지 지성 스님과 네팔의료봉사단 이근후 박사 등의 도움으로 2008년 12월 개원해 3개월 과정의 제1기 한국어 강좌를 진행했다.

스님은 20여 년간 히말라야에 다니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무료 한국어 학당을 열었고 한국어교사로서 활동 중이다. 한글 교육원은 네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와 역사 등을 교육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성지순례나 트레킹 등반 등을 위해 네팔을 찾은 한국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레킹과 여행 가이드, 셀파 등에 종사하는 현지인들과 빈곤층 무학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를 위해 교육원은 한국어 영어 네팔어로 구성된 교재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현지 규정 때문에 약간의 수업료를 받지만 전액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등 현지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유수 스님 (정토회 대표)

정토회는 법륜 스님이 1988년 서울 홍제동 정토포교원에서 정토원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1990년 현 한국JTS의 모태가 되는 정토회 국제사업부를 설립했으며, 문경에 정토수련원을 개원했다.

이어 1994년 미국과 인도에 JTS를 설립, 같은 해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을 사단법인으로 재 창립했다. 1998년 정토회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인도에서 국제 워크캠프를 진행했다. 2000년 인도 지바카에 병원을 개원하고 몽골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01년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북한지원사업과 빈그릇운동 등도 펼치고 있다.

유수 스님은 2002년 당시 정토회 대표인 법륜 스님이 지도 법사로서만 활동하게 되면서 대표직을 맡게 된다. 유수 스님은 새 대표로 추대돼 조직개편을 하면서 해외불교 지원사업에 적극 나선다. 현재 스님은 국제구호 민간기구인 한국JTS와 국제 평화, 인권, 난민 지원센터인 좋은벗들을 운영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이근후 박사(네팔의료봉사단)

이화여대 정신과 교수이자 불교상담개발원장을 역임한 이근후 박사(74)는 40년 동안 정신과 치료와 봉사활동을 수행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불교계 슈바이처다.

1982년 네팔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그는 이후 매년 한두 차례 네팔을 방문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이근후 박사가 이끈 모임인 네팔이화의료봉사단은 1989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무대를 넓혔고, 2007년 이후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연 2차례 의료봉사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그동안 총 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이화의료원으로 초빙해 무료 수술을 시행하는 등 활발한 해외봉사활동으로 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특별시의사회로부터 ‘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근후 박사는 정년퇴임 후 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아’도 만들었다. 연구, 조사, 교육과 더불어 사회봉사팀 ‘네팔캠프’를 이끌고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모든 일정이 의료봉사만으로 짜여진 건 아니고 참가자들이 네팔의 문화와 역사를 알고 현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낙태. 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재
아가야! 미안하다…
세상몰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회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종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빚을 덜어 드리고저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벽운사 주지 지산스님



초종교적 위령재 봉행
▶대 상 : 낙태 · 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형 식 : 49재 천도의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건봉사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02)971-1544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개강일 : 5월 6일(수요일), 5월 8일(금요일)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봉축 부처님오신날



초파일 법회 안내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법문

일시 : 2009년 5월 2일(음 4월 초파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제 정맥선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140-2 번지
전화 : 031-531-8805 / 011-9885-8805
교통 : 홈페이지 www.zenparadise.com 참조

국제 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전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특허청 실용신안 제 28054호
옥외촛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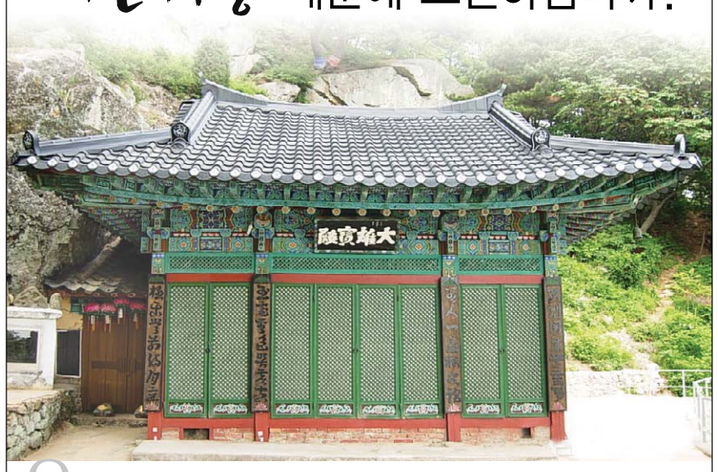
불경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76-0160 / H·P 011-269-3356
E-mail : byoon47@yahoo.co.kr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봉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축
수제화고무신코 만 행 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양 지 국 악 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집 짓는 이는 나무를 잘 다듬고
현명한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 법구경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기도도량
무등산 규봉암

주 지 정 인

신도회장 대각화
지장회회장 원각심
관음회회장 무등월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주 지 법 선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 062)222-2202
홈페이지 : www.munbin.org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전화 : 062)266-0326



원각사에서 생전예수재 49재 기도를 봉행합니다

- 입재 2009년 5월 14일(음.4월20일/목)
- 초재 5월 21일(음.4월27일/목)
- 2재 2009년 5월 28일(음.5월5일/목)
- 3재 6월 4일(음.5월12일/목)
- 4재 2009년 6월 11일(음.5월19일/목)
- 5재 6월 18일(음.5월26일/목)
- 6재 2009년 6월 25일(음.윤5월3일/목)
- 회향 7월 2일(음.윤5월10일/목)

※ 초재, 3재, 5재, 막재(회향)때 영산재가 봉행됩니다.
※ 동참금 : 개인 10만원/가족 30만원/영가 1위당 3만원)
※ 접수 : (062) 223-3168

회주 현고 주지 도제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광주조교당 원 각 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완도 신흥사

주 지 법 일

총 무 법 륜
신도회장 서옥현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1)554-2634
홈페이지 www.sinheungsa.net

사찰 법요집 전문제작
부다기획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111-14 번지
TEL 062.225.8825
H.P 011.616.882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문수선원
시민선원
불교대학
대학원 축서사 합창단 일동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 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삼각산 청련사

종 정 지명 덕찬
주 지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62-1
전화 02)379-3935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총무원장 대은 덕우
주 지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전화 02)2091-0408

투 원 미 디 어

대 표 최 유창

"소리공양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투원미디어를 사랑해 주시는
대덕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상가 1층 가열 119호
전화 02)2265-4288

대한불교조계종
남 고 사

주 지 원 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724번지
전화 063)655-2776

대한불교조계종
종남산 송광사

주 지 도 영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전화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 사회복지 법인 송광 정심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전화 063)243-1212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동국사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전화 063)462-5366
http://www.do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관음사

주 지 재 곤

신도 가족법회 회원 일동

■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번지
전화 063)471-0198

대한불교조계종
전북포교사단

단 장 김진수
사무국장 이두연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아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전화 063)252-4940

익산시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우성
부회장 덕림 부회장 도진
총 무 정산 재 무 원공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전화 063)836-8047. 836-5984

대한불교조계종
익 산 관 음 사

주 지 덕림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전화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천호산 백운사

주 지 우 성

신도 일동

■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65번지
전화 063)836-8047. 836-5984

아이네임즈 김태제 대표

“보시행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



“스님처럼 출가를 한 것도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 제가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교사회공헌 활성화기금으로 참여불교재가연대에 1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쾌척하는 등 국 · 내외를 넘나들며 불교계 곳곳에서 보시행을 펼치고 있는 아이네임즈 김태제 대표(51). 김 대표는 현재까지 북한 어린이 내의 지원, ‘사랑의 교복 나누기’ 교복비 지원, 조손가정아동 정보화교육 지원,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 줌머인 지원, 인도 · 티베트 난민 지역 학교 · 병원 건립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시행을 펼쳐왔다.

“20대 초 2만2900V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 10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의 사고였죠. 하지만 불보살님 가피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 재가연대에 16억 부동산 쾌척 등
> 국·내외 불교계 곳곳서 보시행

김태제 대표는 모태신앙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하지만 진심으로 불교에 깊은 감동을 하게 된 것은 20대 초. 매번 무사히 사고를 넘긴 후 종교에 관심을 갖게 돼 불경과 코란, 성경 등 다양한 종교경전을 탐독한 이후다.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면서 불교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닌 과학적이고 통찰력 있는 진리의 종교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내 종교는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김태제 대표는 부처님께 귀의한 후 불교대학 등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을 찾고, 명상수행을 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부처님 말씀은 사업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통찰력 있게 경영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쟁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열중하던 그가 불교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8년. 당시 김태제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던 건물에 불교계 신행단체 ‘경기불교회관’이 입주하게 됐을 때다. 불자인 회사 직원에게 “건물에 불교단체가 입주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망설임 없이 1000만원을 봉투에 넣어 단체에 기부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인연으로 경기불교회관 관장으로 추대 된 후 현재까지 불교아키데미, 한국JTS,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다양한 불교계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 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인도에 불교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로 고통 받고 있는 인도 서민들에게 누구나 스스로 존귀하다는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려 희망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보시행은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 성불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요.”

수 없이 많은 보시행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전세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회향할 생각이지만 이는 “불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일 뿐”이라는 김태제 대표. 기부한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곳에 도리를 실천하는 그에게서 보현보살의 온화한 미소가 느껴진다.

김진성 기자

자행회 박명혜 회장

“인생은 무통장 계좌와 같은 것”



신도회를 구성할 것을 조언했다. 1979년 여성신도회 보문회는 그렇게 탄생했다. 당시 서울 승가사에서 신행활동을 하던 50여 보살들로 구성됐던 보문회는 현재 200여 회원으로 성장했다. 박 회장은 보문회 창립회장으로 30여 년을 낙산사, 구룡사, 월정사, 보문사 등 전국 사찰에 탑, 괘불, 석등, 종 등을 불사했다. 전국비구니회관 · 중앙승가대 건립은 물론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의 의료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지원 · 장학사업 등 남을 돕는 일이라면 나서지 않은 분야가 없다.

불사마다 앞장서 리더십을 보인 박 회장에게 탄허스님은 “이런 것이 바로 비용이 들지 않는 불비(不費) 보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보문회원들을 위해 기도와 대중공양 준비를 했을 뿐인데 일이 알아서 ‘척척’ 진행 됐을 뿐”이라고 회상하며 “회원들과 함께

> 장애인 재활 돕는 단체 이끌며
> 30여 년 동안 전국 불사 도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니 운명이다 싶습니다. 사찰을 찾으면 제일 먼저 ‘이곳은 이렇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행회 박명혜 회장(74)은 30여 년 동안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과 비구니 회관, 병원, 학교 등의 불사를 도운 원력보살이다. 자행회는 자혜학교, 수봉재활원, 자혜직업재활센터 등 산하기관을 둔 심신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단체다.

박 회장의 불사보시는 생활 자체가 보시행 이었기에 가능했다. 학창시절, 기독교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던 박명혜 회장은 결혼 후 친구의 손에 이끌려 삼각산 승가사에 찾았다. 우연히 찾은 사찰에서 편안함을 느낀 박 회장은 집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까지 하게 됐다. 이후 승가사와 선학원 새벽예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며 불심을 키웠다. 승가사 대의(大義) 스님으로부터 대도심(大道心)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절하는 법 등 기도와 수행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이후 박 회장은 기도정진에 박차를 가했다. 강화 보문사에서 3000배 기도 정진을 하던 날, 칠보가 가득한 파란 상자를 받는 꿈을 꿨다. 당시 주지였던 성수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스님은 ‘보문회’라는 이름으로 불사보시를 ‘참 재미나게 했다’고 흐뭇해하며 말했다.

박 회장은 “30여 년 숨 쉬듯 자연스레 돕다보니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에서 나를 찾아가는 공부로,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박명혜 회장은 보문회 활동 중 1985년 故 이방자 여사와 인연을 맺어 자행회 이사로 활동, 2005년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그는 자혜학교 등 자행회 부설기관의 시설정비를 돕고 원우들의 독립과 자활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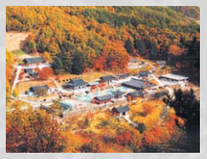
박명혜 회장은 “살면서 선업 · 악업을 짓는 것은 은행의 무통장계좌에 찍히는 것과 같다. 만일 통장계좌의 잔고를 볼 수 있어 1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아껴써야겠다’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통장이니까 안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만큼 선 · 악업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허 스님은 ‘허공이 무서운 줄 알아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한 치의 에누리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안 도울 수 있나요?”

이나은 기자

“불기 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佛紀 2553年 Buddha's birthday |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지나친 집착과 어둠의 길을 버리고
빛의 길을 가서 홀로 기쁨을 찾으라.
- 법구경

불교출판인쇄, 불교용품, 다포제작 전문
불 교 서 원
원 장 문선우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30-1번지
전화 062)226-3056
홈페이지 : www.buddha1.kr

대한불교조계종 광덕사, 약천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회 주 포산 혜인
주 지 범전 혜공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덕사
종회의장 해륜 행봉
주 지
신도일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471
전화 033)432-7345

정 안 사
주 지 정 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전화 063)466-6055

한국불교태고종
오성산 성흥사
주 지 송 월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26-1번지
전화 063)453-0050
홈페이지 : http://sungheungsa.com
인터넷 카페 : 네이버 **군산 성흥사**

대한불교조동종 승정원장 주석사찰
예봉산 금강사
승정원장 달제 지운
주 지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전화 031)512-4477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암사
감찰원장 덕성 행성
주 지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전화 02)2698-6100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지 장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7. 0108
홈페이지: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 조동종 승정위원
설성산 연화정사
승정위원 원 봉
주 지
신도일동
■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리 산 51번지
전화 031)643-6441

대한불교 조동종 경기 종무원장
추읍산 금강사
경기 종무원장
주지 법공 덕룡
신도일동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공세2리 128-1
전화 031)773-4747

대한불교조동종 사회부장
소백산 보림사
주지 혜산 행은
(조동종 사회부장)
신도일동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35-1
전화 043)422-5527

대한불교 조동종 남해교구원장
금산 미륵암
주지 청운 행오
(조동종 남해교구원장)
신도일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
전화 055)867-0776

대한불교 조동종
백암산 오도암
법 사 정각심
■ 대구시 동구 검사동 764-9
전화 053) 984-0343
■ 오도암 포교당 호심사
경북 의성군 가억면 순호리 430-1
전화 054) 833-0668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기사제보. 광고. 구독신청
■ 전화 055) 867-0776. 746-9778
팩스 055)867-8009

대한불교조계종
흑응산 연방사
주 지 일 봉
신도일동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전화 054)654-2464

대한불교조계종
한 천 사
신도일동
■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전화 054)652-6911

대한불교조계종
초 암 사
주 지 용 운
신도일동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524
전화 054)633-2322

대한불교조계종
개 운 사
부설 : 룸비니유치원 운영
신도일동
■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483-2
전화 054)552-4300

대한불교조계종
성 불 사
주지 해각 지성
신도일동
■ 경북 영주시 상망동 산 67-3
전화 054)634-7918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 지 도 기
신도일동
관음유치원 운영, 군포교, 재소자포교 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전화 054)633-1138

대한불교조계종
사불사 대승사
"한국도예. 천년의 혼을 굽는 대승요 금우요"
전통옹기가마, 찻사발가마, 차덖음가마, 죽염가마를 직접 운영. 사찰체험, 다도, 차덖기, 도자기, 장담그기 체험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
전화 054)552-7105

대한불교
백 련 암
주 지 진 성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 굴화리 백천 505-9
전화 052)221-0092 / 011-9318-3230

송 림 가 든
대 표 윤태자
"최고의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전화 055)355-4893 / 016-833-9416

(사)대한불교해동종
도 인 암
주 지 도 인
신도일동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599
전화 011-846-1682

부용불교사
불상. 탱화. 불교서적.
각종 연등. 농악기 일절
대 표 김태선
■ 경남 밀양시 내이동 1017-10번지
전화 055)352-3756 팩스 353-3758 / 011-859-3756

대한불교조계종
장복산 삼밀사
주 지 동 하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대백동 산75번지
주지실 055)544-5962 / 종무소 055)542-6531

좋은 여행을 만드는
좋은여행사 (보배여행사)
국내, 해외 성지순례 불교전문 여행사
대표이사 변영호 합장
■ 부산 동구 초량동 1210-6(지하철1번출구)
태영노블리안빌딩 204호
전화 051)463-9100 팩스 463-9200 / 011-889-8702

(사)대한불교해동종
승 원 사
주 지 혜 광
신도일동
■ 경남 진해시 이동 384-4번지
전화 055)543-9843 / 010-4652-6567

(사)대한불교해동종
보 현 사
주 지 현 무
신도일동
■ 경남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628-8
전화 055)356-5578 / 010-6294-4128

대 양 청 과
각종 청과 위탁 도산매
대 표 정해석
■ 경남 밀양시 내일동 378-4
전화 055)352-3001, 355-2303 / 011-877-5201

불기2553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 선각종

총무원 : 전남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91
옴천사
TEL:(061)433-2233
FAX:(061)433-2425
종무소 (061)433-3233

선각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무주무염국사께서 창수(創樹)하신 성주산문(聖住山門)의 선각승풍(禪覺僧風)을 선양(宣揚)하며,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종지(宗旨)로 한 종단입니다.

· **종 정 :** 영담 정업 대종사
· **총무원장 :** 봉운 정암스님
· **원로원장 :** 법경스님
· **종회의장 :** 동명스님
· **종책실장 :** 자공스님
· **사정원장 :** 진원스님
· **교육원장 :** 혜명스님
· **포교원장 :** 벽해스님
· **선 원 장 :** 도륜 스님
· **문화원장 :** 진환스님
· **국제포교원장 :** 진덕스님
· **복지원장 :** 경봉스님
· **환경원장 :** 정각스님
· **보건원장 :** 다행스님
· **법규위원장 :** 혜원스님
· **법계고시위원장 :** 원명스님

종단 전국 교구원장

· 서울교구원장 : **진보스님**
· 경기교구원장 : **혜인스님**
· 강원교구원장 : **혜국스님**
· 인천교구원장 : **정각스님**
· 충북교구원장 : **선보스님**
· 충남교구원장 : **선관스님**
· 전북교구원장 : **법일스님**
· 광주교구원장 : **혜관스님**
· 전남교구원장 : **진철스님**
· 경주교구원장 : **진봉스님**
· 포항교구원장 : **성법스님**
· 부산교구원장 : **원정스님**
· 제주교구원장 : **성우스님**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대한불교 선각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성그룹은 선각종과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 수호천사 회원 자동가입.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MBC BBS 불교방송 YTN 광고방영중

구입상담문의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1544-6609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